

鄭樵의 《六書略》研究

指導教授 安 在 哲

鄭 華 卿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鄭華卿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郭 利 夫 印

委 員 林 東 春 印

委 員 安 在 哲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 年 6 月

碩士學位論文

鄭樵의 《六書略》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鄭 華 卿

2006年 6月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우선 많은 관심과 배려로 늘 변함없이 따뜻하게 해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안재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논문의 틀을 짜 주시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그 열정과 후의에 존경을 표합니다.

대학원을 입학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뿌듯함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학교생활이 저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가정과 사업,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뒤쳐지지 않고 무사히 논문을 완성 할 수 있게 된 것을 뒤 돌아 보면, 그 동안 저에게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용기를 북돋아주신 박이부 교수님, 임동춘 교수님, 이영호 교수님, 조성식 교수님, 조홍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훌륭한 부모를 만나는 것 못지않게 귀중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수님들의 격려는 제가 분발 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부탁만 했건만, 한번도 마다않고 이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신 진은주 선생님의 고마움은 일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서도 자진하여 꼼꼼하게 정성껏 논문수정을 해주신 김미정 선생님, 논문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 걱정해주신 김은희, 김애라 선생님 그리고 조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배운 문자학에 대한 지식 못지않게 더욱 값진 것은 교수님들은 물론 인간적인 선후배들과 교류를 하면서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운 점입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는 핑계로 아내로써, 엄마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주었던만,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으로 나를 달려가게 하고 내 인생에 이정표가 되어 편안한 길이 되어준 우리가족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지는 학교 길을 일곱 해 동안 하루도 마다않고 데려다주면서, 공부보다 먼저 건강을 염려해주는 자상함과 더불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뒷바라지해준 고마운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다 큰 비전을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아도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는 듬직한 큰아들 형모와, 어렵거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여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쉽 없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예쁜 딸 나리와, 같이 안 놀아준다고 투덜대는 우리 집 보물덩어리 예쁘고 귀여운 늦둥이 딸, 하람이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숙님과 형님들,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 언니형부, 동생내외, 조카들, 친척들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하늘나라에서 무척이나 기뻐하고 계실, 일생을 교육에 몸 바치신 아버지, 병석에서도 장학금 받았다고 기뻐하시던 어머니, 딸자식처럼 아껴주시고, 유난히도 정이 많으셨던 시어머님, 시아버님 영전에 이 줄고 를 바칩니다.



目 次

I 章. 緒論	1
1. 既存研究 및 研究目的	1
2. 研究範圍와 方法	2
3. 六書의 本質	3
4. 鄭樵의 生平과 《六書略》의 成立背景	8
1) 鄭樵의 生平	8
2) 《六書略》의 成立背景	11
II 章. 《六書略》概說	
1. 體例	18
2. 六書圖	20
3. 六書統字	21
4. 各書論	22
1) 象形	22
(1) 正生	25
(2) 側生	27
(3) 兼生	28
2) 指事	31
(1) 正生	33
(2) 兼生	33
3) 會意	34
(1) 正生	36
(2) 續生	36
4) 轉注	36
(1) 並生	39
5) 諧聲	40
(1) 正生	43

(2) 變生	43
6) 假借	44
(1) 正不生	48
(2) 託生	49
(3) 反生	58
III章. 《六書略》의 成果와 誤謬	59
1. 成果	59
1) 理論確立 方面	59
(1) 六書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59
(2) 象形·諧聲·假借의 地位를 確立하였다	60
(3) 六書 相互間의 內在關係를 確立하였다	62
2) 六書實踐(各字의 分析) 方面	65
(1) 甲骨文과 金文에 부합 된다	66
(2) 許慎의 《說文解字》보다 事實과 가깝다	68
(3)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였다	69
(4) 陰陽五行說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70
(5) 本義와 假借義를 구분하였다	71
(6) 許慎의 字形分析을 正正하였다	72
(7) 字形變化를 반영하였다	73
(8) 俗字까지 포함하였다	74
(9)《說文解字》의 모호한 聲訓을 개선하였다	74
2. 誤謬	75
1) 理論確立 方面	76
(1) 字體에 統一된 基準이 없다	76
(2) 잘못된 解釋이 있다	76
(3) 各書내의 分類가 明確하지 않다	78
2) 六書實踐(各字의 分析) 方面	83
(1) 象形을 指事로 歸納한 경우	84

(2) 象形을 會意로 歸納한 경우	85
(3) 指事를 象形으로 歸納한 경우	86
(4) 會意를 象形으로 歸納한 경우	94
(5) 會意를 指事로 歸納한 경우	101
(6) 會意를 諧聲으로 歸納한 경우	106
(7) 諧聲을 象形으로 歸納한 경우	106
(8) 諧聲을 指事로 歸納한 경우	110
(9) 諧聲을 會意로 歸納한 경우	112
IV章. 結論	119
【參考文獻】	125
【中文抄錄】	127
【附錄】	129



I 章. 緒論

1. 既存研究 및 研究目的

漢代 이후 六書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거의 정체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徐鍇가 《說文繫傳》을 편찬한 이후에 이르러서 그나마 六書에 대한 理論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런 중에도 本 연구의 대상인 《六書略》은 《說文解字》의 계통을 탈피하고 六書에만 근거하여 한자를 분류하였을 뿐 아니라, 육서 자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한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鄭樵 이후로는 六書가 한자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으며, 이 六書を 중심으로 한 문자학 연구서들이 대량으로 편찬되게 되었다.

元대에는 戴侗의 《六書故》, 楊桓의 《六書統》과 《六書溯源》, 周伯琦의 《六書正訛》와 《說文字原》 등이 출현하였으며, 明대에는 趙僞謙의 《六書本義》, 魏校的 《六書精蘊》, 楊慎의 《六書索隱》, 吳元滿의 《六書正義》, 《六書總要》, 《六書溯原直音》, 《諧聲指南》, 趙宦光的 《六書長箋》 등이 출간되었다.

이렇게 宋·元·明 三代에는 「六書」라는 이름으로 된 저작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이로부터 문자학은 《說文解字》의 전통을 넘어서서 「六書」를 핵심으로 하는 六書學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때의 저작들은 대부분 《說文解字》로 대표되는 일부 진부한 옛 학설에만 얽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각각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문자를 새롭게 해석을 함으로써, 문자학연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으며, 이러한 개척의 선두에는 鄭樵의 《六書略》이 있었다.

그러나 淸대에 이르러서는 漢學이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저작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淸대의 학자들은 許慎의 학문적 전통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鄭樵 등이 육서를 연구한 방법을 과소평가하였으며, 심지어는 이것을 이단으로까지 간주하였는데, 이는 매우 공평치 못한 처사였다고 할 것이다.

鄭樵 등은 六書에 대해 수많은 가치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六書を 문자학 연구에 있어서의 핵심적 지위로 확정 시켜 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한자학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대폭적으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淸대 이후로는, 오히려 대부분 許愼을 따르며 옛 학설을 묵수함으로써, 창의성이 풍부한 鄭樵의 연구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려 주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을 대대적으로 비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를 수정하고, 제일 먼저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한 사람은 바로 唐蘭이었다. 唐蘭은 “鄭樵는 《說文解字》의 계통을 벗어나 순전히 육서만을 가지고서 모든 문자를 연구한 최초의 학자이며, 이는 문자학사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鄭樵는 모든 문자를 六書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귀납과정을 통해 漢대 학자들의 六書理論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鄭樵로 시작된 六書學은 《說文解字》이외에도 하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본격적으로 鄭樵의 《六書略》을 연구한 것으로는, 施人豪의 <鄭樵文字說之商榷>, <論鄭樵六書學說之不足>, 林志強的 <《六書略》研究> 등이 있다. 이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鄭樵文字說之商榷>의 경우 내용의 상당부분이 鄭樵의 生平이나 저작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본격적인 六書에 관한 연구로는 대체적으로 六書統字에 있어서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論鄭樵六書學說之不足>는 주로 鄭樵 六書分類에서 범한 誤謬 및 부족한 점을 무각시키고 있었으며, <《六書略》研究>의 경우, 鄭樵의 육서이론, 六書實踐 및 구체적인 한자의 설명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귀납하였고, 鄭樵의 기타 문자학연구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鄭樵 《六書略》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전부 다 중국 내에서만 이루어진 연구로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許愼의 《說文解字》에 대한 연구나 六書에 대한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鄭樵의 《六書略》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鄭樵 《六書略》의 六書統字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六書略》을 국내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六書略》의 성과 및 오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2. 研究範圍와 方法

본 연구의 연구범위로는 鄭樵 《六書略》의 전반 4편만으로 국한시키려고 한다.

사실 《六書略》의 앞부분은 六書圖와 각 書로 문자들을 정리한 六書統

字로 구성되어 있어서 本考의 목적과 합치되지만, 나머지 5편은 <起一成文圖>, <因文成象圖>, <古今殊文圖>, <一代殊文圖>, <諸國殊文圖>, <殊文叢論>, <諧聲變體論(論急慢諧聲, 論高下諧聲)>, <論諧聲之惑>, <論象形之惑>, <論一二之所生>, <論子母>, <論子母所自>, <論省文>, <論篆隸>, <論創意>, <論變更>, <論遷革>, <論便從>, <論華梵(上中下)>로 字形, 字體, 梵文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鄭樵의 문자관이나 언어관을 엿볼 수 있는 雜論부분이기 때문에 本考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六書を 설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곳의 관점도 참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 六書의 본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鄭樵의生平 및 《六書略》의 성립배경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六書略》概說 부분에 있어서는, 《六書略》의 체제 및 六書圖, 六書統字에 대해 살펴보고, 각 書의 분류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六書略》의 성과와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本考의 텍스트로는 鄭樵의 《通志·六書略》(1995년, 上海中華書局)을 채택하기로 한다.



3. 六書의 本質

鄭樵의 육서이론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六書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六書라는 말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周禮·地官·保氏》이다.

保氏は 王의 잘못을 諫言하고 道를 가지고 공경대부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였다. 곧 ‘六藝’를 가지고 가르쳤다: 첫째 五禮, 둘째 六樂, 셋째 五射, 넷째 五馭, 다섯째 六書, 여섯째 九數이다.(保氏掌諫王惡而養國子以道, 乃教之‘六藝’: 一曰五禮, 二曰六樂, 三曰五射, 四曰五馭, 五曰六書, 六曰九數.)

당시 「六書」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敎學童)」이었다.

西漢 목록가인 劉歆은 古文字에서 漢字의 6가지 조합규칙을 귀납해, 그것의 본질이 「造字之本」이라고 명확히 제시하였는데, 그의 관점은 《漢

書·藝文志》에 보인다.

옛날에는 8세가 되면 소학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周官》에서 保씨가 공경대부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육서로 가르쳤다고 하였다. 그 육서란 것은 바로 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이며, 이는 造字의 근본이다.(古者八歲入小學, 故《周官》保氏掌養國子, 教之六書, 謂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 造字之本也.)¹⁾

그 후 東漢의 許慎은 六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周禮》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8세에 小學에 들어가면, 保氏가 먼저 六書로써 공경대부의 자제를 가르쳤다. 첫째는 指事인데, 指事는 보아서 식별할 수 있고, 살펴서 뜻을 알 수 있는 것으로 ‘上’과 ‘下’가 그것이다. 둘째는 象形이다. 象形은 사물의 형상을 그려낸 다음, 그 형체를 따라 구불구불 묘사해 낸 것으로 ‘日’과 ‘月’이 그것이다. 셋째는 形聲이다. 形聲은 사물을 가지고 하나의 글자를 만들고 다시 그것과 독음이 비슷한 글자를 취해서로 배합하여 만든 것으로 ‘江’과 ‘河’가 그것이다. 넷째는 會意이다. 會意는 글자를 서로 조합하고 의미를 합쳐, 造字의 취지를 구현한 것으로, ‘武’와 ‘信’이 그것이다. 다섯째는 轉注이다. 轉注라는 것은 글자를 만들 때 부수를 하나로 세우고, 같은 뜻을 부여하는 것으로, ‘考’와 ‘老’가 그것이다. 여섯째는 假借이다. 假借라는 것은 본래 그 글자가 없고, 소리에 따라 사물을 기탁하는 것으로 ‘令’과 ‘長’이 그것이다.(《周禮》:八歲入小學, 保氏教國子, 先以六書, 一曰指事, 指事者, 視而可識, 察而見意, ‘上’, ‘下’是也. 二曰象形.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誦, ‘日’, ‘月’是也. 三曰形聲. 形聲者, 以事爲名, 取譬相成, ‘江’, ‘河’是也. 四曰會意.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撝, ‘武’, ‘信’是也. 五曰轉注. 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 ‘老’是也. 六曰假借.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託事, ‘令’, ‘長’是也.)²⁾

그러나 許慎은 六書의 性質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字形을 분석할 때에도 指事, 象形, 形聲, 會意 만을 썼으며, 轉注와 假借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許慎의 해석과 분석은 후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六書가 漢字 形體結構의 類型이 되기도 하고, 造字의 準則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六書가 지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쟁론이 분분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明代에 이르러, 六書의 본질이 「造字之本」이라는 견해에 대

1) 班固의 부친인 班彪는 劉歆의 학생이었다. 班固의 《漢書藝文志》는 劉歆의 《七略》을 근거로 쓴 것이다.

2) 《說文解字·序》

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명대의 楊慎은 《六書索隱》에서 처음으로 「四經二緯說」을 제기하였다.

六書중에서 象形이 첫 번째, 象事가 두 번째, 象意가 세 번째, 象聲이 네 번째이다. 假借는 이 넷을 빌린 것이며, 轉注는 이 넷을 주해한 것이다. 四象은 經이며, 가차와 전주는 緯이다. 四象은 유한하지만, 가차와 전주는 무궁하다.(六書, 象形居其一, 象事居其二, 象意居其三, 象聲居其四, 假借, 借此四者也, 轉注, 注此四者也. 四象以爲經, 假借, 轉注以爲緯. 四象之書有限, 假借, 轉注無窮.)³⁾

즉 그는 象形, 象事, 象意, 象聲 등 4體는 문자의 形體構造와 관계된 것이며, 轉注와 假借는 이 4가지에 「注」를 하거나 「빌린 것(借)」이라는 것이다.

吳元滿은 象形은 순수한 文이며, 指事는 文이 더해진 것이고, 會意는 순수한 字이며, 諧聲은 字가 변한 것이며, 假借와 전주는 字의 쓰임이라고 생각하였다.⁴⁾

그 후 趙宦光은 吳元滿의 설을 계승하고 조금 고쳐, 「六書」를 「五體一用」으로 나누었다. 그는 “5書가 근본이고, 가차는 쓰임이다(五書爲本, 假借爲用)”라고 생각하였다.

清代 戴震은 「四體二用」설을 제창하였다. 즉 象形, 指事, 會意, 形聲은 造字法이며, 轉注, 假借는 用字法이라는 것이다. 그는 《答江慎修先生論小學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체로 글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의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천지간의 일과 형체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었다. 그 일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을 指事라 하며, 一, 二, 上, 下가 그것이다. 그 형체의 대강을 본뜬 것을 象形이라 하며, 日, 月, 水, 火가 그것이다. 문자가 이미 성립되자 소리가 그 글자에 기탁하게 되어, 글자에는 그와 어울리는 소리가 있게 되었다. 뜻이 글자에 기탁하게 되어, 글자에는 서로 통하는 뜻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문자의 두 단서이다. 다시 이것을 부연하여, 소리가 어울리는 것을 취한 것을 諧聲이라 하며, 소리가 어울리지 않고 그 뜻이 모인 것을 會意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는 書의 각 체가 이것에서 멈추었다. 이것으로 用(쓰임)이 있게 되었

3) 清 楊錫觀의 《六書雜說·古今論轉注》, 《四庫存目叢書》經部205本, 429쪽, 齊魯書社 1997년 3월 제1版에서 재인용

4) 《四庫存目叢書》經部194本, 제473쪽 “象形, 文之純; 指事, 文之加也. 會意, 字之純; 諧聲, 字之變也. 假借, 轉注則字之用.”

는데, 여러 글자가 하나의 쓰임인 경우, 예를 들어 初, 哉, 首, 基은 모두 始의 뜻이며, 卬, 吾, 台, 予은 모두 我的 뜻으로, 그 뜻을 서로 돌아가며 주해해 주는 것을 轉注라 한다. 한 글자에 쓰임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는 뜻에 근거하여 引伸되는 경우와, 소리에 근거하여 별도로 기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빌어 저것을 나타내는 것을 가차라 한다. 그래서 문자를 쓰는 방법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다. 六書의 순서는 자연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법칙을 세우는 것도 쉽고 간단한 것에 근거한다.(大致造字之始, 無所憑依, 宇宙間事與形兩大端而已. 指其事之實曰指事, 一, 二, 上, 下是也; 象其形之大體曰象形, 日, 月, 水, 火是也. 文字既立, 則聲寄于字, 而字有可調之聲; 意寄于字, 而字有可通之意, 是文字之兩大端也. 因而敷衍之, 取乎聲諧, 曰諧聲; 聲不諧而會合其意, 曰會意. 四者, 書之體止于此矣. 由是之于用, 數字共一用者, 如初, 哉, 首, 基之皆爲始, 卬, 吾, 台, 予之皆爲我, 其義轉相爲注, 曰轉注. 一字具數用者, 依于義以引伸, 依于聲而旁寄, 假此以施于彼, 曰假借. 所以用文字者, 斯其兩大端也. 六書之次第出于自然, 立法歸于易簡.)⁵⁾

淸 段玉裁은 이 견해를 매우 추종하였다.

대진선생이 ‘指事, 象形, 形聲, 會意은 字의 본이며, 轉注, 假借는 字의 用이다’라고 하였는데, 성인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말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戴先生曰: ‘指事, 象形, 形聲, 會意四者, 字之本也, 轉注, 假借二者, 字之用也.’ 聖人復起, 不易斯言矣.)⁶⁾

그러나 청대에도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에 불만을 품고, 여전히 六書를 造字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江聲은《六書說》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대체로 육서 중에서 象形, 會意, 諧聲 이 세 가지가 근본이며, 指事, 轉注, 假借는 부차적인 것이다. 指事는 形을, 轉注는 意를, 假借는 聲을 통괄한 것이다. 대저 이 6가지에는, 고인들이 문자를 만들 때의 뜻이 이것에 다 구현되어 있다.(蓋六書之中, 象形, 會意, 諧聲三者是其正; 指事, 轉注, 假借是其貳. 指事統于形, 轉注統于意, 假借統于聲…凡此六者, 古人造字之旨具在于斯.)⁷⁾

孫詒讓은 《與王子庄論假借書》에서 假借는 造字를 할 때 造字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된 變通의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轉注에 대해서는 漢字

5) 戴震《戴震集》, 上海古籍出版社, 1980년 5월 제1版, 제75쪽

6) 段玉裁《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년 2월 제2版, 제755쪽

7) 《叢書集成·初編》

의 孳乳分化的 과정에 착안하여 설명하였다.

江聲과 孫詒讓 등은 역사적인 각도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戴震 등의 「四體二用」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當代문자학자 鍾如雄은 「本」이라는 글자에 착안하여 六書의 의미를 다시 제기하였는데, 前代 사람들이 班固의 「造字之本」이라는 것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을 “本”이라 하는가? 《說文·六上·木部》에: “本은 나무의 아래를 本이라 한다. 木에서 왔으며, 一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주를 달며 “一”을 “一”고 고치고는, 本이라 썼다. 또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았다. “이것은 篆文에는 각각 本을 本이라 하고는 “木”에서 왔으며, “一”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六書故》가 唐本을 인용하여 바르게 고친 것을 인용한다. “本”과 “末”은 모두 形에서 의미(義)를 얻은 것인데, 그 形은 “一”이 나무(木) 위에 있는 것과, “一”이 나무(木) 아래에 있는 것에서부터 왔다. 의미가 바로 이것에 있다. 全書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많다. “一”은 그것이 있는 곳을 기록한 것이지, 사물의 형태는 아니다” “本”의 본의는 나무의 뿌리부분이므로, 이것에서 基礎라는 의미가 생겨났다. 소위 “造字之本”은 바로 “造字的 基礎”를 말한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요즘 대가들이 말하는 문자창조의 기본원칙과 條例이다.(什么叫“本”? 《說文·六上·木部》: “本, 木下曰本. 從木, 一在其下.” 段玉裁注改“一”爲“一”, 寫作 一, 并注: “此篆各本作 一, 解云: ‘從木, 一在其下.’ 今依《六書故》所引唐本正, ‘本’, ‘末’習于形得義, 其形一從木上, 一從木下, 而意却在是, 全書如此者多矣. ‘一’記其處之說, 非物形也.” “本”的本義是樹木的根部, 故引伸爲基礎. 所謂“造字之本”, 卽言“造字的基礎”, 也就是今天大家說的創造文字的基本原則和條例.)⁸⁾

이처럼 六書가 무엇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六書는 造字的 기본원칙과 條例이다”라는 관점이 비교적 古文字學家의 原意와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鍾如雄선생의 관점에 찬성한다.

許慎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蒼頡이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대체로 종류에 의거하여 形을 그린 것을 文이라고 하고, 그 뒤 形과 聲이 서로 더하여진 것을 字라고 한다.(蒼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⁹⁾

8) 《〈說文解字〉論綱》, 鍾如雄, 四川人民出版社, 2000년 4월 제1版, 제97쪽

9) 《說文解字·序》

이것은 한자 孳乳의 관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班固와 許慎은 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으므로, 결국 그들은 학술源流가 같아 서로의 관점도 당연히 동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鄭樵는 六書學을 개창하여, 한자를 생성의 각도에서 六書를 설명하였고, 西漢 劉歆의 「造字之本」 설을 견지하였으며, 許慎이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語焉不詳)」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중국 문자학사상 처음으로 六書의 의미를 체득하여, 六書를 詳述한 사람이다.

우리는 鄭樵가 배열한 細節의 순서를 통해 그가 造字의 각도에서 六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六書 세부항목의 선택에서 보면, 班固는 「六書」를 「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라 하였으며, 鄭衆은 《周禮·地官·保氏》에 注를 달면서 六書를 「象形, 會意, 轉注, 處事, 假借, 諧聲」라고 하였다.

그러나 鄭樵는 「六書」를 「象形, 指事, 會意, 轉注, 諧聲, 假借」라고 하였다. 六書의 명칭에 있어서, 鄭樵는 班固와 鄭衆의 것과는 다르지만, 모두 動詞性詞組(動詞性短語)로 되어있다.

그러나 許慎의 육서 명칭은 「指事, 象形, 形聲, 會意, 轉注, 假借」인데, 그중 「形聲」은 두 개의 명사가 조합된 竝列詞組(竝列短語)이다.

鄭樵는 鄭衆의 설을 계승하기는 했지만, 「形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形聲」이 靜態的인 한자결구분석의 오해를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諧聲」 혹은 「象聲」에는 모두 「그 소리와 어울린다(諧和其音)」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소리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것을 취하는 것은 일종의 動態的인 造字과정이다.

象形, 會意, 形聲, 轉注, 假借 등 5書에 대한 許慎의 해석은 造字法則이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指事의 설명인 「視而可識, 察而見意」는 분명히 情態的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許慎의 설명을, 鄭樵는 造字의 각도에서 指事를 새롭게 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타 5書에 대해서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함으로써, 이들이 造字法으로써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발휘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4. 鄭樵의 生平과 《六書略》의 成立背景

1) 鄭樵의 生平

10) 漢代의 班固, 鄭衆, 許慎三家의 “六書”之說, 名稱, 順序는 각각 다르다. 하지만 이들 세 사람의 학설은 모두 고문학자인 劉歆의 《七略》에서 온 것이다.

鄭樵의 자는 漁仲이고, 호는 夾漈이다. 鄭樵는 스스로 溪西逸民이라고 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夾漈先生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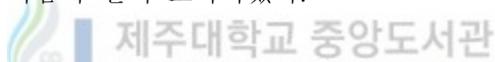
北宋 徽宗 崇寧 3년(1104)에 태어나 南宋 高宗 紹興 32년(1162)에 59세로 그 생을 마감하였으며, 福建 莆田사람이다.

정초가 살았던 시대는 北宋말엽으로 新舊黨간의 爭戰이 극렬했던 時代이다.

조정은 당쟁으로 어지러웠으며, 西北 변방에서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후에 金나라 군대에 의해 卞京이 함락되고, 徽宗과 欽宗은 포로로 잡혀갔다. 비록 중원 땅은 모두 金에게 내주는 했으나, 岳飛 같은 장수들이 분전하여 강남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紹興 11년(1141)에 岳飛가 죽자 南宋은 金에게 稱臣하는 굴욕적인 외교 교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鄭樵는 一個 書生으로서, 더 이상 세상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을 단고 오로지 著作에만 뜻을 두었다.

정초는 평생을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고, 성 북쪽의 夾漈山에 「夾漈草堂」이라는 세 칸짜리 집을 짓고 살면서 학문에 매진하였다. 그는 이 당시의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처음 산에 들어와 초당을 지을 때, 마음은 괴로웠으나 뜻은 원대하였다. 고인들의 서적을 읽고, 百家의 학문을 암송하며, 六藝의 문장을 연구함으로써 날개를 달고 싶었다. 이렇게 일생을 보낸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入山之初, 結草之日, 其心苦矣, 其志遠矣. 欲讀古人之書, 欲誦百家之學, 欲討六藝之文而爲羽翼, 如此一生, 則無遺恨.)

괴로움과 고통이 극심했으나, 일분일초도 헛되이 보낸 적이 없었다. 바람이 부는 새벽녘이나 서리가 내리는 밤에도 쉼 없이 집필하였다. 부엌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더라도 낭송하는 소리는 끊기는 법이 없었다. 매일 매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困苦之極, 而寸陰未嘗虛度, 風晨霜夜, 執筆不休, 廚無煙火, 而誦聲不絕, 積日積月, 一簣不虧.)

또 그는 원대한 독서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십년동안 經書에 관한 학문을, 3년 안에 禮樂에 관한 학문을, 3년 동안에 文字에 관한 학문을, 5,6년에 천문지리에 관한 학문과 蟲魚草木에 관한 학문을, 8,9년 동안에 토론에 관한 학문과 圖譜에 관한 학문, 亡書에 관한 학

문을 한다(十年爲經旨之學, 三年爲禮樂之學, 三年爲文字之學, 五六年爲天文地理之學, 爲蟲魚草木之學, 八九年爲討論之學, 爲圖譜之學、亡書之學)

누군가에게 字書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 읽기를 구하였는데, 주인의 허락여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그 책을 다 읽어야만 그만 두었으며, 그를 찾아가는데 정을 아끼지 않았다(聞有人字書, 直造其門速讀, 不問其容否, 讀已則罷, 去往曾不吝情.)

그리하여 藏書家였던 方略, 方漸, 林靈 등과 빈번하게 왕래하였다.

그 중 方略의 집에는 「萬卷樓」라는 건물이 있었으며, 그 안의 책들은 《萬卷樓書目》에 수록되어 있었다. 鄭樵는 그의 집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는데, 3일 만에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책 속에 틀린 곳이 있으면 표시도 해 두었다.

鄭樵는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는데, 그 중 문자학에 관한 저작으로는 《象類書》, 《六書證篇》, 《六書略》, 《金石略》, 《石鼓文考》 등으로 그 수가 매우 많다.

《象類書》와 《六書證篇》에서는 주로 「六書說」를 연구하였으며, 이 두 책은 전부 망일되었으나, 그 주요한 관점이나 성과는 《六書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쓴 《象類》라는 책은 매우 깊이 연구함으로써, 제작의 요묘한 의미를 다하였습니다. 이제 《象類》의 의미를 취하여 간략히 《六書略》에 옮겨놓아, 천하의 모든 문자를 망라하였으니,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臣舊有《象類》之書, 極深研兒, 盡制作之妙義…今取《象類》之義, 約而歸于《六書略》, 使天下之字無所逃, 而有目者可以盡曉.)

《金石略》과 《石鼓文考》는 주로 金石文字를 연구한 것인데, 《石鼓文考》는 이미 망일되었으며, 《金石略》만 《通志》 속에 남아있다.

또 《獻皇帝書》의 기록에 의하면, 정초의 문자학 관련 저작으로 《續汗簡》, 《字始連環》, 《梵書編》, 《分音》 등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서적들 모두 이미 망일되어 전하지 않는다.

정초는 후대인들에게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남겼지만, 그다지 중시를 받지는 못하여, 그에 관해 기록된 傳도 아주 미미할 뿐이다. 가장 먼저 鄭樵에 관한 傳을 지은 사람은 그의 아들인 鄭翁歸이지만, 그가 지은 《家傳》은 이미 오래전에 망일되어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元初에 脫脫 등이 《宋史》를 편수하면서 정초를 《儒林傳》에 편입시키

기는 했으나, 그 내용은 너무 짧아 300여자 정도에 불과하다. 이전의 비평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평하기도 하였다.

倫類의 학문을 고증하기를 좋아하였다. 지은 책이 많으며, 대체로 박학하기는 했으나, 옳은 것이 적다(好爲考證倫類之學, 成書雖多, 大抵博學而寡是.)

淸初의 黃宗羲등이 편수한 《宋元學案》에서는 정초의 傳을 그의 堂兄인 鄭厚와 함께 쓰고 있는데 겨우 31자밖에 되지 않는다.

康熙 44년에 편수된 《莆田縣志》의 《儒林傳》에는 鄭厚와 鄭樵에 관한 내용(권21)이 있는데, 鄭樵의 傳은 500여자로 되어 있다.

乾隆 2년에 편수된 《福建省志》의 宋 興化縣 《儒林傳》에도 鄭樵의 傳이 있지만 경우 500여자(권 188)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의 저작들은 여기 저기 흩어지거나 망일된 경우가 많아,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하나의 책으로 편찬된 것에는 《夾漈遺稿》 《爾雅注》 등 몇 종뿐이며, 그의 말년에 편찬된 《通志》가 가장 유명하다.

《通志》라는 책도 宋元시대에는 《通志略》만 전해졌을 뿐이며, 《通志》 자체보다도 그 중에 수록된 20略이 더 유전되었다. 이상의 이러한 점으로 보아 鄭樵는 그의 업적에 비해 그다지 중시를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 《六書略》의 成立背景

기존의 여러 학자들이 《六書略》의 成書 배경에 관한 연구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논술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이를 주로 宋代의 학술환경, 金石學 흥기라는 학술조건, 정초 자신의 강한 사명감 및 정확한 언어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宋代의 學術環境

宋代의 학술환경으로 보면, 宋代 학문의 특징은 한 마디로 創新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기이한 견해도 많다.

漢代에서 唐代 중엽까지의 학술은 漢·唐의 저술에 注疏를 달거나 傳을 주로 지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唐 중엽이후에는 새로운 학설이 맹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宋 仁宗 慶

歷(1041-1048)년간에 이르러 학풍은 격렬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宋代 王應麟은 《困學紀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나라 때부터 宋 慶歷 年間に 이르기까지, 설경을 하는 사람들은 예전의 것들을 그대로 간수하기만 할 뿐 살피지는 않았었다. 《七經小傳》이 나오자 조금 달라졌다. 《三經義》가 간행되자 한대 유학자들의 학문을 변변치 않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自漢儒至于慶歷間, 說經者守刻故而不監, 《七經小傳》出, 而稍尚新奇矣. 至《三經義》行, 視漢儒之學如土梗)¹¹⁾

이와 같이 학술적인 면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는데, 문자학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許慎의 《說文解字》는 中國文字學史上 가장 체례가 신중하고 엄밀한 최초의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魏대부터 隋唐에 이르는 기간에 연구된 것은, 그것이 字書에 관한 것이든, 《說文解字》에 관한 것이든, 대부분이 《說文解字》의 아류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唐 李陽冰에 이르러 《說文解字》에서 설명하는 文字의 形體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鄭樵는 한자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한자를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육서이론 면에 있어서도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전통사상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 하였다. 즉 그는 《六書略》에서 자신은 허신의 학술에 대해서, ‘허신이 옳으면 그것을 따랐으며, 옳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凡許氏是者從之, 非者違之.)’라고 밝힘으로써, 강한 비판정신과 창조정신을 보였다.

(2) 金石學의 興起

宋代에 흥기한 금석학 역시 문자학연구에 양호한 학술조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정초의 한자분석에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宋代에는 문자학에 관한 연구와 정리가 성행하였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前代로부터 전해지는 古文資料의 저작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郭忠恕의 《汗簡》이 있었으며, 나중에는 銅器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이렇게 출토된 자료들을 수집정리하면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銅器의 銘文을 고증하고 해석하게 되었고, 이러한 풍토는 대대적으로 문자학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왜냐하면 金文 등 초기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문자를 설명하고 해석해야만, 한자의 결구규율과 변화규율이 실제와 부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六書略·論一二之所生》

鄭樵는 金石이나 圖譜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方冊은 옛 사람들의 말이며, 관식은 옛 사람들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방책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천 년을 거쳐 전해져 온 것이며, 관식에 새겨진 것들은 여전히 그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대체로 金石의 공은 추위나 더위에도 변하지 않아, 옛날의 여러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藝文》에는 《志》가 있으나, 금석에 관한 기록은 없다. 이에 나는 三皇 五帝 때의 화폐와, 三王시절의 세발술과 술병, 秦대의 石鼓, 漢魏대의 비석 등, 위로는 蒼頡 石室의 문자에서부터 唐代의 문서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사람들을 나열하고, 그 지역을 밝혀 《金石略》을 지었다.(方冊者, 古人之言語, 款識者, 古人之面貌. 方冊所載, 經數千萬傳, 款識所勒, 猶存其舊. 蓋金石之功, 寒暑不變, 以茲稽古庶不失眞, 今《藝文》有《志》, 而金石無記. 臣於是采三皇五帝之泉幣, 三王之鼎彝, 秦人石鼓, 漢魏豐碑, 上自蒼頡石室之文, 正逮唐人之書, 各列其人而名其地, 故作《金石略》)¹²⁾

위의 설명과 같이 鄭樵는 《金石略》이란 책을 편찬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宋代에는 金石學이 흥기하여, 鄭樵는 金石學에 대하여 깊은造詣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과학적으로 문자의 形義관계를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鄭樵의 使命感과 言語觀

鄭樵는 강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그가 六書이론을 발전시킨 주요 목적은 바로 사람들이 한자의 구성과 발전 및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마음대로 글자를 만드는 폐단을 없애고, 문자를 설명할 때에 그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문자의 발전사를 보면, 마음대로 문자를 만들거나 설명하는 것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北齊 顏之推의 기록을 예로 들겠다.

북조에서는 혼란의 여파로, 글자들이 비루해졌다. 더구나 마음대로 글자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함부로 만드는 현상은 江南에서가 더욱 심하였다. 그래서 百念을 ‘憂’라 하였으며, 言反을 ‘變’, 不用을 ‘罷’, 追來를 ‘歸’, 更生을 ‘蘇’, 先人을 ‘老’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經傳에도 이런 글자들이 많이 보였다(北朝喪亂之餘, 書迹鄙陋, 加以專輒造字, 猥拙甚于江南. 乃以百念爲‘憂’, 言反爲‘變’, 不用爲‘罷’, 追來爲‘歸’, 更生爲‘蘇’, 先人爲‘老’, 如此非一, 遍滿經傳.)¹³⁾

12) 《通志·總序》

더군다나 정치는 분열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져, 俗文이나 新字들이 유행하게 되어, 문자의 사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唐代 이후에 이르러, 혼란스럽게 문자를 만들거나 사용하였던 것이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李陽冰 등은 《說文解字》을 제멋대로 고쳤으며, 宋代의 王安石은 정치적으로 실패하여 정치의 중심에서 물러난 후 문자를 연구하는데 힘써 《字說》24권을 지었지만, 이것에도 牽強附會한 곳이 非一非再하였다.

역사적으로 몇대로 造字나 用字를 했으며, 李陽冰이나 王安石처럼 문자를 몇대로 해설한 것 등으로 말미암아, 일부 학자들이 六書연구를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六書로 한자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적으로 한자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형체구성 등을 연구함으로써, 근거 없이 마음대로 억측하는 병폐를 막았는데, 鄭樵는 솔선하여 「六書統字」라는 방법을 창안하여 六書로써 한자를 분석하였던 것이다.

정초는 비교적 정확한 언어관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언어 문자가 변화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古文이 변하여 籀書가 되었으며, 籀書가 변하여 篆書와 隸書가 되었다. 秦漢대의 사람들은 小篆과 隸書를 사용했었으나 시험을 치를 때는 반드시 籀書로써 한 것은 그 근원을 잃을까봐 그랬던 것이다.(古文變而爲籀書, 籀書變爲篆隸. 秦漢之人習篆隸, 必試以籀書者, 恐失其原也.)¹⁴⁾

즉 그는 字體가 古文에서 籀書, 다시 籀書에서 篆隸로 변하여, 字體가 일종의 동태적인 변화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六書가 古文과 今文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후대의 학자들은 육서를 잘 몰라, 篆書와 籀書를 섞어 사용하였다. 그래서 경전의 뜻에 통달하고자 해도 어려워졌도다!(后之學者, 六書不明, 篆籀罔措, 而欲通經, 難矣哉.)¹⁵⁾

또한 그는 복잡한 한자를 분석함으로써, 한자의 造字의 기본원칙으로 六書를 제시하였다.

六書란 말은 《周禮·地官·保氏》에 가장 처음 보이며, 그 연구는 兩漢

13) 北齊 顏之推《顏氏家訓·雜藝》

14) 《六書略·序》

15) 《六書略·序》

때부터 시작되었다. 六書가 造字원리라는 학설이 鄭樵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전통적인 六書說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鄭樵 이후로 六書學은 漢語文字學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다.

鄭樵는 또 言語文字의 문제를 실제 사회와 연관시켜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글자를 수록할 때 《說文解字》의 「今敍篆文, 合以古籀」라는 오래된 규율을 묵수하지 않고, 그 당시에 통용되던 글자를 모두 수록하였기 때문에 《說文解字》에 수록된 글자들과는 다소 다르기도 하다.

이처럼 宋代에는 학술환경이 농후했고, 양호한 학술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작자 자신이 비교적 정확한 言語觀과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鄭樵는 《六書略》이라고 하는 견해가 매우 새로운, 그래서 진부한 옛 규율을 타파하는 文字學 저작을 저술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II章. 《六書略》概說

《六書略》은 許慎의 《說文解字》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일부는 許慎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은 곳이 있다.

清代에는 漢學이 다시 부흥하여 《說文解字》를 추종하였으며, 전적으로 許慎의 학설을 정통의 지위로 보호하였으므로, 清代 사람들은 鄭樵의 《六書略》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으며, 《四庫全書叢目提要》에서는 鄭樵의 대표적인 宋元明 시기의 문자학 저작을 모두 폄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학설을 異端邪說로 배척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근대에까지도 이어져서, 丁福保는 《說文解字詁林》을 편찬할 때 鄭樵의 저작을 모두 신지 않았다. 그는 鄭樵를 다음과 같이 비평하였다.

宋代之 정초는 자신의 박학함을 믿고 세상을 깔보면서 《六書略》을 지었다. 그는 前代之 학자들을 곤궁에 처해있거나 몰락하여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비난하였으며, 《春秋傳》, 《禮記》에서부터 韓非子나 楊雄에 이르기까지 六書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許慎에게는 허황된 말이나 쓸데없는 말들이 많으며, 象形과 諧聲 둘만 알고서 《說文》을 지었다고 비난하였다.(宋鄭樵以博洽傲睨一時, 乃作《六書略》, 其於儒先斥爲顛沛淪沒如受魅然, 自《春秋傳》《禮記》至韓非, 楊雄, 皆斥爲不識六書之義, 其詆謫許氏, 爲多虛言死說, 僅知象形, 諧聲二書, 以成《說文》)¹⁶⁾

그러나 《說文解字詁林》에서는 실령 그의 저작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책에는 “의론에도 비유가 많다(議論亦多譬辟)”고 긍정하였다.

현대 문자학자인 唐蘭先生은 최초로 그에게 비교적 공정한 평가를 내린 사람이다.

정초는 처음으로 《說文》계통을 벗어나, 六書만을 가지고 모든 문자를 연구하였다. 이것은 문자학에 있어 하나의 큰 진전이였다.(鄭樵是第一個撇開《說文》系統, 專用六書來研究一切文字, 這是文字學上一个大進步.)¹⁷⁾

정초《六書略》은 허신의 이론으로 허신과 논쟁을 벌였다. 즉 허신의 장으로 허신의 방패를 찌른 것이다. 처음으로 보이는 수많은 새로운 성과들은

16)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商務印書館石印本

17) 唐蘭, 《中國文字學》, 第73頁

분명 문자학사상 받들어 칭송받을 만한 것들이다.(鄭樵 《六書略》用許慎的理論, 作許氏的諍臣, 以子之矛, 攻子之盾, 確有許多創獲, 在文字學史上是值得推許的.)¹⁸⁾

이것을 계기로 문자학계에서는 鄭樵를 인정하고 긍정하기 시작했으며, 점차적으로 鄭樵가 이룩한 문자학의 학술적 가치를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정초가 만년에 편찬한 《通志》는 帝后妃傳 20권, 年譜 4권, 20略 52권, 列傳 124권, 총 200권으로 되어 있다.

그 중 20略에는 氏族略, 六書略, 七音略, 天文略, 金石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六書略》은 정초의 가장 중요한 문자학 저서이며, 이것은 아래와 같이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第1: 《六書圖》《六書序》《象形》《指事》

第2: 《會意》(上下)《轉注》

第3: 《諧聲》

第4: 《假借》

第5: 《起一成文圖》《因文成象圖》《古今殊文圖》《一代殊文圖》《諸國殊文圖》《殊文叢論》《諧聲變體論》(論急慢諧聲, 論高下諧聲)《論諧聲之惑》《論象形之惑》《論一二之所生》《論子母》《論子母所自》《論省文》《論篆隸》《論創意》《論變更》《論遷革》《論便從》《論華梵》(上中下)

《六書略》은 총 5편, 약 55000자로 되어 있다. 1편에서 4편까지가 이 책의 핵심이며, 이는 다시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六書圖로, 각 책의 세목들을 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었다. 또 다른 부분은 육서이론과 육서실천 부분인데, 모두 24235字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육서분류에 따라 배열하여 설명함으로써, 漢代의 문자학자인 許慎이 수립한 글자의 形에 따른 배열방식인 「据形系聯」의 전통을 타파하였다.

5편은 雜論 부분으로, 《起一成文圖》, 《因文成象圖》, 《古今殊文圖》, 《一代殊文圖》 등으로, 字形, 字體, 梵文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통하여 鄭樵가 문자학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 《翁注困學紀聞》권8, 《經說》, 512쪽. 林慶彰《論鄭樵》,《開封大學學報》1997년 1期에서 재인용

1. 體例

鄭樵는 전통적인 六書說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각각의 한자 내부에도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한자의 形音義를 연구하였다. 그는 주로 《說文解字》을 참고 대상으로 이용하였으며, 한자의 形音義에 대해 비교적 과학적으로 한자의 形義를 분석하였다.

《六書略》의 글자 해석 체례는 주로 字頭, 注音, 釋義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穴, 胡決切, 象穿土爲室之形」에서 字頭는 「隸古定(楷書의 필세로 古文字를 적는 것)」의 형식으로 썼으며, 注音는 直音法이나 反切法을 사용하였고, 釋義의 문장은 간결하였다.

또 어떤 것은 許慎의 說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였으며, 《說文解字》를 보충하거나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 중 《說文解字》에서 인용했다고 밝힌 1087條(일부는 《說文解字》의 原文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전체 總數 중에서 50%에 달한다. 그리고 《說文解字》에서 인용을 했지만 이를 밝히지 않은 부분도 꽤 많은데, 이 때문에 《六書略》은 《說文解字》를 반대한 책으로 공평 타당함을 잃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釋字 이외에도 鄭樵는 또 각 「書」의 특징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각 「書」의 서언에서 각 「書」의 形體의特徵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象形」을 예로 들면, 許慎은 각 글자의 뒤에 「象形」 혹은 「象某某之形」이라고 밝혔지만, 鄭樵는 서문에서 「書畫說」로 象形字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고, 구체적인 漢字의 해석에 대해서도 각 「書」는 각기 다른 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象形字의 주요 특징은 그림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 部類에 속하는 글자에 대한 해석의 대부분은 형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형태에서 本義를 밝혔는데 다음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다.

麥, 열매를 그린 來와 그 뿌리를 그린 夕을 따른다.(從來, 象其實也, 從夕, 象其根也)《六書略》

麥, 까뜨라기 곡식으로, 가을에 씨앗을 두텁게 묻으므로 이를 麥이라 한다. 麥은 金이다. 金이 왕성하면 자라고, 火가 왕성하면 죽는다. 예부터 이삭이 있는 것들은 夕을 따랐다.(芒穀, 秋種厚葬, 故謂之麥. 麥, 金也. 金王而生, 火王而死. 從來有穗者, 從夕.)《說文解字》

禾, 뿌리와 잎, 아래로 드리워진 이삭의 모습을 그렸다.(象根葉垂穗之形)

《六書略》

禾, 훌륭한 곡식이다. 2월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8월에 익는데, 시간의 가운데를 얻었으므로 禾라고 한다. 禾는 木이다. 木이 왕성하면 자라고, 金이 왕성해지면 죽는다. 木과 垂의 생략 형태를 따랐다. 垂는 그 이삭을 그린 것이다.(嘉穀也。二月始生, 八月而熟, 得時之中, 故謂之禾。禾, 木也。木王而生, 金玉而死, 從木從垂省, 垂象其穗。)《說文解字》

鄭樵의 象形字에 대한 해석은 비교적 간략하여, 일반적으로 本形과 本義만을 설명했을 뿐이며, 언어 문화적 해석은 많이 하지 않았다. 이 점은 그 후의 戴侗과 매우 유사하다.

戴侗은 象形, 指事, 會意와 같은 글자는 形體에서 직접적으로 그 字義를 고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는 「象形」은 「그 形에서 義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求其義于形可也)」라고 하였고, 「指事」에 대해서는 「일에서 그 義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求其義于事可也)」라고 하였으며, 「會意」는 「의미(意)에서 그 義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求其義于意可也)」라고 하였다. 즉 이러한 글자들은 비록 聲音을 표시하며, 「비록 諧聲을 구할 수 없다 해도 그 義를 잃은 것은 아니다(雖不求諧聲, 猶未失其義也)」라고 하였다.

그러나 鄭樵는 戴侗이 「指事」, 「會意」의 해석을 形態에 국한하여 本義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그의 일부 指事字와 會意字에 대한 해석은 내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許慎의 견해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니, 吉과 信 등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다.

吉, 착하다이다. 土와 口를 따른다. 土는 군자의 입으로, 군자는 착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다.(善也, 從土從口, 土君子之口, 無非善言。《六書略》
吉, 착하다이다. 土와 口를 따른다.(善也, 從土口。)《說文解字》

信, 신용이 서는 바가 없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말에 달려있다.(信無所立, 惟凭人言)《六書略》

信, 정성이다. 人과 言을 따르는 會意이다.(誠也, 從人從言, 會意)《說文解字》

諧聲에 관해 鄭樵는 「五書는 뜻을 숭상하나, 諧聲은 소리를 숭상한다(五書尙義, 諧聲尙聲)」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그는 諧聲變生과 指事兼聲의 여러 항목에서 聲符와 諧聲字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轉注에서는 중점적으로 「建類」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總序이며, 그 다음에 각각 4類로 나누어, 각 類에서는

여러 개의 組字들을 나열하였다. 각 組에는 대표자가 있어, 그 글자를 따르는 글자의 字義나 字音이 모두 代表字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으며, 마지막으로 각 글자의 形音義를 해석하였다.

假借에 대해 鄭樵는 비교적 本義와 假借義와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먼저 本義를 설명한 후에 假借義를 설명하거나, 本音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變音을 말하였는데, 즉 音의 변화를 차용하여 의미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鄭樵는 釋字체례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書의 특징도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六書圖

鄭樵는 책의 첫 머리에 六書圖를 이용하여 한자 생성의 주요경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로 그려 넣었다.¹⁹⁾

이 그림에는 6개의 主脈이 있고, 각각의 主脈 아래에는 여러 개의 支脈이 있다. 예를 들면 「象形」은 「象形正生」10類와 「象形側生」6類로 나뉘는데, 이것은 주로 實像과 虛像을 나타내고, 「象形兼生」은 象形造字法이 다른 造字法을 겸하고 있는 造字方法이다.

「指事」는 「指事正生」과 「指事兼生」으로 나뉜다.

「會意」는 「會意正生」과 「會意續生」으로 나뉜다.

「諧聲」은 「正生歸本」과 「變生」으로 나뉘는데, 「正生」의 諧聲字는 1體는 의미를 나타내고, 1體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變生」에는 「子母同聲」, 「聲兼意」 등의 유형이 포함되는데, 이것으로 「諧聲正生」을 보조적으로 설명하였다.

「轉注」에는 4가지가 있다.

「假借」에서 鄭樵는 「正不生」을 설정하여, 「假借」는 새로운 글자를 生成하여 직접 한자의 증가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正不生」아래에는 「託生」, 「反生」이라는 두개의 支脈이 있는데, 「託生」은 12類로 분류되며, 이것은 다른 글자의 字形을 빌려 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反生」은 「雙音并義不爲假借」로 同形字를 말하고 있다.

「正生」, 「側生」, 「兼生」, 「變生」, 「續生」, 「竝生」, 「託生」, 「反生」 등의 명칭에는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

19) 附錄 1-4 도표참조

로, 일반 造字法과 특수 造字法에 대한 鄭樵의 인식이 매우 주도면밀했음을 알 수 있다.

鄭樵는 「六書」의主旨를 구체화시켰고, 세부 항목의 조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는 「造字」의 각도에서 이해해야만, 鄭樵의 육서이론과 실천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鄭樵 六書說의 정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六書統字

東漢의 허신은 「分別部居, 不相雜廁(부수에 따라 분류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한다)」, 「建類一首, 據形系聯(부류를 세워 하나의 부수로 하고, 형에 따라 체계를 세운다)」라는 편찬체례를 세웠는데, 이것은 문자학사상 가장 위대한 행동으로, 역대 자서편찬의 모범이 되었으며, 魏晉南北朝時期에 출판된 《類編》《字彙》《正字通》 등은 모두 이러한 편성방법을 따르고 있다.

清代 문자학대가인 段玉裁는 許慎의 이러한 편찬체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540자로 天下 古今의 문자를 통섭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 이전의 책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허신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다. 마치 綱領 위에 그물이 있는 것 같고, 요점을 집어서 말하는 것 같다. 근원을 따져 요점이 드러나도록 했으며, 요점을 잡고서 자세히 설명하였다.(五百四十字可以統攝天下古今之字, 此前古未有之書, 許君之所獨創, 若網在綱, 如裘挈領, 討原以綱流, 執要以說詳)²⁰⁾

그러나 鄭樵는 許慎의 部首統字法을 따르지 않고, 「六書統字」라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 이것은 한자배열에 있어 위대한 시도였다.

그가 분석한 24235字 중에는, 象形字 608字, 指事字 107字, 會意字 740字, 諧聲字 21810字(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그는 496字만 배열하였다.), 轉注字 372字, 假借字 598字가 있다. 즉 이것은 許慎의 《說文解字》를 六書에 따라 다시 배열한 鄭樵의 《說文解字》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六書略》은 「六書」로 統字를 한 것이지만 查檢하기에는 꽤 불편한 편이다.

20) 段玉裁《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년 2월 제2版, 제764쪽

명대 梅膺祚의 《字彙》는 자서편찬에 부수와 檢字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字彙》는 楷書字 結構의 특징에 따라, 《說文解字》에서 창립한 540부수를 대대적으로 조정하여 214부수로써 수록된 모든 글자를 통솔하였고, 아울러 筆劃檢字法도 채용하였다. 즉 214부수의 배열은 완전히 필획의 숫자에 의해 배열하였으며, 子丑寅卯 등 12支에 따라 12集으로 분류하였다.

각권의 앞에 있는 圖表는 某部가 某篇에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부의 글자도 「자획의 숫자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字劃之多寡, 循序列之.)」 하였고, 도표는 某劃의 글자가 어느 篇에 있는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查檢하는 방법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운용하기도 쉬워, 지금까지도 字書檢字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鄭樵도 부수를 조정하여 도표로 나열하기는 했지만, 六書자체의 문제로 말미암아 查檢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은 「六書」의 순서배열은 결코 모든 것에 두루 통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各書論



鄭樵의 六書說은 《六書略·序》와 각 書에 속한 글자들을 統字하기 전의 설명부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鄭樵는 象形, 指事, 會意, 轉注, 諧聲, 假借 등을 造字의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그 외에도 「兼書說」을 주장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설명하겠다.

1) 象形

鄭樵는 象形이 객관사물이 갖고 있는 특징적이고 간단한 象이나 추상적인 象을 그려낸 것이며, 六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造字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글자와 그림은 같은데서 나왔다. 그림은 形에서 취한 것이며, 글자는 象에서 취했다. 그림(畫)은 많은 것을 취하였고 글자(書)는 적은 것을 취하였다. 象形이라는 것은 모두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릴 수 없는 것은 그 글자(書)가 없다. 그러나 글자(書)는 변할 수 있음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림

(畫)이 비록 많은 것을 취했다고는 하나 얻어진 것은 항상 적다. 반면 글자(書)는 적은 것을 취하였지만 얻어진 것은 항상 많다.(書與畫同出, 畫取形, 書取象. 畫取多, 書取少. 凡象形者, 皆可畫也. 不可畫則無其書矣, 然書究能變, 故畫雖取多而得算常少, 書雖取少, 而得算常多.)

이러한 관점은 許慎의 「畫成其物, 隨體詰詘」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물이 생긴 현상과 무늬대로 굴곡이 있는 것은 그 굴곡대로,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대로, 모가 난 것은 모가 난 대로 그 객관 사물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려낸 것이라는 것이다. 鄭樵와 許慎 모두 文字라는 것이 言語를 記錄하는 符號라고 提示하지는 않았지만, 文字符號와 言語의 밀접한 관계는 그림과 文字의 區別로써 存在한다고 생각하였다.

鄭樵는 「書」와 「畫」의 比較를 통해, 象形이 객관적인 사물을 그려낸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려낸 문자는 객관 사물의 원래 모습 전부를 복사하듯이 그려낸 것이 아니라, 그 객관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간단한 「象」이나 추상적인 「象」을 그려낸 것으로써, 「畫」와 「象」이라는 두 개념을 종합하고 통일시켜야만 문자의 象形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鄭樵는 六書라는 것은 모두 象形의 변형이라고 하였다. 즉 「象形」은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造字의 방법으로, 「六書」의 기초라고 생각하며, 象形이 六書에서 중요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漢字는 의미성이 매우 강한 도형부호체계에서 발전한 것으로, 象形字는 모든 한자 체계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며, 指事, 會意, 諧聲, 假借 등은 일반적으로 이 象形字를 떠날 수 없다. 象形字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 許慎은 「倉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이라고 모호하게 설명했을 뿐이다.

倉頡이 처음 文字를 만들 때, 대개 사물의 종류에 따라 그 模樣을 본떠서 그렸으므로 이것을 文이라 한다. 後에 形과 聲이 서로 더해지니 이를 字라 한다. 文이라는 것은 事物形象의 본래 모습이요, 字라는 것은 (文과 文이 서로 結合함으로써) 불어나서 漸漸 많아진 현상을 말한다.(倉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 文者, 物類之本. 字者, 言孳乳而寢多也.)

許慎은 象形과 形聲을 제시하면서도 배열 순서에 있어서는 指事를 가장 처음에 둬므로써, 象形이 六書를 통괄할 수 있다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鄭樵는 六書는 모두 象形의 변형이라고 하면서, 象形이 바로 六書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후대 문자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 중 明代 趙撝謙도 象形은 五書를 產生하는 基礎라고 주장하였다.

聖人이 글자를 만드는 것은 모두 象形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象形은 文字의 근본이며, 指事, 會意, 諧聲은 모두 象形에서 생겨났다.(聖人之造書, 肇于象形. 故象形爲文字之本, 而指事, 會意, 諧聲皆由是而出)²¹⁾

또한 鄭樵는 象形字의 주요 특징은 객관사물을 그려내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獨體의 象形表意字이다.

그가 열거한 象形正生 중 절대다수는 이러한 표준에 부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日, 山, 田, 木, 手, 象, 燕, 鬼, 矛」 등이 있다.²²⁾

鄭樵는 한편으로는 許慎의 학설을 비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의 학설을 혁신시킨 사람으로, 「허신이 옳은 것은 따르고, 옳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다(凡許氏是者從之, 非者違之)」²³⁾는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의 관점은 許慎의 학설에 대한 창조적인 귀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신의 形義분석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러한 것은 鄭樵가 象形과 假借를 調整한 것으로 알 수 있다.

鄭樵는 許慎의 象形說을 조정하여, 象形을 象形正生과 象形側生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說文解字》에서 「象形」, 「象某某之形」이라고 표기된 한자들은 象形字, 指示字, 象事字, 抽象字 등의 네 가지 유형에 포함된다.²⁴⁾

예를 들면 「日」은 象形字이고, 「刃」은 指示字이며, 「大」는 象事字이고, 「口」는 抽象字인데, 이것들을 字形면에서 살펴본다면, 「日, 刃, 大」 등의 字形은 形이 있는 구체적인 사물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口」는 개괄적이며 추상적인 것으로, 세상에는 「口」라고 하는 實體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현상에서 귀납해낸 形狀이나 모양에 불과하다.

이것을 鄭樵는 《六書略》에서 조정하여, 앞의 세 가지 「日, 刃, 大」을 「象形正生」에 배열하고, 네 번째 종류인 「口」 등의 抽象字는 「象形側生」에 넣어 「象形正生」과 구별시켰다. 즉 「象形正生」에 속하는 글자의 字形은 일반적으로 모두 구체적인 실물의 形을 그린 것이며, 「象形側生」은 無象(구체적인 실상이 없는 것)의 形을 그린 것이다.

이와 같이 鄭樵는 象形을 「象形正生」과 「象形側生」 두 종류로 구분

21) 趙撝謙《六書本義》

22) 옛날 사람들은 귀신도 형체가 있는 사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鬼□」도 이 類로 분류하였다.

23) 《六書略·論一之所生》

24) 裘錫圭선생의 漢字形體結構분석에 따랐다.

하였는데, 「統以象形(실질적인 사물의 형상에 따라 글자를 통합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방법은 매우 독창적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 天地山川人獸 등과 같은 자연물을 인식하기도 하고, 세태(勢態)나 位勢 등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옛 사람들도 역시 이러한 형태나 位勢를 그려냈을 것이며, 그것들이 언어와 서로 결합하여 문자가 된 것이다.

「象形正生」과 「象形側生」의 공통점은 그림처럼 형태나 형상을 그린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은 결코 그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이미 언어와 결합하여 書寫부호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점은 하나는 실상을 기록하고, 다른 하나는 허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실상은 구체적이고 개체적인 것이며, 허상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것이다. 추상적인 사유를 중시했던 고대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엄격히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위와 같이 鄭樵는 許慎의 상형설을 조정하여, 象形을 「象形正生」과 「象形側生」, 「象形兼生」 등 세 종류로 구분하였으니, 아래에서는 세분하여 살펴본다.

(1) 正生



《說文解字》을 보면, 「象形」, 「象某某之形」이라 표기된 한자들 중에는 象形字, 指示字, 象事字, 抽象字 등이 있다.²⁵⁾ 예를 들면 「日」은 象形字이며, 「刃」은 指示字, 「大」는 象事字, 「口」는 抽象字이다. 字形면에서 본다면, 「日, 刃, 大」 등의 字形은 形이 있는 구체적인 사물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口」는 개괄적이며, 추상적인 것이다. 이 세상에는 「口」라고 하는 實體가 존재하지 않으며, 복잡한 현상에서 귀납해낸 形狀 혹은 모양에 불과하다. 《六書略》에서 조정된 결과 「象形正生」에는 앞의 세 「日, 刃, 大」가 포함되며, 네 번째 抽象字(口 등)는 「象形側生」에 넣어 「象形正生」과 구별시켰다. 이를 통해 보면 「象形正生」에 속하는 글자의 字形은 일반적으로 모두 구체적인 실물의 形을 그린 것이며, 정초는 또 이것을 다음 10종류의 物類로 분명히 구분하였다.

- 天物之形

25) 裘錫圭 선생의 漢字形體結構 분석에 따랐다.

하늘에 떠있는 사물이나 기상현상을 그린 글자들이며, 日, 〇, 月, 天, 旦, 云, 回, 雨 등 8자가 이에 속한다.

· 山川之形

丘, 山, 广, 厂, 石, 水, 川, 泉, 辰, 永, 土, 壘, 凹, 凸, 凹, 岳 등 30자가 이에 속한다.

· 井邑之形

우물, 고을 등 인위적인 건축물들의 모습을 그린 글자들로, 井, 丹, 田, 高, 畺, 畹, 田, 京, 冂, 穴 등 14자가 이에 속한다.

· 艸木之形

풀과 나무의 모습을 그린 글자들로, 艸, 丕, 帝, 才, 才, 艸, 屯, 未, 木, 桑, 出, 鳥, 束, 來, 禾, 秀, 未, 瓜, 黍, 不, 火, 桀, 葉, 果, 朶, 屮, 艸, 艸, 秝, 秝 등 45자가 이에 속한다.

· 人物之形

사람의 형체 및 행동 등을 그린 글자들로, 人, 匕, 身, 儿, 兒, 兒, 身, 兜, 面, 首, 長, 元, 元, 大, 亦, 夫, 夭, 交, 介, 六, 凶, 心, 耳, 聃, 手, 母, 母, 也, 民, 而, 力, 甲, 子, 了, 孑, 子, 厶, 口, 彙, 走, 止, 步, 辵, 彳, 彳, 行, 牙, 足, 疋, 壬, 舌, 谷, 白, 申, 曳, 瓜, 鬥, 丑, 彗, 夫, 目, 眉, 自, 幺, 呂, 矛, 骨, 肉, 巫, 舛, 夂, 夂, 夂, 疒, 苜, 尸, 包, 皿, 罍, 眚, 龔, 北, 夂, 竝, 孛 등 123자가 이에 속한다.

鳥·獸之形

동물의 모습을 그린 글자들로, 丫, 采, 羊, 覓, 牛, 牽, 角, 虎, 毛, 尾, 豕, 豸, 易, 禺, 象, 馬, 鹿, 兔, 龙, 鼠, 熊, 离 등 75자가 이에 속한다.

· 蟲魚之形

곤충 및 어류의 모습을 그린 글자들로, 魚, 燕, 乙, 虫, 蜀, 它, 龜, 卵, 白,

巴, 丁, 卜, 兆, 貝, 蟲, 鱗, 虫, 蟲 등 23字가 이에 속한다.

· 鬼物之形

귀신의 모습을 그린 글자들로, 鬼와 由 등 2字가 이에 속한다.

· 器用之形

무기 및 도구의 모습을 그린 글자들로, 弋, 戈, 丁, 匕, 鬲, 瓦, 弓, 几, 囧, 且, 斤, 斗, 升, 龠, 矛, 酉, 冊, 玉, 主, 干, 兪, 庚, 率, 鬲, 珏, 龔, 爾, 盾, 豈, 豆, 豐, 祭, 缶, 矢, 臼, 兩, 月, 方, 尺, 勺, 壺, 疊, 正, 乏, 刀, 刃, 匕, 刃, 片, 杼, 戛, 鼎, 門, 戶, 傘, 業, 樂, 乘, 區 등 87字가 이에 속한다.

· 服飾之形

의복과 관련된 사물의 모습을 그린 글자들로, 衣, 巾, 市, 帶, 网, 示, 勿, 放, 系, 糸, 圖 등 15字가 이에 속한다.



(2) 側生

象形側生은 구체적인 실상이 없는 無象의 形을 그린 것이다.

예를 들면 「爻, 丨, 冂, 勺, 乚, 爿, 又, 冂」 등의 象貌는 사물의 굽은 모습을 그린 것이고, 「一, 二, 三, 三, 十, 卅, 卅, 卅」 등의 象數는 구체적인 숫자의 모습을 그린 것이며, 「上, 下, 中, 丿」 등의 象位는 「方位之形」을 그린 것이고, 「气, 只, 白, 丂, 兮, 乎」 등의 象氣는 氣가 흐르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 「牟, 彭, 号」 등의 象聲이 있으며, 「巳, 亥」 등의 象屬도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象貌

사물이 모종의 모양을 이루고 있거나 움직이고 있는 모양을 그린 글자로, 八, 入, 爻, 爿, 丨, 冂, 壬, 王, 生, 丰, 束, 冂, 文, 勺, 凶, 卩, 丿, 乚, 父, 毋, 串, 口, 至, 小, 泉, 彖, 燹 등 44字가 이에 속한다.

· 象數

구체적인 숫자의 모습을 그린 글자로, 一, 二, 三, 四, 五, 六, 七, 九, 千, 卅, 卅, 卅, 卅 등 14자가 이에 속한다.

· 象位

방위의 모습을 그린 글자로, 上, 下, 中, 丄, 丅, 丌, 不, 左, 右 등 11자가 이에 속한다.

· 象气

氣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린 글자로, 气, 只, 𠂔, 白, 回, 𠂔, 兮, 乎, 乃, 于, 平, 兪(兪), 欠, 𣦵(死) 등 15자가 이에 속한다.

· 象聲

사물의 소리를 그린 글자로, 牟, 𠂔, 吳, 轟, 噪, 曰, 号(號), 岳, 彭, 砢, 磬 등 13자가 이에 속한다.

· 象屬



12干支 중 巳, 亥를 설명한 것이다.

(3) 兼生

鄭樵는 또한 兼書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한자의 形體結構가 복잡하여, 六書를 분석함에 있어 엄밀히 부합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담하게 창안한 방법이다. 所謂 「兼書」라는 것은 一字가 동시에 두 종류 書를 갖추고 있는 造字方式이다. 兼書는 象形, 指事, 諧聲 부분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이를 「兼生」이란 소 분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단 象形과 관련된 兼生을 살펴보기로 한다.

鄭樵는 象形兼生을 「形兼聲」과 「形兼意」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원래 象形은 주로 字形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諧聲은 일부분은 뜻을, 일부분은 음을 나타내는 조자법이며, 會意는 각각의 부분이 뜻을 나타내는 조자법이다.

· 形兼聲

形兼聲의 조자방법은 象形의 조자법과 諧聲의 조자법을 결합시킨 것이며, 이는 주로 初文(象形字)에 聲符 혹은 意符를 결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諧聲字의 音意는 初文의 音意와 같다. 具體的인 分析은 아래와 같다.

첫째, 初文(象形字)에 聲符를 結合하여 諧聲字를 만든 경우로 齒, 金 등이 있다.

齒, 《說文解字》에는 「입속 치아의 모습을 그린 것이며, 止의 소리이다」(《說文解字》: 「齒象口齒之形, 止聲。」)

이것은 于省吾가 《甲骨文釋林》²⁶⁾에서 설명한 字形變化와 같다.

甲骨文的 齒는 입안 치아의 모습을 그린 것이며, 晚周의 銘文에는 라고 되어 있다. 止가 더해져 聲符가 되었다가 점차 形聲字로 변했다.(甲骨文 齒, 象口內齒牙形, 晚周銘文作  加止爲聲符. 遂變成形聲字.)

金字에 대해 《六書略》은 《說文解字》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金, 《說文》에 「다섯 가지 色의 쇠이다. …흙에서 나오므로 土를 따르고, 左右의 점은 쇠가 흙 속에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今聲이다(《說文》: 五色金也. …生於土, 從土, 左右注象金在土中形, 今聲)

이는 饒炯이 《部首訂》²⁷⁾에서 말한 字形變化와 같다.

오색의 금은 모두 광산에서 나왔다. 광산은 땅과 화합한다. 땅이라는 것은 흙이다. 그러므로 무늬는 땅에서부터 왔다. 후에 今聲을 加하여 本字가 되었다.(五色之金皆出於礦, 礦和於地, 地者, 土也, 文故從土……后加今聲爲本字.)

즉 齒와 金은 각각의 初文에 止와 今의 소리가 더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도 음이나 뜻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鄭樵는 이를 兼生으로 분류를 한 것이다.

둘째, 初文(象形字)에 意符를 더한 것으로, 箕, 鬲 등이 있다.

26) 漢語大字典 1986쪽 재인용, 四川, 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11월

27) 漢語大字典, 1733쪽 재인용

箕, 지금은箕으로 쓴다. 까부르다이다. 竹과 𠄎에서 왔다. 𠄎은象形이고, 아래는 그 丌 받침이다. 𠄎역시 箕字가 되며, 丌 역시 箕이다.(今作箕. <說文> : 「籊也. 從竹, 𠄎, 象形, 下其丌也. 亦爲箕字, 丌亦算箕.」) <六書略>

아마도 「箕」의 古字는 바로 삼태기의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가 나중에 意符를 나타내는 竹이 더해진 것일 것이다.

齠, <說文解字>에서 齠는 老人의 이빨이며, 마치 절구(臼)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齒와 臼를 따른다. 臼는 또 소리를 나타낸다.(<說文>齠, 老人齒, 如臼也. 從齒, 從臼, 臼亦聲.)

아마 鄭樵는 「臼」는 어금니를 나타내는 의미였는데, 후에 意符인 齒字가 더해졌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는 <農政全書·牧養六畜·馬>에 보이는 의미와 같다.

떨어진 뼈가 나오고자 하고, 앞의 사이 뼈도 나오고자 하여, 前後의 어금니가 붙고 이어져 커지고자 한다.(距骨欲出, 前間骨欲出, 前後臼附蟬欲大.)

여기서 보이는 「臼」는 바로 「齠齒(어금니)」라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정초가 예로 든 形兼聲의 글자들에는 聿, 殳, 箕, 筮, 壘, 禽, 𠄎, 戍, 尸, 龍, 韋, 齠, 玄, 辦, 辯, 辨, 齠(齠), 齠, 疔, 裘, 淵, 涵, 靄(今=雷, 古=晶), 關, 頰, 頰 등 37字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소리가 더해진 加聲象形인 경우가 많다.

· 形兼意

원래 會意字의 결합방식에는 즉 「比形會意」와 「比義會意」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比形會意란 바로 偏旁의 形象을 결합하여 會意를 만드는 것이며, 比義會意란 글자를 이루는 偏旁이 獨立的으로 갖고 있는 字義의 결합을 통하여 會意를 만든 것이다

鄭樵는 形體가 뜻을 나타내는 象形類에 重點을 두고서는 比形會意를 생각했으며, 이를 특별히 形兼意라는 명칭으로 지칭한 것 같다.

鄭樵가 여기에서 例로 든 글자를 보면, 그가 말한 「形兼意」는 주로 比形會意라고 할 수 있다. 鄭樵가 이에 분류한 글자들로는 戒, 春, 聿, 𠄎, 𠄎, 兵, 弄 등 총 50字가 있다. 이들 글자 중 몇 개만 살펴보기로 한다.

戒, 두 손(卅)으로 戈를 가지고 경계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警也. 從卅持戈, 以戒不虞.)

즉 정초는 「戒」를 卅과 戈가 결합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聿, 《說》에 「질구질을 하여 보리 껍질을 벗기는 것으로, 臼와 干을 따랐다. 그것을 쪼는 도구이다.」라고 하였다.《說文》: 「舂去麥皮也. 從臼, 干, 所以聿之.」

아마도 鄭樵는 聿字가 形符의 「臼」와 「干」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즉 이들 글자들은 偏旁의 形象을 결합하여 하나의 뜻을 產生한 것으로 주로 「比形會意」에 속하는 글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鄭樵가 象形으로 분류한 글자들은 총 608字이며, 이들은 다시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본뜬 正生 422字와 구체적인 실상이 없는 無象을 그린 側生 99字, 그리고 象形과 諧聲, 象形과 會意를 겸하고 있는 兼生 87字로 나뉜다.

물론 그 중에는 象形이라고 보기 어려운 指事字나 혹은 會意字, 諧聲字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六書略》의 오류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2) 指事

許慎의 指事に 대한 정의는 애매한 편이다. 즉 「보아서 알 수 있다(視而可識)」는 것은 「象形」과 혼동될 수 있으며, 「살피면 뜻이 보인다(察而見意)」는 것은 會意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象形字 역시 「보아서 알 수 있고(視而可識)」, 會意字 역시 「살피면 뜻이 보이기(察而見意)」 때문이다.

이에 대해 鄭樵는 指事が 象形이나 會意와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指事は 象形과 類似하다. 그러나 指事は 事이며, 象形은 形이다. 指事は 會意와도 類似하다. 그러나 指事は 文이고 會意는 字이다. 獨體면 文이고, 合體면 字가 된다. 形이 있어 그것을 그릴 수 있으면 象形이 되고, 形이 없어 그릴 수는 없으나 그 일을 가리키면 指事が 된다. 이것이 指事の 意味이다.(指事類乎象形. 指事, 事也. 象形, 形也. 指事類乎會意, 指事文也, 會意字

也。獨體爲文，合體爲字，形可象者曰象形，非形不可象者，指其事曰指事。此指事之義也。）

指事는 첫째 그 의미가 「事」를 가리키기 때문에, 象形과 마찬가지로 獨體의 文에 들어가지만, 실제적인 「象」을 나타내는 象形字와는 區別이 된다. 둘째 形體로 보면, 그 모양은 獨體의 文이므로, 會意와 마찬가지로 「事」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合體의 字인 會意字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許慎이 指事라고 명확히 밝힌 글자는 「上, 下」 두 글자뿐이었고, 다른 글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指事」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다.

鄭樵는 이에 대해 가장 처음으로 疑問을 제기하여, 「上」과 「下」 두 글자를 「象形側生」의 「象位」 속에 귀납시켰다. 이는 그가 象形에서 밝혔듯이 六書는 모두 象形の 변형이며, 象形이 六書의 기본이라는 생각과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上」, 「下」의 古文字 形態는 각각 「」와 「」로, 이는 許慎이 象形이라고 한 「」, 「」등과 마찬가지로 無形の 象을 나타내는 추상부호이다. 따라서 이들은 象形이 아니라 指事로 귀납시켜야 옳을 것이나, 鄭樵는 「上」과 「下」는 象形側生の 象位에, 「」는 象形側生の 象貌로 귀납시켜, 혼동하였다.

이 밖에도 鄭樵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指事字를 象形으로 歸納시킨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개혁은 後代 學者들로 하여금 문자에 대해 다양하게 사고하게 함으로써 文字學을 發展시켰다.

現代文字學者인 唐蘭선생은 처음으로 六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三書說」을 주장했는데, 鄭樵의 象形說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指事를 정리하였다.

象事라는 것은 바로 班固가 말한 象事이며, 許慎이 말한 指事이다. 이 類型에 속하는 文字들이 그려낸 것은 모두 抽象의인 形態, 數目 등이며, 實際의인 事物은 없기 때문에, 前人들은 象形 이외의 다른 類로 분류한 것이다. 許慎은 ‘上, 下’ 二字를 例示로 들었으나, 鄭樵는 이들을 象位로 歸納시켰다. 鄭樵가 비록 指事字를 잘못 解釋하기는 했으나, 象貌, 象數, 象位 등을 象形字라고 생각한 것은 매우 옳다. 方形을 나타내는 □는 虛像이나, 井와 田는 實象이다. 그림을 그리는 기술만을 갖고 보자면, 方形이 井形 田形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象事, 這一類就是班固的象事, 也就是許慎的指事. 因爲這一類文字所書的都是抽象的形態、數目等, 沒有實物, 所以前人要在象形外別列一類. 許慎舉‘上、下’二字爲例, 鄭樵雖把指事字解釋錯了, 但把象貌、象數、象位諸類, 都認爲是象形字, 却是很對的… 方形的□, 是虛象, 井字

跟田字是實象，如但就圖畫的技術說，方形和井形、田形，有什么不同呢?)²⁸⁾

鄭樵의 「指事」 이론을 따른다면, 「指事」에 속한 글자들은 바로 清代 王均이 例로 든 「純體指事字」가 될 것이다.

「爪」를 예로 들어보면, 「爪」자의 古文字를 살펴보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손톱으로 물건을 긁는 모습은 본뜬 것이다. 이는 形體적으로 象形字와 유사하다. 그러나 字義를 살펴보면 「爪」는 「抓」의 初文으로 「긁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 「事」에 속하는 것이지, 「物」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象形」과 「指事」는 모두 獨體字를 만들지만, 前者는 物을 나타내며, 後者는 事를 가리킨다. 즉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본뜬 것은 象形이며, 구체적인 實象은 없으나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은 指事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鄭樵는 107개의 글자를 指事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正生과 兼生으로 구분하였다.

(1) 正生

指事正生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이 없는, 추상적인 일을 나타내는 글자들로, 이에 귀납된 글자들은 尹, 史, 外, 与(俗字 與), 丈, 事, 聿, 玄, 爭, 盲(今=享 說文=獻), 夆(說文=服), 束, 帚, 帛, 尢, 兀, 古, 仄, 直, 亡, 臾, 百, 章, 竟, 及, 善, 美, 背(今=肯), 奇(說文=異), 畀(說文=仁), 全(古=全), 內, 言, 晝, 再, 甘, 央, 宦, 介, 分, 夕, 昆, 員, 艮, 參, 令, 赤, 尙, 牽, 美 등 78字 이다.

(2) 兼生

指事兼生은 兼書의 원칙에 따라 指事이면서 다른 것도 겸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다시 事兼聲, 事兼形, 事兼意로 분류하였다.

· 事兼聲

指事이면서 諧聲을 겸하고 있는 것들로, 用, 庸, 甫, 美, 今, 龔 등 6字 이다.

28) 唐蘭《中國文字學》88쪽

· 事兼形

지사이면서 象形을 겸하고 있는 것들로, 支, 吏, 父, 公, 爭, 戊, 引, 申, 克, 𠄎(宣의 古字), 畫 등 11字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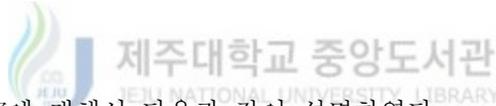
· 事兼意

指事이면서 會意를 겸하고 있는 것들로, 耑(今=前), 𠄎(受), 𠄎, 曹, 寒, 侵, 義, 后, 司, 邑, 𠄎 등 12字이다.

鄭樵가 指事로 분류한 많은 글자가 會意字이다. 즉 用, 庸, 甫 등의 「事兼聲」은 兼聲會意字들이고, 「事兼意」에 배열된 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모두 會意字이다.

더군다나 「指事」에 배열한 及, 美, 分 등과 같은 글자들은, 會意字에도 배열하고 있어서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3) 會意



鄭樵는 會意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象形과 指事는 文이며, 會意는 字이다. 文이 합해져서 字가 된다. 文에는 子와 母가 있는데, 母는 뜻을 나타내고, 子는 소리를 나타낸다. 子와 母 각각 하나가 모여 諧聲이 된다. 諧聲의 體중 그 하나는 뜻을 나타내고, 나머지 하나는 소리를 나타낸다. 두 개의 母가 합해지면 會意가 된다. 會意는 두 개의 體가 모두 뜻을 나타내는데, 합해져서 字를 이룬다. (會意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同母가 합하여진 것과 異母가 합하여진 것인데, 그것이 나타내는 뜻은 하나이다.(象形, 指事, 會意, 字也, 文合而成字. 文有子母, 母主義, 子主聲, 一子一母爲諧聲. 諧聲者, 一體主義, 一體主聲, 二母合爲會意. 會意者, 二體俱主義, 合而成字也. 其別有二, 有同母之合, 有異母之合, 其主意則一也.)

즉 「會意」의 造字法은 象形, 指事의 造字法에서 나온 또 다른 構形法으로, 會意는 이미 있는 獨體字를 조합하여, 또 다른 새로운 글자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이다.

鄭樵는 또 다른 合體字인 諧聲과 구별되는 會意字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즉 합체자인 文에는 子와 母가 있는데, 母와 子는 각각 뜻(義)과

소리(聲)를 나타내는데, 子와 母가 결합하면 諧聲이 되며, 母끼리 결합하면 會意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會意는 同母가 결합된 경우도 있으며, 異母가 결합된 경우도 있으나 이들 母는 모두 하나의 뜻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觀點은 모두 「比類合誼, 以見指撝」 라는 許慎의 觀點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許慎의 觀點을 이어 받았다고 보이는 鄭樵의 이러한 觀點은, 또 다시 후대의 文字學者들에게 영향을 끼쳐, 淸대의 段玉裁도 會意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술하였는데, 그의 견해는 鄭樵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會意라는 것은 합한 것이다. 두개의 體의 의미를 합한 것이다. 하나의 體로서는 그 의미를 나타내기가 힘들므로 반드시 두개의 體의 의미를 합쳐서 字를 만들어야 한다(會意者, 合也, 合二體之意也. 一體不足以見其義, 故必合二體之意以成字.)²⁹⁾

또한 鄭樵는 三體會意(續生)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 개의 母가 합하여 會意가 된다. 두 개의 母란 두 개의 體이다. 세 개의 體가 합하여 진 것은 보통 있는 것이 아니니, 따로 세운다. (二母之合爲會意, 二母者, 二體也, 有三體之合者, 非常道也, 故別之.)

淸代 王均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 세 글자의 뜻을 나란히 합하여 한 글자의 뜻을 이룬다.(合二字三字之義比成一字之義)

즉 會意字는 여러 개의 體가 모여 글자를 이루는 경우도 많다고 암시하고 있다.

아무튼 會意에 관한 鄭樵의 견해는 淸대의 문자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들은 鄭樵의 견해를 발전 또는 수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鄭樵는 會意 740字를 다시 「會意正生」과 「會意續生」으로 나누었다. 會意正生은 주로 의미를 나타내는 母가 둘이 모여 이루어진 글자들이며, 會意續生은 이들 母가 셋 이상이 모인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會意正生」는 곧 「二母之合」으로, 義는 있고 聲은 없는 것인데, 「𪚩, 𪚪, 田, 𪚫, 苗, 尖, 吹, 肘, 霍」 등이 이런 것들이다. 이러한

29) 段玉裁《說文解字注》

글자는 다시 「異母之合」과 「同母之合」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同母之合」에는 「𩺰, 𩺱, 𩺲, 𩺳」 등이 있고, 「異母之合」에는 「苗, 尖, 吹」 등이 있다.

(1) 正生

鄭樵는 三體會意의 설명에 있어서, 母가 둘이 모인 것을 회의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에 속한 글자들은 上篇에 社, 崇, 祝, 瑞, 班, 斑, 毒, 菟, 苗, 若, 尖, 𩺰=𩺱, 番, 悉, 犇, 告, 吹, 𩺲, 喜(悅=歡), 名, 咸, 各, 喆(今=吉古=嘉), 企, 整, 道, 御 등 452字와 下篇의 庫, 塵, 厘, 闖, 𩺳, 馭, 𩺴, 薦, 𩺵, 逸, 狺, 猷, 狻, 狺, 狺, 吠, 灰, 𩺶, 𩺷, 杰, 𩺸, 焚, 光, 黑(古=蔥 篆=黑), 炙, 赫, 奄, 爹 등 246字를 합하여 모두 698字이다.

(2) 續生

會意續生이란 바로 三體會意를 말하는 것인데, 母가 셋이 모이는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따로 구분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속하는 글자로는 後, 龠, 丞, 攸, 解, 箕, 或, 塵, 帚, 尉, 春, 鬯, 盥, 𩺹, 祭, 祝, 直, 封, 冠 등 42字이다.

4) 轉注

轉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은 분분하여 정확히 그 요지를 단정 지어 말할 수가 없으며, 鄭樵의 轉注說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비교적 복잡하다.

鄭樵는 轉注를 「建類主義」, 「建類主聲」, 「互體別聲」, 「互體別義」 등 4종류로 分類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類를 세우는 것은 母이고, 類를 따르는 것은 子이다. 母는 뜻을 나타내고 子는 소리를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母를 위주로 하여 그 子를 돌리는 것이다. 소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子를 위주로 하여 그 母를 돌리는 것이다.(立類爲母, 從類爲子. 母主義, 子主聲. 主義者, 是以母爲主而轉其子(建類主義), 主聲者, 是以子爲主而轉其母(建類主聲))

諧聲, 轉注는 모두 聲으로 구별된다. 聲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을 互體別聲이라 하고, 뜻이 다르고 聲이 다르지 않는 것을 互體別義라 한다.(諧聲, 轉注皆以聲別, 聲异而義异者, 曰互體別聲. 義异而聲不异者曰互體別義.)

이것으로 보아 鄭樵의 「轉注說」의 構形原理은 類, 聲 혹은 義를 세우는 것이다.

鄭樵는 四種類의 轉注類型을 造字範疇에 넣고, 한자의 類化現象이나 한자에서 동일한 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결합되는가와 같은 문제를 언급하였다.

즉 「建類主聲轉注」는 漢字의 類化現象을 말한 것이고, 「互體別義轉注」와 「互體別聲轉注」는 漢字의 組合方式의 問題를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相同한 漢字內部的 條件이 각기 다른 組成方式으로 말미암아 다른 글자가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漢字가 늘어날 때 發生하는 현상이다.

이것으로 鄭樵는 漢字의 發展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자는 動態的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轉注」로써 이러한 한자의 발전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鄭樵의 轉注說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建類主義轉注」說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 세 종류는 비평과 호평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서는 鄭樵의 가장 代表性이 있는 「建類主義轉注」를 통하여 그가 주장하는 轉注說의 대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鄭樵는 轉注와 諧聲은 密接한 관계가 있다고 여겼다. 轉注와 諧聲의 관계에 대한 研究는 南唐 徐鍇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轉注를 「물이 根源地를 떠나는 것과 같다(若水之出源)」고 하였다.

屬類들이 字를 이루고, 다시 偏旁이 되어 넓거나 가깝게 譬喩하므로 轉注이다. 人, 毛, 匕(音化)가 老가 된다. 壽, 耆, 耄 역시 老이다. 그러므로 老로써 注하고, 老로부터 뜻을 받으며, 서로 굴러서 注하니 轉注라고 한다. 뜻은 形聲과 類似하지만 다르다. 形聲의 江과 河는 같지 않으며, 灘과 濕은 各各 다르다. (그러나) 轉注의 考와 老는 실제로 같으며, 妙와 好는 차이가 없다. 이것이 그것들의 구분인 것이다.(屬類成字, 而復于偏旁訓博諭近譬, 故爲轉注. 人, 毛, 匕,(音化) 爲老, 壽, 耆, 耄亦老, 故以 '老'字注之, 受意于老, 轉相轉注, 故爲之轉注, 義近形聲而有異焉. 形聲江·河不同, 灘·濕各異, 轉注考·老實同, 妙·好无隔, 此其分也.)

이를 살펴보면 徐鍇는 轉注라는 글자와 類首라는 글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鄭樵는 徐鍇의 見解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두 사람은 모두 諧聲과 轉注의 관계가 매우 密接하다고 생각하였는데, 鄭樵도 「諧聲, 轉注一也. 諧聲別出爲轉注」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鄭樵 역시 “轉注가 諧聲에서 별도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同一한 組에 屬하는 轉注字의 부분은 반드시 類首字와 같으며, 각각의 轉注字의 의미는 반드시 類首字와 의미상 관련이 있다.

鄭樵가 徐鍇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즉 鄭樵는 “轉注字의 形符는 기존에 있는 글자, 즉 許慎이 확립하였지만 鄭樵가 줄인 部首의 ‘考’와 같은 合體字이지만, 諧聲字의 形符는 그가 建立한 276部の 部首字이다.”라고 생각한 반면, 徐鍇는 「轉注類首字」가 바로 部首字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徐鍇는 轉注字와 類首字는 同義詞이고, 의미는 差別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鄭樵는 다르게 생각하였다.

諧聲과 轉注는 같다. 그것을 부리면 諧聲이 되고, 자기를 부리면 轉注가 된다. 轉注라는 것은 그 큰 것을 기본으로 세우고 작은 것을 돌리는 것이며, 기본된 것을 기본으로 삼고 반쪽을 돌리는 것이다.(諧聲, 轉注, 一也. 役它爲諧聲, 役己爲轉注. 轉注也者, 正其大而轉其小者, 正其正而轉其偏者也)

즉 轉注의 類首字와 類屬字의 의미는 「大」와 「小」, 「正」과 「偏」 등의 차이와 같은 편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보면 鄭樵는 徐鍇에 비해 좀더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鄭樵는 轉注에는 類屬(의미 범주)을 確立하여 기본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이에 따르는 偏旁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음을 이룸으로써, 形符와 聲符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轉注字는 여전히 類首字의 意味範疇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예로 든 글자 중에는 聲符가 분명한 뜻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類屬字도 있고, 聲符가 뜻을 나타내는 역할이 없는 類屬字도 있다.

聲符가 분명히 뜻을 나타내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老」를 예로 들었다. 類首字 「老」는 「立類爲母」의 「母」인데, 이는 基本的인 意味範疇를 나타내고, 「耂, 考」 등의 글자는 「老」의 類屬字가 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老」字와 다른 偏旁이 結合되어 이루어진 글자들로, 이러한 類屬字의 기본적인 의미는 「老」라는 의미범주에 속하며, 이들의 구체적 의미는 새로 첨가된 聲符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考」의 聲符는 「丂」이고, 「耂」의 聲符는 「句」이므로, 구체적인 의미는 「丂」와 「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聲符가 명확히 뜻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履」를 예로 들었는데, 이전 상황과는 다르다. 즉 새로 增加된 聲符는 뜻을 나타내는 作

用이 없지만 類屬字의 의미는 모두 「履」의 의미 범주 속에 속해 있다.

따라서 建類主義轉注는 이미 있는 文字에 聲符를 加한 것이며, 「已有文字」는 전체적인 意味範疇를 나타내며, 增加된 聲符는 뜻을 兼할 수도 있고 音만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形體結構를 분석해보면, 이런 轉注字는 실제로는 모두 諧聲字가 된다. 當代의 文字學者인 殷寄明은 鄭樵의 轉注論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찬하였다.

(鄭樵說) 轉注는 形聲에서 별도로 나온 形式이다. 轉注의 最終 結果는 새로운 形聲字를 만드는 것이다. 轉注는 再生性和 多發性이라는 特徵을 가지고 있는 造字과정이다. ((鄭樵說) 轉注는 形聲의 '別出' 形式. 的確, 轉注의 最終 結果는 構制出一個新的 形聲字. 轉注作爲 造字過程, 具有 再生性和 多發性特點.)³⁰⁾

強調해야 할 점은 轉注의 構形法은 이미 있는 字形를 기초로 하여, 義類를 建立하는 것이다. 初文과 後에 생긴 글자의 의미는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形體結構에서도 聯關性이 많다. 轉注字는 「象形, 指事, 諧聲, 會意」 등 四書를 區別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概念으로, 初文이 孳乳하기 시작하여 글자를 만들어 낼 때에야 사용할 수 있는 造字方法이라 한다. 그러나 모든 漢字를 동일한 平面 위에 놓고 分析했을 때, 漢字의 形體結構는 단지 象形結構, 指事結構, 會意結構, 諧聲結構 등 4종류의 結局로만 분석할 수 있으며, 轉注結構와 假借結構는 同一한 平面에 存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形體結構를 보면, 轉注字는 실제로 모두 諧聲字라 할 수 있어서 쉽게 혼동되기 때문에, 鄭樵는 「諧聲」과 「轉注」를 비교함으로써 轉注의 特徵을 지적하였다.

그는 轉注에는 「立類」의 特徵이 있으며, 이것은 聲으로 類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뜻(義)으로 類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즉 「建類主義轉注」와 「互體別聲轉注」는 모두 뜻으로 類를 세우는 것(立義類)으로써 동일한 뜻의 범주에 속하는 반면 「建類主聲轉注」와 「互體別義」는 모두 소리(聲)로 類를 세우는 것으로 동일한 소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아래에서는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並生

· 建類主義轉注

30) 殷寄明《語源學概論》57p. 上海教育出版社, 2000년 3월 제1판

建類主義轉注는 뜻을 세우는 것이다. 즉 共通된 뜻의 範疇를 確立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建類主義轉注의 老에 속한 글자들은 모두 「老」의 의미와 有關하다. 이에 해당하는 글자는 총 50字이다.

老 (耆 考 耇 耄 耋 孝)
 履 (屨 屐 屣 屨 屨 屨 屨 屨 屨 屨)
 寢 (病 寐 寤 寤 寤 寤)

· 建類主義轉注

대부분의 글자를 가지고 말하면, 母는 뜻을 나타내고, 子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母를 생략하고 子로써 類를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建類主義轉注란, 鳳凰의 鳳에서 母는 鳥로 뜻을 나타내고, 子는 几(子)로 소리를 나타내는데, 鳳에서 義符(母)인 鳥를 생략하고, 오히려 音符(子)인 几(子)로 類를 세워 母를 돌려가며 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鳳, 凰), (弑, 二, 弑), (糶 糶) 등 총 20자이다.

· 互體別聲轉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本, 末, 朱」 등처럼 여러 글자의 結構부분은 같고 結合방법이 다른 것으로, 字義는 비록 「木」과 관계가 있지만 그 독음은 다 다르다. 이에 속하는 글자들은 杗(東, 杏), 本(禾, 朱), 易(明), 尖(奈), 啼(啻), 叨(召), 吟(吟), 眇(省), 裹(裸), 忉(忍), 愼(愼), 愀(愁), 愈(愀), 古(叶), 擘(擘), 鷓(鷓), 架(枷), 告(吽), 忡(忠), 墀(壁), 悱(悲), 愈(愉), 忘(忙), 隤(隤), 嵬(嵬) 등 254字가 있다.

· 互體別義轉注

互體別義轉注는 기본적으로 글자를 구성하는 구성성분이 같지만, 그 각각의 字義가 다르다. 그러나 오히려 그 讀音은 같은 것들이다. 이에 속하는 글자들은 旻(旻), 碁(期), 獬(獬) 등 48字가 있다.

따라서 轉注類에는 모두 372字가 수록되어 있다.

5) 諧聲

諧聲은 運用方法이 가장 많은 漢字의 構形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鄭樵

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諧聲은 다른 다섯 개의 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五書는 유궁하나 諧聲은 무궁하다. 五書는 뜻을 높이나 諧聲은 소리를 높인다. 세상에는 뜻은 유한하지만, 소리는 무한하다. 미루어 보아 나중에 말하고, 의논하여 나중에 움직이는 것이 뜻이다. 빠르게 하지 않아도 빠르며, 가지 않아도 이르는 것이 소리이다. 만든 사람을 聖이라 하며, 전한 사람을 明하다고 한다. 五書는 만드는 것이며, 諧聲은 전하는 것이다. 해성이라는 것은 소리에 기인하여 글자를 만드는 것으로,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생략하고 그 대표자와 그에 속한 글자 수들만 적도록 한다.(諧聲與五書同出, 五書有窮, 諧聲無窮, 五書尙義, 諧聲尙聲, 天下有有窮之義, 而有無窮之聲. 擬之而後言, 議之而後動者, 義也. 不疾而速, 不行而至者, 聲也. 作者之謂聖, 述者之謂明, 五書作者也, 諧聲述者也. 諧聲者, 觸聲成字, 不可勝舉, 今略, 但引類以記其目.)

象形, 指事를 비롯한 기타의 書들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글자 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리를 나타내는 諧聲의 경우는 세상의 온갖 소리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諧聲에 속하는 글자는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으므로, 그 대표음을 나타내는 類를 정하고 그와 같은 음을 나타내는 글자 수들만 기록한 것이다.

이 類는 대체로 部首와 類似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許慎이 세운 540부수에서 일부(264)를 제거하여 276類를 세웠으며, 이에 속하는 글자는 諧聲 正生の 21,341字이다.

鄭樵는 會意부분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文이 합해져서 字가 된다. 文에는 子와 母가 있는데, 母는 뜻을 나타내고, 子는 소리를 나타낸다. 하나의 子와 하나의 母가 諧聲이니, 諧聲은 하나는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소리를 나타낸다.(文合而成字, 文有子母, 母主義, 子主聲, 一子一母爲諧聲, 諧聲者一體主義, 一體主聲.)

이 설명에 따른다면 해성에 속하는 글자들은 원래 있는 형체를 합하여 造字할 때, 讀音이 서로 같은 字를 聲符로 採用하여 완성된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즉 文이 합쳐져서 완성된 字의 일부는 소리를 나타내며, 일부는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諧聲에 대해 許慎은 「以事爲名, 取譬相成」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宋代 戴同에게로 계승되었다.

(諧聲은) 그 類에 근거하고, 그 소리로써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因其類而諧之以其聲)³¹⁾

이러한 것은 다시 鄭樵에게로 이어졌으며, 鄭樵는 許慎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켰다. 먼저 의식적으로 形聲을 諧聲이라고 바꾸어 표현하였다.

그리고 形符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許慎과는 달랐다. 許慎은 六書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事」라는 글자를 세 번 언급하였는데, 이 「事」에 대한 의미 해석을 두고 後人들은 이견이 많았다.

「事」가 客觀事物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글자를 만들 때 필요한 語辭가 지칭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鄭樵는 子母說을 이용해서 諧聲의 事는 「類屬意義」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왜냐하면, 諧聲은 「一體主義」이며, 「一體主聲」이기 때문이다. 「母主義」라는 것은 바로 形符는 「母」에서부터 충당되며, 또 「비슷한 것을 세우면 母가 된다.(立類爲母)」는 것이다. 즉 母가 가리키는 것은 비슷한 類를 세워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類屬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諧聲正生에 속한 글자들의 形符는 바로 類屬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許慎의 「以事爲名, 取譬相成」의 견해보다 훨씬 明確하다고 할 수 있다.

鄭樵는 또 540部首를 276類로 줄이면서, 이러한 部類는 의미범주를 나타내며,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諧聲字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즉 形符와 聲符가 결합되어 하나는 뜻을 나타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諧聲字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段玉裁 역시 이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劉歆과 班固는 그것을 象聲이라고 하였다. 形聲은 바로 象聲이다. 그 글자의 일부는 義를 나타내고, 나머지 일부는 聲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뜻을 취한 것이며,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은 소리를 取한 것이다. 의미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말을 기다리지 않는다. 聲의 近似함을 얻은 것이므로, 象聲이라 하며, 形聲이라 하는 것이다. 鄭衆은 이를 諧聲이라고 하였다. 諧라는 것은 詒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劉歆, 班固謂之象聲. 形聲則象聲也, 其字半主義, 半主聲. 半主義者, 取其義而形之. 半主聲者, 取其聲而形之. 不言義者, 不待言也. 得聲之近似, 故曰象聲, 曰形聲, 鄭衆作諧聲. 諧, 詒, 非其意.)³²⁾

31) 戴同《六書故·六書通解》

32) 段玉裁《說文解字注》755쪽

段玉裁와 鄭樵는 形符와 聲符의 技能이 확실히 구별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形符는 의미를 나타내고 聲符는 讀音을 나타낸다.

또한 鄭樵는 「諧聲」은 소리로 인해 글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속한 글자들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며, 가장 많은 글자들을 만들 수 있는 造字法이라고 하였다.

(1) 正生

鄭樵는 諧聲正生에 속한 諧聲字의 聲符는 뜻을 명확히 나타내는 역할은 없으며 주로 聲音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諧聲이 聲과 形이 합쳐진 것이라면, 그 소리(聲)가 순전히 소리만을 나타내는 것은 正生이라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글자들은 총 21,341자이므로 그 글자들을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 一, 二, 示, 玉, 珏, 气, 赤, 土, 艸, 艸, 八, 采, 大, 牛, 口, 品, 走, 止, 是, 亢, 辵, 彳, 廴, 行, 齒, 牙, 壺, 足, 龠, 冊, 舌, 谷, 句, 黑, 言, 音, 卅, 昇, 白, 革, 炙. 鬲, 爪, 門, 又, 支, 立, 聿, 臣, 殳, 寸, 皮, 支, 卜, 心 등 276字的 대표자를 제시하였다.

(2) 變生



鄭樵는 聲과 形으로 이루어진 諧聲 중에서, 뜻도 함께 나타내는 소리(聲中有義)를 「諧聲變生」으로 분류하였다. 즉 소리와 함께 의미도 나타내는 것은 變生으로 분류하고, 이를 子母同聲, 母主聲, 主聲不主義, 子母互爲聲, 聲兼意, 三體諧聲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三體諧聲 이외의 다섯 종류는 모두 聲符와 의미에 관련된 것들이다.

· 子母同聲

원래 聲를 나타내는 子뿐만 아니라 의미를 나타내는 母 역시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로, 嚳, 牯, 隸, 熒, 鄧, 疑, 孳, 料 등 317字가 이에 속한다.

· 母主聲

母가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로, 瞿, 筑, 牆, 森, 聃, 屎, 覺, 料, 綴 등 21字가 이에 속한다.

· 主聲不主義

假借字는 本字와 聲音상의 관계에 있어서, 같거나 비슷할 뿐이지, 의미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鄭樵가 말한 「無義之假借」는 허신이 말한 假借와 동일한 것이며, 또한 宋代 戴同의 관점과도 유사한 것이다.

소위 가차라는 것은 뜻은 연관되지 않고, 단지 소리만 빌린 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所謂假借者, 義無所因, 特借聲, 然後謂之.)³³⁾

戴同은 또 「습, 長」은 假借의 범주에 넣을 수 없으며, 「豆」字의 사용 같은 것이 바로 假借라고 하였다. 「豆」는 본래 곡식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 콩이라는 뜻의 「豆」로 가차되었다.

그러나 《說文解字》에서는 누차 가차현상을 引伸이라고 곡해하였다. 즉 本字와 假借字는 의미상의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來」의 本義는 보리이며, 왕래하다의 「來」로 가차되었는데, 許慎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來, 周대에 받은 바의 상서로운 보리로, 大麥이다. ...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가다의 來가 되었다.(來, 周所受瑞麥, 來麩...天所來也, 故爲行來之來.)

韋, 서로 등지다이다. 짐승 가죽의 다름가죽은 구부러지거나 어그러진 것을 묶어 서로 등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름가죽으로 가차되었다.(相背也...獸皮之韋可以束枉戾相韋背, 故借爲皮韋.)

「韋」는 「違」의 初文이며, 本義는 떠나다라는 뜻인데, 만약 「皮韋(가죽)」의 뜻으로 쓰인다면 이것이 가차라고 하였는데, 이런 許慎의 영향을 받아 鄭樵는 假借를 「有義之假借」와 「無義之假借」로 분류한 것이다.

裘錫圭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적이 있다.

청대 이전의 문자학자들 중 절대다수는 引伸을 假借 속에 포함시켰었다. 설사 詞義引伸과 借字表音이라는 이 현상의 다른 성질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이렇게 했었다.(清代以前的文字學者大多數是把引伸包括在假借里的。即使是比較明確認識到詞義引伸和借字表音這兩種現象的不同性質的人, 多數也是這麼做的。)³⁴⁾

33) 戴同《六書故·六書通解》

34) 裘錫圭《文字學概要》, 제103쪽

鄭樵는 대체로 許慎의 설을 인정하였으며, 많은 곳에서 창의적인 견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細節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함부로 헛된 말을 하여 초심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語氣詞와 12辰의 글자의 처리에 있어 드러난다. 즉 그는 語氣詞와 12辰을 나타내는 글자는 모두 다른 글자를 빌려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가차의 범주에 넣었다.

鄭樵는 「語辭之借」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글자라는 것은 그림이다. 대체로 형체나 실상이 있는 것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글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체도 없고 실상도 없는 것은 그릴 수가 없으므로 그 글자도 없다. 여기서가 이런 것이다. 여기서의 쓰임은 비록 많지만 독립적으로 뜻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가차를 따른다.(書者, 象也, 凡有形有象者, 則可以爲象, 故有其書, 無形無象者, 則不可爲象, 故無其書, 語辭是也. 語辭之用雖多, 而主義不立, 并從假借.)³⁵⁾

그러나 語氣詞에 대한 戴同의 논술도 결코 그보다 낮지 않다.

대체로 虛하여 象을 가리킬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가차이다. 사람의 어기나 억양이 가장 虛한 것이다. 그러나 無形과 事는 象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가차가 8,90%가 된다.(凡虛而不可指象者多假借, 人之語氣抑揚最虛, 而無形與事可以指象, 故假借者十八九)³⁶⁾

또 「十二辰之借」에 대해 鄭樵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日辰과 같은 것들은 모두 뜻이 비어 있어서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리에 근거하여 빌린 것들이다.(日辰之類皆虛意難象, 故因音而借焉.)³⁷⁾

이러한 판단은 모두 매우 궁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鄭樵는 「天干地支」의 해석을 陰陽五行과 억지로 연관시켰다. 鄭樵는 이러한 글자들의 本義를 찾아내어, 이것들은 假借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는 허신의 학설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을 존중했는데, 이것은 매우 뛰어난 점이다. 그러나 鄭樵는 구체적인 글자를 배열할 때, 조건의 한계로 말미암아 자신의 관점이나 원칙을 하나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가지를 덧붙이

35) 《六書略·語辭之借》

36) 《六書故·六書通釋》

37) 《六書略·十二辰之借》

거나 초심을 바꾸었다. 예를 들면, 鄭樵는 또 일부 어기사에 本義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체로 어기사 중 오직 哉, 乎, 兮, 于, 只, 乃 등에만 본의가 있으며, 다른 것은 가차와 함께 한다. 語辭類 등은 말이 없어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리에 따라 빌린 것이다.(凡語辭類惟哉, 乎, 兮, 于, 只, 乃有義, 他并假借. 以語辭之類, 虛言難象, 故因音而借焉.)³⁸⁾

「乎」와 「于」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說文解字》에서는 이 두 글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乎, 말의 나머지이다. 兮을 따르며, 소리를 그린 것이다. 위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다.(語之余也, 從兮象聲, 上越揚之形.)

于, 於이다. 퍼지는 것을 그린 것이다. 丁을 따르고 一을 따른다. 一은 그 기운이 평평한 것이다.(於也, 象所之舒者. 從丁, 從一. 一者, 其氣平也.)

즉 許慎은 「乎」와 「于」의 本義와 初形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乎」와 「于」는 어기사로 쓰이기 때문에 假借類에 속하는 것이지만, 鄭樵는 象形側生에 배열함으로써 本義와 本形을 부여하였다. 즉 鄭樵는 이 두 글자의 本義는 모두 「氣」를 나타낸 것이며, 氣의 모종의 형태를 그린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乎」와 「于」는 어조사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 演變의 결과이다.

楊樹達은 《積微居小學述林》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것을 고찰해 보면, 《尚書》와 옛날의 金文에서 乎자는 어말어기사로 쓰인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갑골문과 金文에서 乎자는 모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으로 乎는 본래 諄의 초문이었으며, 후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말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言旁을 더한 글자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考之《尚書》及古金文, 乎字絕少作語末詞者, 而甲文, 金文乎字皆用如之...以此知乎本諄之初文, 因後人久借用爲語末之詞, 乃有後起加言旁之字.)³⁹⁾

38) 《六書略·語辭之借》

39) 楊樹達, 《積微居小學述林》, 上海中華書局, 1983년. 제60쪽

그리고 李考定은 《甲骨文考釋》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契文에서는 丂과 一을 따르지 않았다. 그 字形이 어떻게 해서 于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契文不從丂,一, 其字形何以作于, 無義可說.)⁴⁰⁾

라고 한 것을 통하여, 이것들의 本義는 고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正不生

鄭樵는 假借도 일종의 造字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鄭樵는 「泉」字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泉은 본래 錢이고 錢貨의 모습을 본떴다. 九府圓法이 施行된 以後로 밖은 둥그런 원에 안은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실제 錢의 모습이다. 假借에서 빌려 샘플의 泉이 되어 字가 생겨났다. 이 글자가 만들어진 까닭은 모두 그 뜻을 취했기 때문이다.(泉, 本錢字, 象錢貨之形. 自九府圓法行, 然後外圓內方, 此實錢也, 借爲泉水之泉. 所以生字, 皆以取義.)⁴¹⁾

사실 鄭樵는 泉의 本義와 假借의 義를 반대로 이해했다. 「泉」의 本義는 당연히 「泉水」가 되어야하고, 假借義가 바로 「錢貨」가 되어야 한다. 그는 한자가 引伸하는 重要한 方法은 바로 假借이고, 假借 역시 「生字」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假借는 「依音寄義」하여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鄭樵는 六書의 象形, 指事, 會意, 諧聲 등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形體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는 해당 글자 이외의 다른 글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假借」의 경우는 달랐다. 가차의 글자를 이루는 것은 形體內部 각각의 조합이 필요 없다.音が 비슷하기만 하면 形을 빌려서 자신의 義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가차는 원래 있는 한자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字形을 만들지는 않으며, 원래 글자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抽象의인 事物은 그것을 본뜨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의인 事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그려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말을 전달하고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서 假借字가 생겨난 것이다.

40) 《漢語大字典》제2쪽 인용

41) 《六書略·山川之形》

假借字가 나타내는 詞의 의미가 너무 많거나, 漢字를 造字할 때 表詞기능이 過重하면 이 때 新字가 생겨날 수 있다. 이것으로 因해 假借는 「不造字的造字法」이라 하는 것이다.

鄭樵는 假借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六書を 밝히기 힘든 것은 假借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六書는 전해지지 않았으며, 다만 說文만이 전해진다. 그러나 許慎이 象形과 諧聲 두 책을 얻어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에 會意를 끌어들이게 되었다. 다시 假借로 인해 어지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얻어진 것들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학자들의 어려움은 바로 뜻이 있는 의미(有義之義)를 아는 것에 있지, 뜻이 없는 의미(無義之義)를 알지 못하는 것에 있지는 않다. 가차라는 것은 바로 뜻이 없는 의미이다. 가차라는 것은 본래 그 글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인하여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가차에 대해 말하자면, 뜻이 있는 가차도 있고, 뜻이 없는 가차도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구별할 수밖에 없다. 同音借義, 協音借義, 因義借音, 因借而借는 뜻이 있는 가차이며, 借同音不借義, 借協音不借義, 語辭之借, 五音之借, 三詩之借, 十日之借, 十二辰之借, 方言之借는 뜻이 없는 가차이다. 옛 학자들이 서적에 머리를 파묻고 망망대해에 조각배 하나를 띄어놓고 목적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지낸 것은 모두가차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다. 아아! 육서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면 六經은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리키는 것처럼 쉬워질 것이며, 假借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면 六書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리키는 것처럼 쉬워질 것이다.(六書之難明者, 爲假借之難明也. 六書無傳, 惟籍說文, 然許氏惟得象形, 諧聲二書以成書, 牽於會意, 復爲假借所擾, 故所得者亦不能守焉. 學者之患, 在於識有義之義, 而不識無義之義. 假借者, 無義之義也. 假借者, 本非已有, 因他所授, 故於已爲無義. 然就假借而言之, 有有義之假借, 有無義之假借, 不可不別也. 曰同音借義, 曰協音借義, 曰因義借音, 曰因借而借, 此爲有義之假借, 曰借同音不借義, 曰借協音不借義, 曰語辭之借, 曰五音之借, 曰三詩之借, 曰十日之借, 曰十二辰之借, 曰方言之借, 此爲無義之假借. 先儒所以顛沛淪於經籍之中, 如汎一葦於溟渤, 靡所底止, 皆爲假借之所魅也. 嗚呼! 六書明則六經如指諸掌, 假借明則六書如指諸掌.)

鄭樵의 설명에 따르면, 假借는 본래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의 다른 글자를 빌린 것이라 하였으며, 그것은 성격상 正生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正不生이라 표현하였고, 이들 가차를 다시 託生과 反生으로 구분하였다.

(2) 託生

託生은 기존에 있는 글자들의 음에 의거하여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를 만들어 내는 것들로, 有義假借와 無義假借가 있다.

① 有義假借

· 同音借義

음이 같아서 뜻을 빌린 글자들로, 아래의 예와 같이, 初, 基, 始, 本, 小, 永, 狀, 物 등 35字가 이에 속한다.

初, 裁衣之始, 而爲凡物之始.
基, 築土之本, 而爲凡物之本.
始, 女子之初, 而爲凡物之.
初, 本木之基, 而爲凡物之基.
小, 水之微也, 凡微者皆言小.
永, 水之長也, 凡長者皆言永.
牛, 爲牝牡, 而牝牡通於畜獸.
佳, 爲雌雄, 而雌雄通於鳥雀.
狀, 本犬之形, 而爲凡之狀.
物, 本牛之事, 而爲凡事之物.
馬, 言駕, 凡驅乘皆曰駕.
牛, 言牧, 凡豢養皆曰牧.
木, 曰落, 而爲墮落之落.
雨, 曰零, 而爲飄零之零.
英, 本英華之英, 而爲飾物之英.
苦, 本苦良之苦, 而爲滋味之苦.
蔓, 本藤蔓之蔓, 而爲蔓衍之蔓.
爻, 乃交疏之爻, 而爲爻象之爻希.
乃, 疏巾之希, 而爲希少之希.
柞, 本柞木之柞, 而爲芟柞之柞.
鑿, 本金鑿之鑿, 而爲疏鑿之鑿.
旋, 反旆也, 而爲回旋之旋.
戲, 兵交也, 而爲嬉戲之戲.
平, 氣之平也, 而爲均平之平.
封, 爵土之封也, 而爲封殖之封.
戚, 斧也, 而爲親戚之戚.

塵, 土也, 而爲塵積之塵.
 賢, 多財也, 而爲賢良之賢.
 妃, 嘉偶也, 而爲候妃之妃.
 純, 絲也, 而爲純全之純.
 茸, 草也, 而爲龙茸之茸.
 珣, 夷玉也, 而玉器亦謂之珣.
 蘆, 葦也, 而薺根亦謂之蘆.
 饒, 食之餘也, 而爲饒衍之饒.
 約, 絲之束也, 而爲儉約之約.

· 協音借義

음이 비슷하여 뜻을 빌린 경우로, 대체로 동일한 글자이지만, 아래의 예와 같이, 성조가 달라지면 그 뜻도 달라지는 中(가운데, 맞추다), 上(위, 위로 향하다), 樂(음악, 즐기다, 풍요롭다) 등 208字가 이에 속한다.

旁之爲旁. 去聲.
 中之爲中. 去聲.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上之爲上. 時掌切.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下之爲下. 却稼切.
 分之爲分. 去聲.
 少之爲少. 去聲.
 歸之爲歸. 音饋.
 遺之爲遺. 樵季切. 與也.
 御之爲御, 音迓.
 爲禦. 音禦.
 行之爲行, 下孟切. 爲行. 戶浪切. 「子路行行.」
 數色主切. 之爲數, 尸故切. 爲數. 色角切.
 趨之爲趨, 七六切. 爲趨. 側九切. 春秋傳: 「賓將趨.」 鄭康成讀.
 咽之爲咽, 音燕. 爲咽. 以結切. 哽咽.
 蕃音藩樊也, 之爲蕃. 音煩.

· 因義借音

뜻으로 인해 음을 빌린 경우로, 아래의 예와 같이, 琢(본래 '琢玉'의 뜻에서 大圭不琢의 琢으로 가차됨), 惡(악함이 있다는 뜻을 빌려서 싫어하다는

뜻으로 가차됨), 內(안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이다’라는 뜻으로 가차됨) 등 25字가 이에 속한다.

琢, 本琢玉之琢, 而爲大圭不琢之琢. 音篆.
 輅, 本車輅之輅, 而爲狂狡 輅鄭人之輅. 音逐.
 以, 有惡人聲也, 故可惡. 烏路切. 以其內也故可內. 音納.
 佚, 夷質切. 縱也, 而爲佚宕之佚. 音迭.
 伯, 長也, 而爲伯王之伯. 音霸.
 幬, 帳也, 而爲 覆幬之幬. 春秋傳: 「如天之無不幬.」
 幕, 帷也, 以爲幕覆之幕. 音覓.
 蓼, 本 葒蓼之蓼, 而爲 「蓼 彼蕭斯」 之蓼 力竹切.
 鎔, 本金鎔之鎔, 音淳. 而爲 「公矛沃鎔」 之鎔. 從對切.
 術, 邑道也, 以其所行, 故爲鄉術之術. 音遂.
 嬴, 嬴秦姓也, 以其所居, 故爲嬴水之嬴. 音爲.
 嘯, 嘯呼之嘯, 而爲指嘯之嘯. 音叱.
 跛, 跛躄之跛, 彼我切. 而爲跛倚之跛. 彼義切. 禮: 「立無跛」
 副, 晋逼切. 剖也, 而爲副貳之副.
 承, 奉也, 而爲賻承之承. 禮: 「賻賻承承」.
 甄, 吉然切. 本甄陶之甄, 而爲聲甄之甄. 音震. 禮: 「薄聲甄.」
 封, 本封土之封, 而爲封棺之封. 音窆. 禮: 「縣棺而封.」
 齊, 本齊一之齊, 而爲齊莊 莊之齊. 俱皆切.
 巡, 本巡行之巡, 而爲相巡之巡. 音緣. 禮: 「始終相巡.」
 推, 本推與之推, 而爲推換之推. 土回切.
 搏, 本搏攝之搏, 而爲搏束之搏. 除轉切. 禮: 「十羽爲搏.」
 獻, 本獻亨之獻, 而爲獻尊之獻. 素何切.
 橈, 本音橈, 以其義通於橋, 故又音橋.

· 因借而借

본래의 의미에서 가차된 후 다시 한 번 가차된 경우를 말한다. 즉 難을 예로 들면, 원래는 새의 뜻에서, 소리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뜻의 難으로 가차되었으며, 다시 이 「어렵다」라는 뜻에서 「힘난하다」라는 의미로 가차되는 경우를 말한다. 來는 본래 「보리」라는 뜻이었는데, 소리로 인해 「왕래하다」의 의미로 가차되었으며, 다시 이 「왕래하다」라는 의미에서 「오는 사람을 맞아 수고를 위로하다(勞來)」라는 의미로 가차되었다. 이외에도 아래의 예와 같이, 爲, 射, 食 등 총 43字가 이에 해당된다.

難, 鳥也, 因音借爲 艱難之難; 因艱難之難, 借爲險難之難. 去聲.
 爲, 母猴也, 因音借爲作爲之爲; 因作爲之爲, 借爲相爲之爲. 去聲.
 射, 本射 御之射, 因義借爲發射之射; 食亦切.
 因, 發射之音借爲無射之射. 音亦, 律名.
 斃, 本厭斃敗之斃, 羊益切. 因義借爲斃敗之斃; 答路切. 書: 「彝倫攸斃.」 因斃敗之音借爲斃 壑之斃. 音徒. 書: 「惟其斃壑茨.」
 亨, 音亨. 本饗也, 因義借爲亨飪之亨; 晋庚切.
 因, 亨飪之音借爲亨嘉之亨.
 來, 本麥也, 因音借爲往來之來; 因往來之義借爲勞來之來.
 矜, 本矛柄也, 因音借爲矜憐之矜; 因矜憐之義借爲矜寡之矜.
 適, 往也, 因音借爲適責之適; 責音謫詩: 「勿矛禍適.」 因適責之音借爲適匹之適. 音敵. 禮: 「大夫討同國適者.」
 參, 七南切. 間廁也, 因義借爲 參差之參; 楚金切, 因參差之音借爲參伐之參. 所今切.

② 無義假借

· 借同音不借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음이 같아서 빌린 글자이지만 그 의미는 빌리지 않은 경우의 글자들로, 대체로 동일한 글자임에도 뜻이 다른 글자들로, 아래의 예와 같이, 汝, 爾, 示, 業, 牢 등 45자가 이에 속한다.

汝, 水也, 而爲爾汝之汝.
 爾, 花盛也, 詩: 「彼爾維何? 維常之華.」 而爲汝爾之爾.
 示, 旗也, 而爲神示之示.
 業, 大版也, 而爲事業之業.
 牢, 牛圈也, 而爲牢固之牢.
 畜, 田畜也, 而爲畜聚之畜.
 它, 蛇屬也, 而爲它人之它.
 蚤, 虱類也, 而爲蚤夜之蚤.
 爲, 母猴也, 而爲作爲之爲.
 率, 鳥畢也, 而爲率循之率.
 來, 麥也, 而爲來往之來.
 易, 蟲屬也, 而爲變易之易.
 能, 態類也, 而爲賢能之能.

黽, 竈也. 而爲黽勉之黽.
 翁, 毛也, 而爲翁老之翁.
 題, 頷也, 而爲題命之題.
 薄, 本林薄之薄, 而爲涼薄之薄.
 蒹, 本蒹茂之蒹, 而爲蒹祿之蒹.
 登, 頭也, 而爲升登之登.
 干, 盾也, 而爲干犯之干.
 革, 皮也, 而爲更革之革.
 鞠, 革囊也, 而爲鞠養之鞠.
 難, 禽也, 而爲難易之難.
 雍, 禽也, 而爲雍和之雍.
 溱, 水也, 而爲「室家溱溱」之溱.
 棣, 移也, 而爲「威儀棣棣」之棣.
 丁, 當也, 而爲「椽之丁丁」之丁.
 薨, 卒也, 而爲「度之薨薨」之薨.
 胥, 蟹醢也, 而爲相胥之胥.
 方, 並舟也, 而爲方所之方.
 節, 竹目也, 而爲節操之節.
 管, 竹筍也, 而爲主管之管.
 韋, 相違也, 而爲皮革之韋.
 貿, 相易也, 而爲貿賈之貿. 禮: 「貿貿而來。」
 休, 憩也, 而爲休美之休.
 財, 貨也, 而爲財成之材.
 易: 「財成天地之道。」 齋財之齋, 而爲齋咨之齋.
 易: 「齋咨涕洟。」 時辰之時, 而爲時是之時.
 晉, 先明也, 而爲晉國之晉.
 夢, 寐也, 而爲雲夢之夢.
 風, 虫之風, 而爲吹噓之風. 字
 養, 之字, 而爲文字之字.
 勿, 州里之旗也, 而爲勿不之勿.
 出, 花英也, 而爲出入之出.
 久, 距也, 而爲久遠之久. 凡此之類, 并同音不借義者也.

· 借協音不借義

비슷한 음만 빌리고 본 글자의 의미는 빌리지 않은 경우로, 아래의 예와 같이, 荷, 茹, 鮮, 燕 등 133字가 이에 속한다.

荷之爲荷. 胡可切. 負也.

鮮之爲鮮. 上聲.

燕之爲燕. 平聲.

旁之爲旁. 補彭切. 詩. 駟介旁旁.

莫音暮之爲莫, 模各切. 爲莫. 音陌 春秋傳. 「德正應和曰莫」

· 語辭之借

대체로 어조사 혹은 허사로 쓰이는 글자들을 말한다. 아래의 예와 같이, 之, 者, 於, 云, 邪, 每, 而 등 40字가 이에 해당된다.

之, 菌也.

者, 陰也.

於, 烏也.

云, 雲也.

邪, 琅邪之地.

每, 原田之兒.

惟, 思也.

唯, 應也.

而, 面毛也.

夫, 音扶. 本丈夫也.

害, 本災害也.

斯, 析也.

然, 燎也.

蓋, 艸履也.

其, 箕也.

豈, 鎧也.

矣, 箭鏃也.

員, 物數也. 音云. 詩: 聊樂我員.

己, 几也.

盍, 履也.

爲, 母猴也.

居, 蹲也.



諸, 辨也. 詩: 日居月諸.
 與, 授也.
 爾, 華繁. 詩: 彼爾維何 維常之華.
 耳, 人耳也.
 哉, 言之間也.
 乎, 氣也.
 兮, 氣也.
 于, 氣也.
 只, 氣也.
 乃, 氣也.
 思, 慮也.
 施, 施也. 詩: 舍旃舍旃.
 承, 奉也 音懲. 楚人語辭.

· 五音之借

음을 나타내는 아래의 宮, 商, 角, 徵, 羽 등 5字이다.


 宮, 本官室之官.
 商, 本商度之商.
 角, 本頭角之角.
 徵, 本徵 召之徵.
 羽, 本毛之羽.

· 三詩之借

아래의 風, 雅, 頌 3字를 말한다.

風, 本風蟲之蟲.
 雅, 本烏鴉之鴉.
 頌, 本顏容之容.

· 十日之借

아래의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등 10字를 말한다.

甲, 本戈甲.
 乙, 本魚腸.
 丙, 本魚尾.
 丁, 本尾.
 戊, 本武也.
 己, 本几也.
 庚, 鬲也.
 辛, 被罪也.
 壬, 懷妊也.
 癸, 艸木實也.

· 十二辰之借

아래의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등 12字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그것을 그려낼 수 없다. 따라서 소리에 근거하여 빌린 것들이다.

子, 人之子也.
 丑, 手之械也.
 寅, 臙也.
 卯, 也.
 辰, 未詳本義.
 巳, 蛇屬也.
 午, 未詳本義.
 未, 本之滋也.
 甲, 持簡也.
 酉, 也.
 戌, 與戊戚同意.
 亥, 豕屬也.



· 方言之借

음이나 뜻으로 인해서 빌린 것이 아니라 방언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므로 그 글자는 바뀌지 않는다. 아래의 예와 같이, 鯛, 啓 등 9字이다.

鯛之爲鯛. 音胃. 鯛陽 縣名.

歎之爲歎. 上音觸, 下徂感切. 昌歎, 卽昌蒲也.

覃之爲覃. 上如字, 下音刻. 詩: 以我覃耜.

羹之爲羹. 上更字, 下音郎. 楚地名.

咎之爲咎. 上如字, 下音阜. 阜陶字亦如此

穀之爲𪔐. 奴走切. 楚人謂乳 𪔐 .

枸之爲枸. 上必茅切, 下音杼. 鼓枸也.

敦之爲敦, 禮 : 每敦一几. 爲敦. 音凋, 敦弓.

(3) 反生

· 雙音並義不爲假借

雙音并義不爲假借이라는 것은 원래 음이 두 개이며, 각각 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가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글자들은 아래의 예와 같이 陶, 駟 등 30字가 이에 해당된다.

陶也, 陶冶之陶. 陶也. 阜陶之陶.

杷也, 補訝切. 枋也, 杷也.

榮也, 永兵切. 桐也, 桐也. 榮也. 音營. 屋榮, LIBRARY

枸也, 音苟. 枸杞. 枸也. 音矩. 枳枸.

楛, 矩林切. 禮: 射甲革楛質. 楛也. 徐甚切. 桑實.

校也, 古孝切. 木囚也. 校也. 戶教切. 木闌也.

被也, 部委切. 寢衣也. 被也. 普義切. 春秋傳: 鞞豹裘.

III章. 《六書略》의 成果와 誤謬

1. 成果

《六書略》은 《說文解字》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제에 맞는 태도로 許愼의 학설을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고 할 것이다.

1) 理論確立 方面

鄭樵가 文字學史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六書이론과 六書실천에 있어서의 창조적인 성과이다. 그의 六書學은 六朝이래로 저조한 漢字理論研究의 상황을 변화시켜, 宋元이후의 文字學研究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六書略》의 六書에 대한 提唱과 연구는 아래 몇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

(1) 六書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鄭樵는 특히 「六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小學에서의 六書의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처음으로 「六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許愼은 《說文解字·序》에서 文字가 經學研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는 문자를 연구하는 목적은 통용되는 문자를 한데 모으고, 역대 詞義에 관한 研究成果를 누적함으로써 후학들이 글자를 익히고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체로 문자라는 것은 經藝의 근본이며, 왕도정치 시작이다. 전대 사람들은 이를 후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며,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옛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기고, 천하의 가장 심오한 도리를 알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 라고 한 것이다.(蓋文字者, 經藝之本, 王政之始, 前人所以垂後, 後人所以識古. 故曰本立而道生, 知天下之至噴而不可亂也).

鄭樵는 이러한 「文字說」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六書를 알아야만 小學을 진흥시킬 수가 있고, 이로써 經書를 잘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六書」를 經學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鄭樵는 《六書序》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술이 분명치 않은 것은 小學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학이 부진한 것은 육서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인의 도는 오직 육경에 담겨있다. 육경을 지을 때는 오직 文言에 힘썼다. 文言의 근본은 육서에 있으니, 육서에 대해 분명치 않으니 어찌 경전에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겠는가?(經術之不明, 由小學之不振; 小學之不振, 由六書之無傳. 聖人之道, 惟借六經; 六經之作, 惟務文言; 文言之本, 在于六書. 六書不分, 何以見經義之有?)

즉 鄭樵는 「經術不明」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사람들이 六書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六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2) 象形·諧聲·假借의 地位를 確立하였다.

鄭樵는 또 象形, 諧聲, 假借가 六書에서 특유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강조하였다.

· 象形の 地位確立



鄭樵는 象形은 六書의 처음이며, 象形字는 모든 한자체계의 기초를 만들고, 指事, 會意, 諧聲, 假借 등은 이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象形字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許慎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蒼頡가 처음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대체로 依類하여 모습을 그린 것이므로 이것을 文이라 하였다. 후에 형체와 소리가 더해졌는데, 이를 字라고 하였다.(蒼頡之初作書, 盖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

南唐의 徐鍇에 이르면 조금 발전적인 면을 보인다.

육서 중에서 상형은 蒼頡가 본래 만든 것이다. 천지 만물의 모습을 살핀 것이므로 文이라 하며, 따라서 文은 적다. 후에 서로 합쳐지거나 늘어나서 字가 되었는데, 形聲과 會意가 이러한 것들이다.(六書之中, 象形者, 蒼頡本所起. 觀察天地萬物之形, 謂之文, 故文少. 後相配合孳益爲字, 則形聲, 會意者是也.)⁴²⁾

이들에 비해 鄭樵는 象形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象形과 기타 「各書」와의 관계도 나타내었다.

육서 중에서 상형이 근본이다. 形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은 事에 속하게 하였다. 事가 가리킬 수 없으면 意에 속하게 하였다. 意가 모여지지 않으면 諧聲에 넣었다. 소리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다섯 개가 부족한 다음에야 가차가 생겨났다.(六書也者, 象形爲本, 形不可象, 則屬諸事, 事不可指, 則屬諸意, 意不可會, 則屬諧聲, 聲則無不諧矣, 五不足而後假借生焉.)

이 말의 의미는, 한자는 表意性이 아주 강한 도형부호 체계 위에서 발전 변화한 것이라는 것이며, 그 기본이 곧 象形인 것을 이르는 말이다.

· 諧聲의 地位確立

諧聲의 중요 지위에 대해서 鄭樵는 諧聲은 기타 五書에 비해 두 가지의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聲音方面的 優勢이다.

諧聲은 다른 다섯 개의 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五書는 유궁하나 諧聲은 무궁하다. 五書는 뜻을 높이나 諧聲은 소리를 높인다. 세상에는 뜻은 유한하지만, 소리는 무한하다. 미루어 보아 나중에 말하고, 의논하여 나중에 움직이는 것이 뜻이다. 빠르게 하지 않아도 빠르며, 가지 않아도 이르는 것이 소리이다. 만든 사람을 聖이라 하며, 전하는 사람은 明이라 한다. 五書는 作者이며, 諧聲은 述者이다.(諧聲與五書同出, 五書有窮, 諧聲無窮; 五書尙義, 諧聲尙聲. 天下有有窮之義, 而有無窮之聲. 擬之而後言, 議之而後動者, 義也. 不疾而速, 不行而至者, 聲也. 作者之謂聖, 述者之謂明, 五書作者也, 諧聲, 述者也.)

둘째 產生方面的 優勢이다.

해성은 소리에 닿아 글자를 이루는 것으로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다.(諧聲者, 觸聲成字, 不可勝舉.)⁴³⁾

· 假借의 地位確立

42) 南唐 徐鍇《說文解字》解字系傳》권1, 上部「上」字條下, 上海中華書局, 1987년. 10월 제1판

43) 《六書略·諧聲第五》

鄭樵는 또 假借도 六書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假借」를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六書와 經義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假借」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육서가 어려운 것은 가차가 어렵기 때문이다.(六書之難明者, 爲假借之難明也.)

옛 학자들이 서적에 머리를 파묻고 망망대해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놓고 목적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지낸 것은 모두 가차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다. 아아, 육서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면 六經은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가리키는 것처럼 쉬워질 것이며, 가차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면 육서는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가리키는 것처럼 쉬워질 것이다.(先儒所以顛沛淪於經籍之中, 如泛一葦於溟渤, 靡所底止. 皆爲假借之所也. 嗚呼, 六書明則六經如指諸掌, 假借明則六書如指諸掌.)

(3) 六書 相互間의 內在關係를 確立하였다

許慎은 이 4書에 대해, 각각 8글자로 설명을 하고, 2자로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그들의 윤곽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특징이나 상호관계 및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鄭樵에 이르러서 象形, 指事, 會意, 諧聲 등의 대비를 통해 그들의 심층적인 특징과 내부관계를 나타내었다.

비록 晉 衛恒의 《四體書勢》, 唐 賈公彥의 《周禮》疏에도 이러한 작업을 한 것이 있었으나, 이들은 許慎의 설을 다시 한 번 말한 것뿐이었고, 그 후의 南唐 徐鍇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사와 상형은 그 뜻이 하나이다. 사물에 실제적인 형상에 그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象形이 되는데, 山川과 같은 것들은 모두 物이다. 지사는 物事가 없어 그릴 수 없는 것을 지사라 한다. 形은 형체가 있어 그릴 수 있는 것이며, 事는 일이 있어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象形과 指事는 대체로 같지만 조금은 다르다.(凡指事, 象形, 義一也. 物之實形有可象者則爲象形, 山川之類皆是物也. 指事者, 謂物事之虛無不可圖畫, 謂之指事. 形則有形可象, 事則有事可指…象形指事, 大同而小異.)⁴⁴⁾

徐鍇는 이상과 같이 象形과 指事의 異同을 구별하기도 하였지만, 이 역시 許慎의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4) 南唐 徐鍇 《說文解字》解字系傳》권1, 上部「上」字條下, 上海中華書局, 1987년 10월 제1판

그러나 鄭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四書を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四書を 융합하고 이를 철저히 이해한 다음에 각 書의 특이한 특징들을 지적하였다고 할 수 있다.

指事는 象形과 비슷하다. 그러나 指事는 事이며, 象形은 形이다. 指事는 會意와 비슷하다. 그러나 指事는 文이고 會意는 字이다. 獨體면 文이 되고, 合體이면 字가 된다. 形이 있어 그것을 그릴 수 있으면 象形이 되고, 形이 없어 그릴 수 없으나 그 일을 가리키면 指事가 된다. (指事類乎象形, 指事, 事也, 象形, 形也. 指事類乎會意, 指事, 文也, 指事, 字也. 獨體爲文, 合體爲字. 形可象者曰象形, 非形不可象者指其事曰指事.)⁴⁵⁾

象形과 指事는 文이며, 會意는 字이다. 文이 합해져서 字가 된다. 文에는 子와 母가 있는데, 母는 뜻을 나타내며, 子는 소리를 나타낸다. 子와 母 각각 하나가 모여 諧聲이 된다. 諧聲의 體중 그 하나는 뜻을 나타내고, 나머지 하나는 소리를 나타낸다. 두 개의 母가 합해지면 會意가 된다. 會意는 두 개의 體가 모두 뜻을 나타내는데, 합해져서 字를 이룬다.(象形, 指事, 文也; 會意, 字也. 文合而成字. 文有子母, 母主義, 子主聲. 一子一母爲諧聲, 諧聲者, 一體主意, 一體主聲. 二母合爲會意. 會意者, 二體俱主義, 合而成字也.)⁴⁶⁾

諧聲은 다른 다섯 개의 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五書는 유궁하나 諧聲은 무궁하다. 五書는 뜻을 높이나 諧聲은 소리를 높인다. 세상에는 뜻은 유한하지만, 소리는 무한하다. …諧聲은 소리에 기인하여 글자를 만드는 것으로,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諧聲與 五書同出, 五書有窮, 諧聲無窮, 五書尙義, 諧聲尙聲, 天下有有窮之義, 而有無窮之聲…諧聲者, 觸聲成字, 不可勝舉.)⁴⁷⁾

鄭樵의 이런 생각은, 清代에 《說文解字》條例를 연구한 사람들 중 가장 유명한 段玉裁와 王筠의 說文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段玉裁의 견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形聲이 指事, 象形과 다른 점은 指事와 象形은 獨體이나, 形聲은 合體이다. 形聲이 會意와 다른 점은, 會意는 合體하여 뜻을 나타내지만, 形聲은 合體하여 소리를 나타낸다는 점이다.((形聲)別于指事, 象形者, 指事, 象形獨體, 形聲合體. 其別于會意者, 會意合體主意, 形聲合體主聲.)⁴⁸⁾

45) 《六書略·指事第二》

46) 《六書略·會意第三》

47) 《六書略·諧聲第五》

象形, 指事, 會意, 諧聲, 假借 등은 각각 독립된 글이지만, 鄭樵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이들이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출현하게 된 동기와, 서로 보충하고 제약하는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許慎의 六書說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六書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이들 간의 내재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다.

班固는 《漢書藝文志》에서 六書의 名目を 「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라고 분류하고, 六書의 순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許慎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을 뿐이다.

蒼頡이 처음 문자를 창조할 때, 대개 사물의 종류에 따라 그 모양을 본떠서 그렸으므로, 이를 文이라 하였다. 그 후에 形과 聲이 서로 더해지니, 이를 字라고 한다.(蒼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

이처럼 許慎은 文字產生의 先後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다.

그러다가 徐鍇에 이르러 비로소 육서의 차례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다.

실을 수 있는 形體는 없으나, 형세는 볼 수 있는 것을 指事라 한다. 형체도 형세도 없으나, 뜻을 취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會意가 된다. 본뜰 수 있는 형체도 없으며, 가리킬 수 있는 형세도 없고, 모일 수 있는 뜻도 없으므로 形聲이 된다. 形聲은 六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되므로, 후대에 늘어나 많이 불어나게 되었다. 五書가 부족하여 그것들을 假借하였다.(無形可載, 有勢可見, 則爲指事; 無形無勢, 取義垂訓, 故作會意; 無形可象, 無勢可指, 無義可會, 故作形聲., (形聲)六書之中最爲淺末, 故後代滋益, 多附焉; 五不足則假借之.)⁴⁹⁾

그러나 徐鍇의 이러한 언급은 비록 先聲을 올렸다고는 할 수 있지만, 諧聲을 輕視함으로써 그것의 主流的地位를 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鄭樵는 이러한 徐鍇의 학설을 기초로 하여, 그가 부족한 것을 바르게 하였으며, 빠진 부분은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그 전후의 논리관계를 구현하였다.

形을 본뜰 수 없는 것은 事에 속한다. 事를 가리킬 수 없는 것은 뜻(意)에 속한다. 뜻(意)이 모여지지 않는 것은 소리(聲)에 속한다. 소리는 조화되지 않는 것이 없다. 五書가 부족한 이후에 假借가 생겨났다.(形不可象則屬諸

48) 段玉裁《說文解字》解字注》, 제755쪽

49) 南唐徐鍇《說文解字解字系傳》권39, 中華書局, 1987년 10월 제1판

事, 事不可指則屬諸意, 意不可會則屬諸聲, 聲則無不諧矣. 五不足而後假借生焉.)

라고 하여, 전후의 논리관계를 구현하였다.

2) 六書實踐(各字의 分析) 方面

《六書略》은 形訓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形訓」은 訓詁學에서 가장 먼저 보인 訓詁방법이며, 《說文解字》는 이 방면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어 形訓의 전범이 되었지만, 許慎은 때때로 글자의 初形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漢字의 本義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문자학자인 楊樹達은 《說文解字》의 「形義分析」이 부족한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시의 字形은 의미(義)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그의 분명한 증거이다. 字形이 틀리게 되자 그 의미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즉 形 때문에 달라져 마침내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의미가 본래의 모습과 달라서, 形이 꼭 맞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의미가 없어져 공연히 그 形만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허황된 말이 생겨나 大道가 어그러지는 것이다.(原始之字形, 其於義必相秘合, 此其顯證也. 及字形差誤, 義不可求, 則因形而違而遂失其意, 或義失本初, 形難吻合, 則因義失而空具其形, 於是妄說起而大道乖也.)⁵⁰⁾

이렇듯이 당시의 시대적 한계로 말미암아 《說文解字》가 「形義分析」을 잘못된 것을, 金石이 발굴되어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문자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金文을 이용하여 許慎의 설을 보충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게 되었다.

금문을 자세히 연구하면 허신의 설을 보충할 수가 있다. 혹은 그 자형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설명하는 의미를 규정할 수도 있어서, 洵長의 師法을 근본으로 하면 蒼頡이 글자를 만들 때의 本源으로 돌아갈 수 있다. (精究金文, 補苴許說, 或訂其字形, 或糾其說義, 本洵長之師法, 復蒼頡之本源.)

50) 楊樹達, 《中國文字學概要·文字形義學》제9-10쪽, 上海古籍出版社, 1988년 9월.

鼎鐘은 殷周시대에 주조된 것으로 秦漢보다 훨씬 이전의 시기였다. 탁본은 손으로 베껴 쓰는 것보다 나으며, 절대 잘못되는 경우도 없다. 그러므로 허신의 책에 혹시라도 잘못된 설이 있다 해도 그것을 옳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說文解字》에 有字는 從又從月라 하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訓하였는데, 이 설은 잘못되었다. 金文의 有字는 從又持肉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有字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鼎鐘鑄造於殷周之世, 遠在秦漢以前, 摹拓勝於傳鈔, 絕無訛誤之病, 故許書偶有誤說, 斟校可以了然. 《說文解字》有字從又從月, 訓爲不宜有, 此說誤也. 金文有字從又持肉, 則有字之義躍然矣.)

위와 같이 銅器가 대량으로 출토되어 문자학 연구자들에게 비교적 충분한 고문자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鄭樵가 許慎보다 독창적일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이 鄭樵 자신이 金石과 圖譜에 조예가 깊어 許慎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문자를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許慎의 訓釋을 묵수하지 않고 대담하게 새로운 견해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鄭樵가 얻은 성과를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甲骨文과 金文에 부합된다.

冊, 다름가죽으로 대나무를 엮어 책을 만들었다.(以韋編竹爲書)《六書略》

冊, 제후가 왕께 나아가 받은 부명이다. 그 패찰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으며, 가운데 이 둘을 잇는 것을 그린 것이다.(符命也. 諸侯進受於王也. 象其札一長一短, 中有二編之形.)《說文解字》

甲骨文과 金文에서는 「冊」字는 두개의 세로선과 횡으로 향해있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세로선은 竹簡을 나타내고 옆으로 향해있는 곡선은 竹簡을 冊으로 묶는 가죽 줄을 나타내는 것이며, 의미는 簡冊이었다가, 후에 특별히 황제의 조서를 나타내었다. 許慎은 「冊」을 符命의 의미로 생각하였으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引伸義이다.

그러나 鄭樵가 해석한 것은 本義로, 이것은 明代 徐師曾이 《文體明辯·冊》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와 같다.

옛날 冊書는 신하에게 내리는 것일 뿐이다(古者冊書, 施之臣下而已.)

元, 「시작이다(始也)」《說文解字》

元, 「사람의 머리이다(人頭也)」《六書略》

「元」의 옛 字形은 옆으로 서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甲骨文에서는 書刻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혹은 두개의 橫으로 표시하였다. 그래서 許慎이 말한 것은 引伸義이며, 鄭樵는 本義를 말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孟子》의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용사는 그 머리를 잃는 것을 잊지 않는다(勇士不忘喪其元)

鼓, 활을 활집에 넣는 것이므로 攴을 따른다. 垂飾과 鼓는 같은 뜻이다 (於弓弣則曰從 攴, 垂飾與鼓同意) 《說文解字》

鼓, 豆, 支에서 왔다. 손으로 그것을 치려고 하는 것을 그렸다. 내 생각에 攴는 土力切인 것 같다(從豆 豆, 支, 象其手擊之也. 臣按從攴, 土力切.)《六書略》

鄭樵는 분명 허신의 의미를 오해한 것 같다. 왜냐하면 「支」는 垂飾이 아니라, 한 손으로 북 채를 잡고서 북을 치려고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壺」(악기 이름 주)는 「鼓」를 나타내는데, 그 것의 중간에 있는 것은 원형의 북면이며, 위는 장식물이고, 아래는 鼓座이다.

𠄎, 옛날에는 戟字였다(於古爲戟字)《六書略》

𠄎, 따르지 않다는 뜻이다. 干을 따랐으며 아래는 中이다(不順也, 從干下中).《說文解字》

𠄎, 옛날의 戟자이며, 막대기를 가진 병사이다. 干字와 同體이며, 막대기가 두개이면 𠄎이고, 하나이면 戈이다. 隸書에서는 順字와 거스르는 뜻으로 가차되었다.(𠄎, 古戟字, 有枝兵也, 與干字同體, 雙枝爲𠄎, 單枝爲戈. 隸借爲逆順字.)《字彙·中部》

이를 보면 許慎이 말한 것은 假借義이며, 鄭樵가 말한 것은 本義이다.

帝, 살피다라는 뜻이며,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다.(諦也, 王天下之號也)《說文解字》

帝, 꽃받침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象華蒂之形)《六書略》

후세의 吳大澂, 王國維, 王力 등은 甲骨文에 근거하여 모두 帝가 《六書略》의 설명과 같이 「꽃받침」을 나타내는 「蒂」의 本字라고 하였다.

(2) 許慎의 《說文解字》보다 사실과 가깝다

不, 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 빙빙 돌며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鳥飛上翔不下來也)《說文解字》

不, 꽃의 꽃받침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象花萼蒂之形)《六書略》

「不」은 「胚」의 本來字이다. 甲骨文에서 「不」字의 橫劃은 땅을 표시하는 것이며, 아래의 옆으로 나있는 선은 씨앗이 발아할 때 먼저 땅 아래로 성장하는 胚根을 나타낸다. 許慎의 설이 틀렸으며, 鄭樵의 설이 사실에 가깝다.

庶, 집 아래에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屋下衆也.)《說文解字》

庶, 부엌이다. 막다이다. 广과 芘에서 왔다. 芘은 바로 光字이다. 빛이 집으로 인해 막히는 것을 말한다. 또 份注切로 읽기도 한다.(廚也, 遏也, 從广從芘, 芘, 卽光字, 謂光爲广所蔽也, 又份注切)《六書略》

于省됨은 《甲骨文釋林》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甲骨文‘庶’字는 火石을 따른다. 石는 또한 聲이 되는 會意兼聲字이다. 또 한 ‘煮’의 本來字이다. …‘庶’의 본의는 달구어진 돌로 삶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인의 실제 생활에 근거하여, 뜻을 본뜨고 소리에 의지하여 만들어진 글자이다. 그러나 옛 문헌에서는 항상 ‘庶’를 ‘衆庶’의 ‘庶’로 빌려 쓰기 때문에 또 별도로 ‘煮’를 만들어 ‘庶’를 대신하였다. 그래서 ‘庶’의 本義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甲骨文‘庶’字是從火石, 石亦聲的會意兼聲字, 也卽‘煮’的之本字…‘庶’之本義乃以爲燃石而煮 是根據古人實際生活而象意依聲以造字的. 但因古籍中每借‘庶’爲‘衆庶’之‘庶’, 又別制‘煮’以代‘庶’, ‘庶’之本義遂湮沒無聞.)⁵¹⁾

위의 于省됨의 考釋에 따라 검증해보면 許慎이 말한 것은 假借義이지, 本義는 아니고, 반면 鄭樵는 形을 잘못 보기는 했으나, 釋義는 本義에 가까운 편이다.

宇, 쌓아둔 물건을 분별하는 것이다.(辨積物也)《說文解字》

宇, 당연히 병풍사이이다.(當屏間也)《六書略》

51) 《漢語大字典》제 372쪽 재인용

「字」의 옛 字形은 櫛, 柜의 象形初文으로 ‘모으다’라는 뜻으로 引伸되었는데, 許慎이 말한 것은 당연히 引伸義이다. 그러나 《爾雅·釋宮室》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문과 창문의 사이를 字라고 한다(門窓之間謂之字)⁵²⁾

이것은 대체로 鄭樵가 말한 「當屏間」과 의미가 같은 것이다

庚, 서방이다. 가을에 만물에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것을 그린 것이다. 庚은 己다음이며, 사람의 옆구리를 그렸다.(西方, 象秋時萬物庚庚有實也. 庚承己, 象人脅.)《說文解字》

庚, 술의 일종으로 발이 역시 세 개이다(鬲之類也, 亦三足.)《六書略》

郭沫若是 《甲骨文字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갑골문 庚의 형을 살펴보면 당연히 귀가 있고 흔들리는 악기이다. 聲類로써 그것을 연구해보면 당연히 징(鉦)이 된다.((甲文庚)觀其形制, 當是有耳可搖之樂器, 以聲類求之當即是鉦.)⁵³⁾

이에 따르면 허신의 설은 牽強附會한 것이며, 鄭樵의 해석이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였다

鱻, 새로 잡은 물고기가 싱싱하다이다. 세 개의 魚를 따랐으며, 魚로 변하지는 않는다(新魚精也從三魚, 不變魚)《說文解字》

鱻,, 요즘 사람들은 작은 물고기를 鱻이라 하는데, 물고기가 많음을 따랐다(今人以小魚爲鱻, 從魚之多也).《六書略》

이 경우는 鱻은 원래 싱싱한 생선을 뜻했으나 당시 사람들은 작은 물고기를 鱻이라 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匕, 比와 함께 서술된다. 人을 뒤집은 것을 따랐다. 匕는 또한 比로 밥을 먹으므로 일명 柶(수저)라고도 한다.(相與比敍也. 從反人, 匕亦所以用比取

52) 《漢語大字典》제 382쪽 재인용

53) 郭沫若, 《甲骨文字研究》, 北京科學出版社, 1962년, 제10쪽

飯, 一名糶)《說文解字》

匕, 必履切이며, 작은 칼이다.(必履切. 小刀也)《六書略》

許慎은 두개의 의미항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同比」 즉 「병렬, 비교」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고대의 밥을 먹는 기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鄭樵는 이에 「작은 칼이다.(小刀也)」라고 하여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였다.

(4) 陰陽五行說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많은 字義의 해석에 있어서, 許慎은 분명히 음양오행설의 관점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鄭樵는 字形에서 한자의 본의를 해석한 경우가 훨씬 많다. 鄭樵의 일부 本義에 대한 설에 있어서는 그다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글자의 본의를 찾으려고 노력하여, 허신의 관점을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칭찬할 만하다.

玉을 《說文解字》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玉, 「돌의 아름다움에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 윤이 나는 것은 온화한 仁의 덕이다. 한가운데 빨심의 무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中義를 아는 덕이라 할 수 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오직 지혜만을 들으려는 덕이라 할 수 있다. 굽히지 않고 꺾이는 것은 용기의 덕이다. 날카롭고 곧아 재주를 보이지 않는 것은 潔의 덕이다. 옥 세 개가 연결된 것을 본뜬 것이며, |은 그것을 꿰뚫는 것이다.(石之美有五德, 潤澤以溫仁之方也. 臙理自外可以知中義之方也. 其聲舒揚, 專聞智之方也. 不撓而折, 勇之方也. 銳廉而不技, 潔之方也. 象三玉之連, |其貫也.)《說文解字》

그러나 鄭樵는 다음과 같은 李陽冰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玉, 옥을 꿰뚫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象貫玉之形)《六書略》

이처럼 鄭樵는 字形으로 분석하였다.

또 「一」을 《說文解字》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一, 오직 최초의 태고이다. 도는 一에서 서며, 분화되어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변하여 만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一에 속하는 것들은 元, 天, 丕, 吏를 낳았다. (惟初太始, 道立於一, 造分天地, 化成萬物, 故於一之類則生元, 生天, 生丕, 生吏)《說文解字》

許慎은 이와 같이 字形과 관계없이 설명하였지만, 鄭樵는 이를 반박하였다.

一, 그러나 元은 上을 따르고, 丕는 地를, 吏는 又을 따르는 것으로, 모두 一이 아니다. 다만 天은 一을 따랐다.(然元從上, 丕從地, 吏從又, 皆非一也, 惟天從一)《六書略》

鄭樵는 「一」이 數目を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하고, 각기 다른 字形에서 는 서로 다른 대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였다.

一, 一은 수이다. 또 땅의 모습을 본뜬 것이기도 하고, 사물을 꿰뚫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도 하다(一, 數也, 又象地之形, 又象貫物之狀.)⁵⁴⁾⁵⁵⁾《六書略》

따라서 이렇게 「一」이라는 필획을 갖는 글자들은 許慎이 말한 것처럼 「一」에서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

(5) 本義와 假借義를 구분하였다

鄭樵는 日辰, 天干地支를 나타내는 글자들은 모두 다른 글자를 빌린 것이며, 가차된 글자에는 모두 本義가 있으므로, 이런 글자들의 本義를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字形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甲은 본래 戈甲이고 乙은 본래 생선의 내장이며, 丙은 본래 생선의 꼬리이고, 丁은 본래 蠶의 꼬리이며, 戊는 본래 武이다. 己는 본래 幾이고, 庚은 鬲(숯)이다. 辛은 죄를 뒤집어 쓴 것이고, 壬은 임신하다이다. 癸은 본래 나무의 열매이다.(甲本戈甲, 乙本魚腸, 丙本魚尾, 丁本蠶尾, 戊本武也, 己本幾也, 庚鬲也, 辛被罪也, 壬懷妊也. 癸本木實也.)⁵⁶⁾

그는 虛詞도 假借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之, 버섯(菌)이다. 者는 陰이다. 於는 까마귀(烏)이다. 云은 구름(雲)이다. (之, 菌也. 者, 陰也. 於, 烏也. 云, 雲也)⁵⁷⁾

55) 《六書略·論一二之所生》

56) 《六書略·十日之借》

57) 《六書略·語辭之借》

(6) 許慎의 字形分析을 正正하였다

牢, 막다이다. 소나 말을 키우는 우리이다. 牛을 따랐으며, 冬이 생략되었
다. 그 사방이 둘러싸인 것을 취하였다.(牢, 閑, 養牛馬圈也. 從牛, 冬省, 取
其四周轄也.)《說文解字》

牢, 이것은 우리에서 키우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說文解字》에서 牛를
따르고 冬이 생략된 것이며, 그 사방이 둘러싸인 것을 취했다는 설은 잘못
된 것이다.(此象圈養之狀. 《說文解字》謂從牛冬省, 取其四市之說謬矣.)《六
書略》

牢의 本義는 가축을 기르는 우리이며, 字形은 소 한 마리가 우리에 갇혀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鄭樵의 견해가 정확한 것이다.

家, 살다이다. 宀을 따르고, 豕가 생략된 소리를 따랐다.(家, 居也, 從宀
省聲.) 《說文解字》

家, 《說文解字》에서 豕省을 따랐다고 하였는데, 이는 틀린 것 같다. 家
는 牢와 같은 뜻으로, 家는 돼지가 사는 곳이다. 후인들이 이것을 室家의 家
로 이용하였다(《說文解字》從豕省, 疑非也. 家與牢同意, 家, 豕居, 後人用爲
室家之家.)《六書略》



勞, 力과 熒의 생략형태를 따랐다.(從力從熒省)《說文解字》

勞,《說文解字》는 번잡하다. 從力從熒省이라 하여 등불로 문을 사른다고
하였다. 힘을 쓰는 것은 勞이다. 내 생각에는 從力從營省으로, 힘을 써서 경
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說文解字》劇也, 從力從熒省, 熒火燒門, 用
力者勞. 臣按從力從營省, 言用力經營也.)《六書略》

鄭樵의 설이 분명 허신의 설보다 합리적이다. 후에 段玉裁의 《說文解字
注》에서도 이 설을 따랐다.

丕, 一과 丌의 소리를 따랐다(從一丌聲)《說文解字》

丕, 꽃이 꽃받침을 퍼지 않고 땅위에 펼쳐지는 모습을 그렸다(丕, 象華之
不萼敷披於地上之形)《六書略》

鄭樵는 「丕」를 象形으로 편입시켰는데 鄭樵의 설이 더 합리적이다.

要, 臼와 交의 생략된 소리를 따랐다(從臼交生聲)《說文解字》

要, 《說文解字》에서는 몸의 가운데라고 하였다. 사람이 스스로 臼의 모
습을 원하는 것을 그렸다(《說文解字》, 身中也. 象人要自臼之形.)《六書略

>

鄭樵는 「要」도 象形으로 편입시켰는데 許慎의 설보다 더 합리적이다.

杏, 木과 可의 생략된 소리를 따랐다(從木可省聲)《說文解字》

杏, 可를 따랐으나, 소리는 따르지 않았다. 口와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를 따랐다.(從可亦不得聲, 從口木實之可食者)《六書略》

鄭樵는 「杏」을 會意에 넣었는데 이 역시 許慎의 설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帝, 二와 束의 소리를 따랐다(從二束聲)《說文解字》

帝, 꽃받침의 모습을 그렸다(象華蒂之形)《六書略》

鄭樵는 「帝」를 象形으로 분류하였는데,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7) 字形變化를 반영하였다

어떤 것은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글자를 구성하는 부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경우도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飢, 굶주림이다. 食과 幾의 聲을 따랐다(飢, 餓也, 從食幾聲)《說文解字》

그러나 鄭樵는 「飢」이라 하여 會意로 분류하였다. 《玉篇·食部》에도 「飢古文飢」라고 하였다.

또 《說文解字》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衄, 코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다. 血과 丑의 소리를 따랐다.(衄, 鼻出血也, 從血丑聲)《說文解字》

그러나 鄭樵는 「衄」을 會意로 분류하였다. 《集韻·屋韻》에서도 「衄, 或從鼻」라고 하였다.

字體에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云, 옛날의 雲字로 그 모습을 그린 것이다. 후대인들이 雨를 더했으므로,

云은 云回의 云으로 되었다.(古雲字, 象其形, 後人加雨, 故以云爲云回之云.)
《六書略》

이와 鄭樵는 의식적으로 문자가 역사적인 사용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고 字形변화의 源流를 탐구하여, 字形과 訓詁를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8) 俗字까지 포함하였다

이밖에도, 鄭樵는 글자를 수집하면서도 《說文解字》의 「지금 전문으로 기록하고, 옛 주문과 합한다.(今敍篆文, 合以古籀)」는 옛 규칙을 고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凹」 「凸」 「𠂔」 「傘」 등 당시에 통행되는 글자들을 《說文解字》의 字頭와 마찬가지로 대했다.

일부의 글자에 대해 大徐는 俗體의 글자라고 비난하였으나, 鄭樵는 이것을 正體와 똑같이 보았다.

「尖」을 예로 들어 보면, 大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금은 속자로 尖으로 쓰고 있으나 옳은 일이 아니다(今俗作尖, 非是)

그러나 鄭樵는 이러한 속자까지도 수록하였다.

이러한 것은 鄭樵가 한자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글자와 새로운 의미를 모두 흡수하여, 과학적인 漢字發展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9) 《說文解字》의 모호한 聲訓을 개선하였다

聲訓은 「音訓」이라고도 하는데, 독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로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被釋字와 釋字는 음과 뜻이 같거나 유사하다.

聲訓은 先秦때부터 시작되었으나, 과학적으로 성숙되어 전면적으로 운용된 것은 漢代였다.

聲訓法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形을 근거로 本義를 고증하는 방법의 한계를 깨고, 실용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訓詁의 방법을 개척하였다.

許慎이 《說文解字》을 편찬했을 때에도, 聲訓의 과학적 가치를 흡수하여,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鄭樵는 여전히 許慎이 사용한 聲訓을 비교적 신중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그 전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象形字의 해석에 있어서, 鄭樵는 形體分析에 치중하여, 許慎의 聲訓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田, 밭에 경계가 그려진 것의 형태를 본뜬 것이다.(象田有所畫疆畛之形)
《六書略》

田, 줄(열)이다.(陣也)《說文解字》

戶, 문짝이 둘이면 門이며, 하나면 戶이다. 《說文解字》의 「보호하다이다, 반쪽 문을 戶라 한다」에서 의미를 취하였다.(闔爲門, 偏爲戶, 取義于《說文解字》: 護也, 半門曰戶.) 《六書略》

木, 위는 가지를 본뜬 것이며, 아래는 뿌리를 본뜬 것이다. 《說文解字》에서 「木, 무릅쓰다이다. 땅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이며, 東方이다. 中에서 왔으며, 아래는 그 뿌리를 그린 것이다.」에서 의미를 취하였다.(上象枝干, 下象根莖, 取義于《說文解字》: 「木, 冒也. 冒地而生, 東方之行, 從中. 下象其根.」) 《六書略》

鄭樵는 形訓을 중시 여겨 許慎의 성훈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聲訓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으며, 창조적으로 성훈을 사용하여, 辨證의 文字觀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羿, 날개로 일으키는 바람이며, 또한 옛 제후이다. 일설에는 궁술의 스승이라고 한다. 羽에서 왔으며, 羿의 소리이다.(羽之羿風, 亦古諸侯也. 一曰射師, 從羽羿聲.)《說文解字》

羿, 내 생각으로는 羿에서 왔으며, 堅의 음이다. 활을 쏘아 견고한 것을 깨뜨리는 것이다. 날개달린 화살에서 왔으며, 반드시 羽를 가지면 나라의 임금을 곤궁하게 할 수 있다.(臣按從羿, 音堅, 射, 所以破堅也, 從羽箭, 必以羽有窮國君.) 《六書略》

「羿」의 의미가 「堅」인지에 대해서는 고증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의 해석에 따르면, 羿는 고대의 궁술 스승이라는 의미와 부합한다. 이밖에도 그는 天干地支와 虛詞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부분은 聲訓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그 本義를 말한 다음에 假借義를 말하였으니 비교적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誤認

1) 理論確立 方面

鄭樵는 문자의 해석에 있어서 許慎의 견해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실제적으로 한자의 形音義를 분석하기는 했지만 誤謬는 없을 수 없다.

(1) 字體에 統一된 基準이 없다

許慎은 「今敍篆文, 合以籀文」이라 하여, 字頭는 통일적으로 篆書를 사용했으며, 그 후에 古文이나 籀文을 덧붙였다.

반면 鄭樵는 「隸古定」의 書定형식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통일적이지 않고, 때로는 隸書가 변한 후의 簡字形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먼저 鄭樵가 「隸定」의 書定형식을 이용한 예를 들면, 春은 篆文으로는 「𣎵」인데, 鄭樵는 「春」을 사용하였다. 「庶」는 篆文에서는 「火」를 따르고, 결코 「灬」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隸書에서는 변하여 간략히 줄여서 「灬」이 되었는데, 鄭樵는 그것을 따라 「庶」를 이용하였다.

또 어떤 경우는 간략히 된 필획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霍의 古字形은 「𠂔」으로, 隸書가 변해서 「霍」이 되었는데, 鄭樵는 簡體인 「霍」을 사용하였다.

일부는 古字體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野에 대해 鄭樵는 古字體인 「埜」를 사용하였는데, 이 글자의 篆文이 「野」이다. 蓂는 鄭樵는 「蓂」로 썼는데, 「蓂」는 說文의 籀文이다. 「哲」을 鄭樵는 「喆」로 썼는데, 篆文이 「哲」이다.

이와 같이 때로는 隸書를 사용하고 때로는 簡體나 古字體를 사용함으로써 글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었다.

(2) 잘못된 解釋이 있다

鄭樵는 許慎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해설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정확해졌다는 사실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꽤 많은 부분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泉, 본래 錢字이며, 돈과 화폐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本錢字, 象錢貨之形.)

金文의 「泉」은 물이 산 바위에서 나오는 것을 그린 것으로 바로 源泉의 의미이다.

示, 음이 祈이며, 깃발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示, 音祈, 象旗旂之形.)

甲骨文에서 「示」는 원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돌로 만든 탁자로 「丁」의 모습이다. 후에 「示」로 변하여, 음이 祈가 되었고, 「祇」와 같으며, 土祇(토지신)을 대표하였다. 鄭樵의 해석은 形을 잘못 본 것으로, 결코 「깃발의 모습(旗旂之形)」을 본뜬 것이 아니다.

天, 一과 大가 天이 되었다. 하늘이 드리워 보여주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一大爲天, 象天垂示之形.)

「天」은 鄭樵의 설명과는 달리, 許慎은 音訓法을 사용하였다.

꼭대기이다. 매우 높아서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一대를 따른다(顛也. 至高無上, 從一大)

따라서 許慎이 더욱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射」는 許慎의 설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화살이 몸에서 발사되어 멀리서 과녁을 맞추는 것이다.(弓弩發於身, 而中於遠也.)

그러나 戴侗은 《六書故·古器銘識》에 의거하여 「射」字의 바른 해석을 고찰해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甲骨·金文의 「射」와 나타내는 의미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射가 身을 따랐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古器銘識의 고찰한 연후에 그 글자의 바름을 얻을 수 있었다. 대개 왼쪽의 弓矢이 잘못되어 身이 되었고, 오른쪽의 手가 잘못되어 寸이 된 것이다. 문자가 잘못되어 집요하게 따져 말하는 것은 대체로 모두 이와 같다.(射之從身絕無義, 考之古器銘識, 然後得其字之正. 蓋左文之弓矢訛而爲身, 右偏之手訛而爲寸也. 文字之轉訛而鑿爲說者, 凡蓋若此矣.)⁵⁸⁾

어떤 것은 《說文解字》와 《六書略》의 해석이 모두 맞지 않는다.

出, 꽃의 꽃봉오리이다. 꽃은 모두 다섯 개로 나오므로, 다섯 개가 나오는

58) 戴侗《六書故》권29

모습을 그렸다(華英也, 華皆五出, 故象五出之形.)《六書略》

出, 나아가다이다. 초목이 무성해져서 위로 나오는 것을 그린 것이다.(進也, 象草木益滋上出達也.)《說文解字》

이것은 鄭樵와 許慎의 설이 모두 잘못된 예로, 甲骨文的 「出」은 바로 밭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은 대체로 訛變한 古文과 籀文을 따른 것도 있다. 예를 들어 「王」字를 살펴보면 許慎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王은 천하가 귀속되는 바이다. 동중서가 말했다. ‘三 획이 그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王이 된다. 三은 天地人을 말한다. 이 셋을 통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공자가 말했다. ‘一이 三을 꿰뚫으면 王이 된다(王, 天下所歸往也. 董仲舒曰: 三劃而連其中爲王. 三者, 天, 地, 人也. 三通之者王也. 孔子曰: 一貫三爲王)《說文解字》

그러나 鄭樵는 다음과 같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盛은 王의 本義이다. 만물이 땅에서부터 나와 무성해지는 것을 그린 것이다.(盛, 王本義也, 象物自地而出敷盛也.)《六書略》

그는 「王」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즉 「王」의 古文字는 斧鉞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것으로써 征服力을 나타낸다. 그래서 吳其昌은 《金文名象疏證兵器篇》에서 王字의 본의는 도끼(斧)라고 한 것이다.

또 일부 글자의 訓釋은 《說文解字》와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또한 그것이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白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白, 서방의 색깔이다. 물레 일에 사용하며, 물건의 색깔이 희다(西方色也. 陰用事, 物色白.)《說文解字》

白, 물고기의 부레이다(魚胞也.)《六書略》

(3) 各書내의 分類가 明確하지 않다

① 諧聲의 分類

鄭樵는 諧聲字를 正生과 變生 두 종류로 구분하고, 變生은 또 子母同聲,

母主聲, 主聲不主義, 子母互爲聲, 聲兼義, 三體諧聲 등 6개로 나누었는데, 唐蘭은 鄭樵의 「聲兼意」설을 긍정하면서도 기타 각 항목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시하였다.⁵⁹⁾

子母同聲과 子母互爲聲은 양쪽 모두 聲母의 글자로 인식할 수 있으나, 항상 어느 한쪽이 더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子母同聲, 跟子母互爲聲, 是兩邊都可以認爲聲母的字, 不過總有一邊是更切近的.)

母主聲은 따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하다.(母主聲一類, 只是分部的不當.)

主聲不主義에 대해서, 鄭樵는 4글자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정의가 매우 명료한 것은 아닌 듯하다.(至于主聲不主義一類, 鄭氏才舉四箇字作例…界說似乎不很明瞭.)

三體 혹은 四體의 諧聲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은 이를 二形一聲, 三形一聲, 二聲 등 모두 세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鄭樵의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關於三體或四體之諧聲, 後人分析做二形一聲, 三形一聲, 和二聲, 共有三類, 這實在是錯誤的.)

이상으로 보건데 「聲兼意」說 이외의 기타 다섯 종류에도 부당한 곳이 매우 많다고 할 것이다.

② 轉注의 分類

明代의 楊慎은 다음과 같이 鄭樵를 비평하였다.

鄭樵가 《六書略》에서 가차에 대해 논한 부분은 매우 분명한 면이 있다. 그러나 轉注에 대해 말한 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鄭漁仲《六書略》論假借極有發明, 至說轉注則謬以千里矣.)⁶⁰⁾

그의 비평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으나, 鄭樵의 轉注가 비교적 난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建類主義轉注」는 칭찬을 많이 받았으나, 기타 3類는 비난을 받은 경우가 비교적 많다.

첫째, 「建類主聲」은 하나의 代表字 즉 聲類를 확립하는 것을 말하며,

59) 唐蘭《中國文字學》제105-107쪽

60) 鍾如雄의 《說文解字論綱》제117쪽, 四川人民出版社, 2000년 4월 제1판에서 재인용

그 글자를 따르는 글자들은 類首字의 소리(聲音)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弑, 二, 弑」, 「鳳, 凰」, 「糴(쌀 사들일 적), 糴(쌀 내어팔 조)」를 예로 든다. 類屬字인 「二, 弑」의 음은 類首字인 「弑」의 음과 무관하며, 類屬字인 「凰」의 음은 類首字인 「鳳」의 음과 무관하고, 類屬字 「糴」는 類首字인 「糴」의 음과는 무관하다.

이로 보면, 建類主聲轉注에서 類首字는 聲音범주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문자사용대상과 사용범위」를 나타내거나 혹은 「類化」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弑」는 「二, 弑」에 類化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凰」의 本來字는 「皇」이었는데, 나중에 「鳳」과 類化되어, 「凰」이라 쓰게 되었다.

둘째, 「互體別聲」에 대해서 鄭樵는 「本」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

《說文解字》에서 나무의 아래를 本이라 하였다. 本, 朱, 末은 같은 뜻이다. 一이 아래에 있으면 本, 가운데에 있으면 朱, 위에 있으면 末이다. 一은 뜻이 없이 그저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것일 뿐이다.(《說文解字》木 下曰本. 本, 朱, 末同意. 一在下爲本, 在中爲朱, 在上爲末. 一無義也, 但記其別耳.)

이것을 보면, 鄭樵는 「本, 朱, 末」의 문자 구성 부분이 모두 같으며, 뜻의 범주도 같다고 여겼으며, 그것들의 뜻이 다른 것은 「一」이 처한 위치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鄭樵가 말한 「소리가 다르면 뜻이 다른 것(聲異而義異者)」이라는 「互體別聲」의 의미는, 결국 문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같으면서도 각기 다른 소리로 읽혀지는 글자를 말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비록 동일한 의미범주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문자를 구성하는 부분의 위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互體別義」에 관해서는 「旻, 旻」을 예로 든다.

鄭樵는 「旻」을 「가을하늘」이라고 해석하였으며, 「旻」을 「旻旻, 和(화락하다)也」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正字通·日部》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였다.

旻은 旻과 같다. 舊本에서는 旻, 旻 둘로 나누었다.(旻, 同旻, 舊本分旻, 旻爲二)

즉 「旻」과 「旻」은 본래는 서로 같은 두 글자였는데, 후에 異體字가 되어 두 글자가 서로 통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鄭樵가 말한 「의미는 다르지만 소리가 다르지 않는 것(義異而聲不異者)」이라는 「互體別義」의 의미는, 문자를 구성하는 부분이 서로 같은 두 글자가, 소리는 같지만 字義가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자의 類化 및 구성성분이 비슷한 한자가 각기 다른 조합방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글자가 되는 것은 한자의 孳乳현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지, 사실 轉注와는 억지로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③ 假借의 分類

· 無義之假借

鄭樵가 말한 「無義之假借」는 바로 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빌려서 다른 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은 빌리지만 뜻은 빌리지 않고 다른 말을 나타내기 때문에, 「無義之假借」로 이미 모든 가차현상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鄭樵는 「無義之假借」와 「語辭之借, 五音之借, 三時之借, 十日之借, 十二辰之借, 方言之借」등을 並列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無義之假借」의 아래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과 병렬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有義之假借

有義之假借에 대해 鄭樵는 「同音借義, 協音借義, 因義借音, 因借而借」등 4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코 假借가 아니다.

첫째, 「同音借義」의 예를 든다.

初는 옷을 재단할 때의 처음이므로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었다. 基는 흙을 쌓는 기본이므로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었다.(初, 裁衣之始而爲凡物之始. 基, 築土之本而爲凡物之本.)

그러나 이것은 사실 「詞義引伸」으로 詞義系統 내부의 변화와 관계된 것이지 결코 假借는 아니다.

둘째, 「協音借義」와 「因義借音」은 「詞의 성질이 변하여 달리 익히는(變性改讀)문제」와 관련된다.

「協音借義」의 예로는 「旁之爲旁(去聲), 中之爲中(去聲), 上之爲上(時掌切)」이 있으며, 「因義借音」의 예로는 「以有惡(入聲)也, 故可惡(烏路切), 以其內也, 故可內(音 納)」 등이 있다.

사실 「協音借義」와 「因義借音」은, 詞의 變性改讀문제로서 「因音借形(音에 근거하여 形을 빌리는 것)」에 속한다. 이러한 「因音借形」의 현상은 上古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上古에는 글자수가 적어서, 動詞와 名詞가 같거나(動名同字), 형용사와 명사가 같은(形名同字), 즉 詞의 성질이나 뜻은 다르지만(異性異義) 同體인 글자가 비교적 많았던 것이다.

楊清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같은 글자이나 성질이나 의미가 다른 말을 고대 사람들은 ‘如字’와 ‘破讀’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고시대의 훈고학자들이 처음 이렇게 한 것이었지, 상고시대에 이미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破讀’은 통상적으로 평, 상, 입성을 거성으로 읽는 것인데, 상고시대에는 去聲이 없었기 때문에 破讀을 따를 수가 없었다.(同字而異性異義的詞古人用‘如字’和‘破讀’來區別. 但這是中古時代訓詁學家們方如作俑, 并非上古已有其要. 因爲‘破讀’通常是將平上入讀爲去聲, 而上古並沒有去聲, 故而無從破讀.)⁶¹⁾

셋째, 因借而借에는 두 가지 방식 즉 「音借到義借」와 「義借到音借」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전자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難은 鳥이다. 音에 인해서 가차되어 어렵다의 難이 되었다. 어렵다의 難에 인하여 험난하다의 難으로 가차되었다.(難, 鳥也, 因音借爲艱難之難, 因艱難之亂借爲險難之難(去聲))

후자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射는 본래 射御(궁술과 마술)의 궁술이었다. 뜻에 인해서 가차되어 발사하다의 射(食亦切)가 되었다. 발사하다의 음에 인해서 無射의 射(音亦, 律名)가 되었다.(射本射御之射, 因義借爲發射之射(食亦切), 因發射之音借爲無射之射(音亦, 律名))

사실 「因借而借」는 한자운용의 신축성을 반영한 것이며, 모두가 鄭樵가 말한 바와 같이 어떤 단계를 거쳐 順次的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散發的으로

61) 楊清澄《論鄭樵六書學說之不足》, 《學術論壇》, 1999년 제2기, 제89쪽

발생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할 것이다.

즉 한 글자에는 여러 개의 假借義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假借字에는 여러 개의 引伸義(과생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雙音并義不爲假借

鄭樵가 「雙音并義不爲假借」라는 항목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陶也(陶冶之陶), 陶也(阜陶之陶)」에 대하여, 이러한 글자들은 결코 假借字가 아니라고 한 것은 매우 정확한 것이다. 裘錫圭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鄭樵의 《六書略》은 六書說에 따라 문자를 분류한 것이다. 가차자의 끝에 별도로 ‘雙音并義不爲假借’이란 항목을 열거하였는데, 이에 수록된 글자들 대부분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同形字이다.(鄭樵《六書略》按六書說給文字分類, 在假借字之末別例‘雙音并義不爲假借’一類, 所收之字大部分就是我們所說的同形字.)⁶²⁾

즉 이것들은 결국 同形字의 한 종류인 것을 알 수 있다.

2) 六書實踐(各字의 分析) 方面

《六書略》 중의 많은 글자들은 그 유형분류가 획일적이지 않다.

즉 甲류에 속한 글자들이 또 乙류에도 속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祝」, 「封」, 「攸」, 「解」, 「簋」, 「塵」, 「法」, 「尉」 등의 글자들은 「正生會意」에서도 보이고 「三體會意」에서도 보이며, 「罍」字는 象形의 「器用之形」에도 보이고 「三體會意」에서도 보이며, 「登」字는 象形의 「器用之形」에도 보이고 「正生會意」와 「三體會意」에도 보이며, 「鬼」字는 「鬼物之形」에도 보이고 「形兼意」에도 보이며, 「箕」字는 「形兼聲」에도 보이고 「三體會意」와 「聲兼意」에도 보이며, 「爭」字는 「指事」에도 보이고 「事兼形」에도 보이며, 「畫」字는 「會意」에도 보이고 象形에도 보이며, 「寒」字는 「事兼意」에도 보이고 「三體會意」에도 보이며, 「明」와 「恬」 두 글자는 「會意」에도 보이고 「聲兼義」에도 보이며, 「衡」字 등은 「聲兼意」에도 보이고 「三體諧聲」에도 보이며, 「帚」字는 「指事」에도 보이고 「三體會意」에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字形분석이 주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鄭樵가 字

62) 裘錫圭, 《文字學概要》제210쪽, 裘先生이 同形字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글자가 만약 字形이 같다면 이는 同形字이다.

形을 분석할 때에는 통일된 표준이 없이, 때로는 古字形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今字形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또 일부 한자는 形體結構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象形字로 분류되던 것이 會意字나 諧聲字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였고, 어떤 것은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기 다른 유형으로 귀납된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六書」의 分類를 너무 자세히 하여, 경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會意正生」과 「形兼意」, 「聲兼聲」, 「三體會意」 등은 모두 중복될 수 있다.

만약 鄭樵가 「六書統字」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수없이 중복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信」字는 會意에서 앞뒤로 두 번 보이고, 더군다나 「從人從口」의 古文인 「信」까지 더한다면 세 번 나온다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분명 필요 없는 것이다.

鄭樵가 「六書統字」한 것은 이와 같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세분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象形을 指事로 歸納한 경우

戊, 亡無切이다. 戈를 따른다. 앞에 늘어 떨어진 것은 방패를 본뜬 것이다. 창을 들고 방패를 휘두르는 것이다. 그래서 武가 되었고 戊가 바로 武이다. (戊, 亡撫切. 從戈, 前垂象盾, 執戈揚盾, 所以爲武, 戊卽武也.)

卜辭에서는 𠄎(《藏龜》十七, 四), 𠄎(《藏龜》四二, 一), 𠄎(《藏龜》二四五, 一), 𠄎(《前編》一, 七, 二), 𠄎(《後編》上, 六·六), 𠄎(《甲編》一, 十五, 二) 등으로 쓰였으며, 金文에서는 𠄎(加作父戊爵), 𠄎(《父戊葬等》)등으로 쓰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도끼를 든 병사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도끼를 든 병사의 모습이 이 字의 本義가 된다. 그렇지만 鄭樵는 창을 잡고 방패를 휘두르는 것으로 字形을 오인하여 「事兼形」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字는 사실은 獨體象形에 속하는 글자이다.

申, 위로 향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臼와 丨에서 왔으며, 丨은 묶는 모습을 본떴다. 臼는 위로 그것을 올리는 것이다. (有所上也. 從臼從丨, 丨象束書, 臼而上之也.)

卜辭에서 申자는 𠄎(《藏龜》五·三), 𠄎(《藏龜》五六·一), 𠄎(《藏龜》七十二, 四), 𠄎(《藏龜》八八·三), 𠄎(《藏龜》一六三·四) 등이 보인다.

다. 金文에서는  (申鼎),  (尹貞),  (宰桴角)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
字와 관련된 《說文解字》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虫部·蚘字, 申자에서 왔고 電이다.(從申, 電也.)

雨部·電字, 陰陽이 부딪쳐서 빛나는 것이다. 雨에서 왔고 申을 따른다.(陰
陽激耀也, 從雨從申)

葉玉森도 《殷玦鉤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申, 번개가 빛나면서 굴절되는 것을 본뎠다.(象電耀屈折)

이처럼 申은 번개가 빛나는 것을 본뜬 象形字이지 指事字가 아니다.

(2) 象形을 會意로 歸納한 경우

晶, 《說文解字》에서는 「정기가 빛나는 것으로, 세 개의 日에서 왔다」
고 하였다. 옛날에는 晶으로 썼으며, 子盈切이다. 또 古文에서는 晶으로 썼
다.(《說文》: 「精光也. 比三日」古作品. 子盈切. 又古文晶字.)

이와 관련된 《說文解字》의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晶, 만물의 정기로, 위로 올라가 뭉뚱들이 되었다. 晶에서 왔고 生의 소리
이다. 하나의 日은 象形이며 晶에서 왔는데, 古文에서는 晶의 안에다가 다시
점을 하나 찍었기 때문에 晶과 같아지게 되었다. 는 古文이다. 혹은 생
략 된 것이다. (萬物之精, 上爲列星 從晶從生聲. 一日象形, 從晶, 古晶復注中,
故與日同. 古文. 或省)

이로써 晶이 따르는 晶은 별을 그린 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鄭樵
가 잘못 오인한 까닭은 《說文解字》의 “從三日”이라는 것에 얽매어 있었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殷, 籀文의 磬字는 殸에서 왔는데, 그것을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籀文磬
字, 從殸, 擊之乃有聲焉.)

殷는 卜辭에서는  (《藏龜》餘 十二·一),  (《前編》四·十·五), 
(《前編》七·四二·一) 등이 보이고, 金文에서는  (宥磬)가 보인다. 羅振

玉은 이 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說文解字》에서 「磬은 石과 𡗗에서부터 왔고, 쇠북걸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떴다. 籀文에서는 생략해서 𡗗로 썼다. 古文에서는 𡗗라 하였다.」 卜辭에서 보이는 여러 글자에서 𡗗는 쇠북걸이의 장식을 본뜬 것이며, 𡗗은 경쇠를 본뜬 것이며, 𡗗으로 𡗗를 잡고 치는 것이다. 이것은 형태와 의미가 이미 갖추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石에서 온 것이라는 것은 바로 후대사람이 덧붙인 것으로, 다시 그 의미를 덧붙인 것이다. (《說文解字》「磬從石𡗗, 象縣虞之形. 籀文省作𡗗, 古文作 𡗗.」 卜辭諸字從 𡗗象虞飾, 𡗗象磬, 𡗗持 𡗗, 所以擊之, 形意已具, 其從石者, 乃後人所加, 重複甚矣.《增訂殷虛書契考釋卷中四十葉上》)

이에 근거하면 이 글자는 마땅히 象形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指事를 象形으로 歸納한 경우

匕, 지금은 化로 쓴다. 《說文》에서는 「변화이다. 사람을 거꾸로 한 것에서부터 왔다.」(今作化. 《說文》「變也. 匕到人」)

道家에서는 순행하면 사람이 되고 역행을 하면 道가 된다고 하였다.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道는 사람을 떠난다. 그러므로 변화하여 위로 올라 갈 수 있다고 한다. 高仲華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指事は 형태를 변화시켜 보이는 모습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匕는 匕를 거꾸로 뒤집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의미가 가리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指事有從變形見之者, 如「匕」從「匕」倒之, 而指其義爲異常.)

이에 근거하면 匕字는 마땅히 指事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𡗗, 古堯切이다 머리가 잘려서 거꾸로 매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首자를 뒤집은 것을 따랐다.(古堯切. 斬 𡗗, 到縣, 故從到 𡗗.)

高仲華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𠂔」는 「𠂔」를 거꾸로 하여 아래로 향하게 한 것을 따른 것이며,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매달아 건다는 의미가 된다.(「𠂔」從「𠂔」倒之向下, 而指其義縣掛.)

이것에 근거하면 𠂔자는 마땅히 指事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亦, 《說文》에서 「사람의 겨드랑이가 亦이다. 大에서 왔고 두 겨드랑이 모습을 본떴다.」라고 하였으며, 지금은 별도로 腋을 사용한다.(《說文》「人之臂亦也. 𠂔大, 象兩亦之形,」 今別作腋.)

高仲華는 指事를 설명하면서, 指事에는 그림으로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亦자는 大에서 왔고 大는 사람이다. 점 두개는 두 겨드랑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亦字는 마땅히 指事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夭, 於兆切이다. 《說文》에서 「구부러진 것이다. 大에서 온 象形이다.」라고 하였다. 또 古老切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다.(於兆切. 《說文》「屈也. 𠂔大象形」又古老切, 不長也.)

失, 阻力切이다. 또 力結切이다. 머리를 기울인 것이다(阻力切, 又力結切, 傾頭也.)

交, 다리를 꼬은 것이다.(交脛也.)

尫, 烏光切이다. 《說文》에서 말하길 「다리를 저는 것이다. 다리가 휜 사람이다. 大에서 왔고 한쪽으로 구부러진 모습을 본떴다.」라고 하였다.(烏光切. 《說文》: 「尫也. 曲脛人也. 𠂔大, 象偏曲之形.」)

이 네 글자들은 모두 형태를 변화시킨 것으로 指事에 속하는 것이다. 「夭」는 「𠂔」을 따르며, 사람이 오른쪽으로 머리를 구부린 것을 그린 것으로 屈曲을 가리킨다. 「尫」는 「𠂔」를 따르며, 왼쪽으로 머리를 구부린 것을 그린 것으로, 머리를 기울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交」는 「𠂔」에서 왔으며, 사람이 다리를 서로 교차한 것을 그린 것이며 그 의미는 교체하다이다. 「失」은 「𠂔」를 따르며, 사람의 다리가 휘어진 것을 그린 것으로, 절름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이들 네 글자는 모두 指事에 속한다.

立, 사람이 땅위에서 서있는 모습을 본떴다. 사람을 나타내는 大에서 왔고. 一은 땅이다.(象人立地之上. 從大, 人也. 一地也.)

段玉裁는 大徐本을 인용하여 「立」자를 會意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체로 會意字는 各各의 體가 모두 구체적인 文을 이룬다. 「一」은 땅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는 文을 이루지 못하는 符號에 불과하다. 또한 사람이 땅위에 서 있으면 立이 되는데, 서 있다는 것은 事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指事로 분류해야 하며, 象形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會意로 넣는 것은 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毋, 武扶切이다 《說文》에서 말하길 「그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女에서 왔고 간사함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武扶切. 《說文》: 「止之也. 從女有奸之者.」)

鄭樵는 《說文解字》를 인용하면서 빠뜨린 글자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毋, 금지시키는 말이다. 女와 一을 따랐다. 女는 간통함이 있는 여자이며, 一은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간통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止之詞也. 從女一, 女有奸之者, 一禁止之, 令勿奸之.)

段玉載는 이 字를 會意로 여겼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一」은 文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그러므로 毋자는 당연히 指事에 들어가야 한다. 象形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會意로 분류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厶, 息夷切이다. 陰을 일컬어 厶라고 한다. 6과 같은 글자다.(息夷切. 陰謂之厶, 與 同體.)《六書略》

厶, 姦衰한 것이다. 韓非子가 말하길 「倉頡이 글자를 만들 때 스스로 경영하는 것을 私」라고 하였다. (姦衰也, 韓非曰: 「倉頡作字, 自營爲私」《說文解字九上厶部》

段玉裁는 다음과 같이 注를 달아 설명하였는데, 그의 의견이 옳다.

公과 私는 본래 이와 같다. 스스로 경영하는 것이 厶로, 六書중에서 指事에 속한다.(公私本如此, 自營爲私, 六書之指事也.)

丑, 그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이다.(械其手也.)《六書略》

丑자는 又에서부터 왔고 그 가운데를 |로 그은 것이다. |은 文을 이루지 못하며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일 뿐이다. 그러므로 丑자는 마땅히 指事에 들어가야 한다.

久, 陟修切이다. 《說文》에서 말하길 「나중에 이르는 것을 따랐다. 사람의 두 정강이가 뒤에 이르는 것을 본뻗다」고 하였다.(陟修切. 《說文》: 「從後至也. 象人兩脛後有致之者」)

久, 《說文》에서는 「나중까지 버티는 것을 따랐다. 사람의 두 정강이가 나중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그렸다.」라고 하였다.(《說文》: 「從後灸之也. 象人兩脛後有距」)

이상 두 글자를 구성하는 것들은 「久」字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마땅히 指事에 들어 가야한다.

友, 蒲撥切이다. 《說文》에서 말하기를 「걸어가는 개의 모양이다. 개의 발에 丿을 한 것을 그린 따랐다. 그 발을 끌면 발을 찌르게 된다.」라고 하였다.(蒲撥切. 《說文》: 「走犬兒. 從犬而丿之, 曳其足則刺友也.」)

友자는 개의 발에 丿을 그린 것을 따랐는데, 丿은 바로 끄는 부위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따라서 指事로 분류해야 한다.

於謹切이다. 《說文》에서는 「천천히 굽어 숨는 모습을 본뻗다.」라고 하였다.(於謹切. 《說文》: 「象曲隱蔽形」)

鄭樵가 《說文解字》를 인용하면서 앞에 「匿也」 두 글자를 빼뜨렸으며, 뒤에는 「讀若隱」이라는 세 글자를 빼뜨렸다. 段注에서는 「도망가는 사람이 스스로 숨기는 모습을 본뻗다.(象逃亡者自藏之狀)」고 하였다. 대체로 도망가는 사람은 구불구불 은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상이 없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指事에 들어가야 한다.

又, 初加切이다. 물건을 끼어 가진 모습을 본뜬 것이다.(初加切. 象又物之形.)

又, 손가락이 서로 교차된 것이다. 又에서 왔고 물건을 끼어 가진 모습을 그린 것이다.(手指相錯, 縱又, 象又物之形.《說文解字三下又部》)

又, 손가락과 물건이 서로 교차된 것을 말한다. 무릇 손가락을 펴서 물건을 그 사이에 끼이게 하여 그것을 취하는 것을 又라고 한다.(謂手指與物相錯也. 凡布指錯物間而取之曰又《說文解字注》)

又是 又에서 왔고 두 손가락 사이에는 「丶」로써 끼인 물건을 나타낸 것이므로 指事로 분류해야 한다.

疒,音が 疒이다. 《說文》에서는 「사람이 병이 있을 때 기대고 누워 있는 모습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音疒. 《說文》: 「人有疾病, 象倚著之形.」)

疒字는 篆文에서는 疒로 쓰고 있는데, 疒는 疒에서 온 것이다. 疒은 바로 牀의 初文이다. 疒은 疒에다가 「一」을 덮은 것으로, 기대어 누운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므로 指事に 들어간다.

𦑔, 毗祭切이다. 찢어진 옷이다.(毗祭切 敗衣也.)

𦑔, 찢어진 옷이다. 巾에서 왔고, 옷이 찢어진 모습을 그린 것이다.(敗衣也. 從巾, 象衣敗之形.《說文解字七下 巾部》)

이 글자에서 巾 이외의 네 점은 모두 찢어져 헤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指事부호이다. 그러므로 이 글자는 指事로 분류해야 옳다.

示,音が 示이다. 깃발의 모습을 본떴다.(音示, 象旗旒之形.)

示, 하늘이 아래로 상을 드리워 사람들에게 길흉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二에서 왔고 세 개의 示는 해, 달, 별이다. 천문을 보고 때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며, 신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天垂象見吉凶, 所以示人也. 從二, 三垂, 日月星也. 觀乎天文, 以察時變, 示神事也.《說文解字一上示部》)

「二」는 上의 古文인데, 하늘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말한다. 그리고 아래에 드리워져 있는 세 개의 부호는 해와 달, 별을 나타내는 부호에 불과하다. 鄭樵는 글자의 모양을 보고 깃발의 형상을 본떴다고 했는데, 이는 처음 보이는 견해이다. 그의 말대로 示가 깃발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면 二에서 왔다는 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鄭樵의 說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八, 나누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象分別之兒.)

八, 나누는 것이다. 분별하여 서로 등진 모습을 본떴다.(別也. 象分別相背之形《說文解字二上八部》)

王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指事字를 象形이라 하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 事에는 반드시 意(의미)가 있으며, 意(의미)에는 形(형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마음 속의 형상을 그린 것이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그린 것이 아니다. 대체로 실물이 아니면서도 그 형상을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그러하다.(此指事字而云象形者, 避不成詞也. 事必有意, 意中有形, 此象人 意中之形, 非象人目中之形也. 凡非物而解象形者皆然.《說文釋例券一》)

王筠의 견해가 옳다. 鄭樵가 象貌로 분류하여 예로 든 글자들 중에는 잘못 분류된 글자들이 많은데, 이는 《說文解字》에서 보이는 「象某之形」의 의미를 오인한 때문으로 보인다.

入, 《說文》에서 「위에서부터 모두 아래로 향하는 것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였다.(《說文》: 「象從上俱下也.」)

入, 안이다. 위에서 모두 아래로 향하는 것을 그린 것이다.(內也. 象從上俱下也. (《說文解字五下入部》))

內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위와 아래는 바깥과 안의 모습이다.(內者自外而中也. 上下者, 外中之象《說文解字注》)

이것에 근거하면 入자는 마땅히 指事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爻, 서로 더해져서 통하거나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본떴다.(象爻交通疏兒.)

爻, 교차하는 것이다. 역에서 사용되는 6개의 효두가 서로 교차된 것을 그린 것이다.(爻也. 象易六爻頭交也.《說文三下爻部》)

爻, 《繫辭》에서 「爻라는 것은 天下의 움직임을 본뜬 것이다.」(《繫辭》: 「爻也者, 效天下之動者也.」)《說文解字注》

爻라는 것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차되면 변한다. 그러므로 그 교차된 것을 그린 것이다.(爻也者, 言乎變者也. 交則變矣, 故象其交.《說文釋例卷一》)

鄭樵는 「象爻交通疏兒」로 字形을 해석했지만, 이 자는 마땅히 持事에 들어가야 하며 象形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丨, 丨자는 소리가 衰이다. 上下가 통하는 모양이다(音衰, 上下通兒.)
丨字는 한 가지 사물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것은 事이다.(丨字不著一物, 是事也.) (《說文釋例券一》)

王筠의 說이 옳다. 그러므로 마땅히 指事에 들어가야 한다.

凶, 《說文》에서는 「凶惡이다. 땅이 뚫어지고 갈라져 그 속에 빠지는 모습이다.」(《說文》: 「惡也. 象地穿交陷其中.」)

凶의 丨은 땅 구덩이를, 乂는 그 속에 함정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짐승이 함정에 빠지는 흉악을 나타낸 指事字이다.

ㄱ, 居糾切이다. 《說文》에서는 「서로 얽히는 것이다. 一說에서는 오이나 호박이 얽혀 올라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고 하였다.(居糾切. 《說文》「相糾縲也. 一曰瓜 結 ㄱ 起」).

ㄱ는 초목의 덩굴이 서로 얽히거나 교차되는 것을 나타낸 指事字이다.

𠄎, 陟劣切이다. 잇달아 꿰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陟劣切. 象聯綴之兒.)

잇달아 연결시켜 꿰매는 것은 事에 해당되므로, 이 字는 指事로 분류해야 한다.

𠄎, 𠄎자는 古患切이다. 사물을 꿰뚫는 모양이다(古患切. 象穿物之兒.)

𠄎자는 一로써 사물을 꿰뚫는 것으로 指事에 속한다. 그러므로 𠄎자는 마땅히 指事에 들어 가야한다.

串, 串자는 古患切이다. 뚫는 것이다.(古患切. 穿也.)

串字는 𠄎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꿰뚫는 것이므로, 指事로 분류해야 한다.

一, 二, 三, 三, 乂, 五, 七, 九, 十 등 이상의 9字를 鄭樵는 모두 象形의 象數類에 편입시켰다. 一, 二, 三, 三은 각각 1, 2, 3, 4를 가리킨다. 乂는 정오가 교차하는 모양이다. 五는 二에서 왔고 天地를 가리킨다. 陰陽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낮에 교차하는 것이다. 七字는 易의 正으로, 一을 따르며, 미약해진 陰이 가운데에서 쇠미하게 나오는 것이다. 九는 易의 變으로, 구부러서 숫자의 다함(極)을 이루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十은 수의 완성이

다. 이 모두는 당연히 指事로 분류되어야 한다.

上, 下, 丄, 丅, 丂, 七, 丄, 丅 등 이상의 7字를 鄭樵는 象形象位類로 분류하였다. 이 중 上과 下가 指事라는 점에 대해서는 異說이 없다. 丄은 세 개의 방위가 합해진 것을 뜻한다. 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진 형상이다. 丂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진 형상이다. 七은 덮는 형상이며, 丄는 흐르는 형상이다. 이들은 모두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이 아니라 추상적인 형상을 가리키는 것들로 모두 指事로 분류되어야 한다.

只, 𠂔, 𠂕, 𠂖, 𠂗, 𠂘, 乃, 𠂙 등 이상의 8字는 象形象氣類로 분류되었다. 只는 口를 따르는 것으로,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고, 말이 그쳤음을 나타낸다. 𠂔은 𠂕을 따르고, 𠂕은 음식을 익힐 때 다섯 가지 맛의 기운이 위로 나오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𠂖는 기운이 막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본뜬고 一은 위에서 누르는 것이다. 𠂗는 𠂕字를 반대로 한 것으로 말을 나타낸다. 𠂘는 𠂕에서 왔고 위는 기운을 들어 올리는 형상을 본뜬 것이다. 말을 잠깐 그칠 때 나오는 것이다. 𠂙는 𠂘에서부터 왔다. 丄은 소리가 위로 향하는 것을 본뜬 것이다. 고문에서는 𠂚로 쓰였는데, 기운이 나오는 것이 어려움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말을 꺼내는 어려움을 나타낸다. 𠂙는 𠂕에서 왔으며, 위의 一은 그 기운이 평평한 것을 나타내며, 기운이 퍼지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들 8字는 모두 事를 가리키는 것들이므로, 마땅히 指事로 분류되어야 한다.

𠂛, 𠂜, 𠂝 등 3字는 象形의 象聲類로 분류되었다. 𠂛는 소의 입에서 숨이 나오는 본뜬 것으로, 결국 소의 울음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이다. 𠂜는 양의 울음소리를 묘사한 것이다. 𠂝은 口에서부터 나왔고 입 위로 숨이 나오는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들 세 글자는 모두 事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마땅히 指事에 들어간다.

寸, 《說文》에서 「十分이다. 사람의 손으로부터 1촌 되는 곳에 맥박이 뛰는 곳을 寸口라고 한다. 又에서 왔고 一을 따른다. 또 寸은 사람의 손이다. 또 말하기를 法度이다. (《說文》: 「十分也. 人手卻一寸動脈謂之寸口, 從又從一。」 又曰: 寸, 人手也. 又曰, 法度也)

寸字는 又를 따르며, 一로 그 寸口를 표시한 것이다. 鄭樵가 말한 두 가지 설은 모두 引伸된 의미이다. 「一」은 文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단지 그 寸口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호일 뿐이다. 그러므로 寸字는 마땅히 指事에 들어가야 한다.

𠂞, 지금은 疆자로 쓴다. 《說文》에서는 「지경이다. 𠂟에서 왔고 三은

그 경계를 가리키는 선이다。」라고 하였다.(今作疆. 《說文》:「界也. 縱畺, 三其界劃也.」)

三是 경계를 나타내는 부호이므로 틀자는 마땅히 指事에 편입되어야 한다.

(4) 會意를 象形으로 歸納한 경우

屾, 所臻切이다. 두개의 산이다.(所臻切. 二山也.)

屾은 두개의 산에서 왔다. 이는 동일한 文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會意에 속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會意에 넣어야 한다.

磊, 魯猥切이다. 여러 돌이다.(魯猥切. 衆石也.)

磊자는 石을 세 개 합하여 만든 글자이므로 會意로 분류되어야 옳다.

垚, 音이 堯이다. 《說文》에서는 「땅이 높은 것이다。」라고 하였다.(音堯. 《說文》:「土高也.」)

垚는 土가 세 개가 모여 이루어진 글자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會意에 들어간다.

이상과 같은 예들은 많다. 畺, 𡵓, 𡵔, 秝, 𡵖, 𡵗, 𡵘, 𡵙, 𡵚, 從, 𡵜, 𡵝, 𡵞, 𡵟, 頁頁, 𡵡, 𡵢, 𡵣, 𡵤, 𡵥, 𡵦, 𡵧, 𡵨, 𡵩, 𡵪, 𡵫, 𡵬, 𡵭, 𡵮, 𡵯, 𡵰, 𡵱, 炎 등은 모두 동일한 글자를 두 개, 세 개 혹은 네 개를 같이 써서 만든 同文會意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鄭樵는 이들 글자를 구성하는 文이 象形字이기 때문에 두 개 혹은 세 개가 모여 글자를 이루어진 뒤에도 역시 象形字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象形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會意字이지 象形字는 아니다.

出, 꽃 봉우리다. 꽃 봉우리가 5개가 나온다. 그러므로 5개가 나오는 모습을 본떴다(華英也. 華皆五出, 故象五出之形.)《六書略》

出字는 《卜辭》에 𠄎(《前編》一·三·四), 𠄏(《前編》二·十八·五), 𠄐(《後編》上·一·十一·十三), 𠄑(《後篇》上·二九·十) 등이 보인다. 金文에서는 𠄒(《頌鼎》), 𠄓(《善夫克鼎》), 𠄔(《向矩鼎》), 𠄕(《毛公鼎》)

》) 등이 보인다. 이들 글자들은 모두 止와 丩을 따른 것으로, 발을 구덩이에서 빼어, 함정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本義는 나오다라는 의미가 된다.

孫詒讓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說文》에서 「𠄎는 나가다이다.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 위로 나오는 것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金文의 毛公鼎에서는 𠄎로 보이고, 石鼓에서는 𠄎나 𠄎로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止를 따르고 있다. 龜甲文에서는 𠄎로 보이는데, 가운데에 있는 것 역시 止를 따르고 있다. 이로써, 古文에서는 발로 걸어서 출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초목이 위로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秦대의 篆文에서 바뀌었으며, 許慎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다.(《說文》「𠄎, 進也. 象草木益茲上出達也。」 金文毛公鼎作 𠄎, 石鼓作 𠄎·𠄎, 皆從止. 龜甲文則作 𠄎, 中亦從止, 明古文出字取足行出入之義, 不象草木上出形, 蓋亦秦篆之變易, 而許君沿襲之也.《名原卷上十七葉下》)

出字는 갑골문이나 金文에서 모두 止를 따르고 있으며, 구덩이(凵)에서 나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會意字라고 할 수 있다.

元, 사람의 머리다. 二과 儿을 따른다. 二는 古文에서의 上字로 사람의 머리를 그린 것이고, 兒는 몸을 나타낸다. (人頭也. 從二從儿., 二, 古文上字, 象人頭, 兒象其身)

《說文》에서 元자는 一部로 분류되었으며, 「시작이다. 一을 따르며, 兀의 소리이다(始也, 從一兀聲)」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許慎의 「從一兀聲」라는 것은 뜻을 취하지 못한다. 鄭樵의 「從二從儿」라는 견해가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象形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獨體爲文, 合體爲字」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象形과 指事는 文이며, 會意와 諧聲은 字가 된다. 元字는 二와 儿로 이루어진 合體字이므로 象形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마땅히 會意로 분류해야 한다.

民, 백성이다. 머리를 숙이고 힘을 쓰는 모습을 본떴다.(氓也. 象俯首力作之形.)

民, 여러 백성이다. 고문의 모습을 따랐다. 𡵓은 고문의 民이다.(衆氓也. 從古文之象. 𡵓古文民)《說文解字》)

魯實은 民字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民은 母를 따르고, 氏의 생략형을 따르는 회의이다. 金文에 보이는 民字는  (《孟鼎》),  (《克鼎》),  (《齊罇》),  (《秦公股》),  (《王孫童》),  (《齊侯壺》) 등과 小篆의  모두 女와 氏를 따르고 있다. 古鈔에 보이는 , , 도 모두 母와 氏를 따르고 있다.(丁佛諺의 《古籀補補》 참고) 다만 《禱祀股》에 보이는 民字는 로, 母와 氏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民의 正體가 되었다. 이들이 모두 그 文이 서로 다른 것은 女와 母는 疊韻이며, 母와 母는 雙聲이기 때문에, 卜辭나 金文에서 母, 母, 女 3字가 서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說文》에서는 고문의 와 古鈔의 를 수록하여, 每와 氏를 따르고, 每로써 母聲을 따르고 있다.(則爲從每從氏, 乃以每從母聲) 그러므로 民의 古文 역시 每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民은 母과 氏를 따르는 會意이기 때문에, 母로써는 서로 통하지 않으며(以母無相通), 姓氏가 없는 사람 즉 백성을 말한다.(民乃從母從氏省, 會意. 金文作 , , , , ,  (《孟鼎》),  (《克鼎》),  (《齊罇》),  (《秦公股》),  (《王孫童》),  (《齊侯壺》)與篆文之 并爲從女從氏, 古鈔作 , , 并爲從母從氏(見丁佛諺 《古籀補補》). 惟《禱祀股》作 , 乃爲從母從氏, 爲民之正體. 其文互異者, 從女、母爲疊韻, 母、母爲雙聲, 是以卜辭、金文於母, 母, 女三字互通作. 《說文》載古文作 , 及古鈔之 , 則爲從每從氏, 乃以每從母聲, 故民古文易從每也. 民所以從母從氏會意者, 則以母無相通, 言無姓氏者, 乃爲民也. 《說文正補》之



이에 근거하면 民字는 마땅히 會意에 들어 가야한다.

 , 夭와 止를 따른다. 止는 足이다. 夭는 사람이 머리를 들어 올리고 발을 길게 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從夭從止, 止, 足也. 夭象人之仰首張足而奔之形)《六書略》

字가 夭와 止를 따른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會意로 분류되어야 한다.

步, 걷는 것이다. 두 발이 서로 앞뒤로 있는 것을 그린 것이다.(行也. 象二趾相前後)《六書略》

步, 걷는 것이다. 止에서 왔고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것이다.(行也. 從止, 相背.)《說文解字二上步部》

步, 천천히 걷는 것을 步라 한다.(徐行曰步)《釋名》

步는 과 을 따르는데, 이들 과 은 모두 文이므로, 會意로 분류되어야 한다.

辵, 丑略切이다. 彳부터 왔고 止에서부터 왔다. 彳은 걷는 것이다. 止는 발이다. 발로 걷는 것을 그렸다. 隸書로는 辵이다.(丑略切. 從彳從止. 彳, 行也. 止, 足也.. 象足而行. 隸作 辵.)《六書略》

辵字는 彳과 止를 따르므로 會意字이다.

𨇗, 溥末切이다. 발이 서로 어긋나서 넘어지는 것이다.(溥末切. 足相戾而蹟也.)《六書略》

𨇘, 발이 어긋러진 것이다. 𨇗와 𨇙을 따른다. (足刺 𨇗也. 從 𨇗, 𨇙.)《說文解字二上部》

𨇗와 𨇙은 모두 文이므로 會意字에 속한다.

行, 왼쪽걸음인 彳을 따르고, 오른쪽 걸음인 亍을 따른다. 左右의 걸음이 합쳐져서 후에는 行이 되었다.(從彳, 左步也. 從亍, 右步也. 左右步俱與而後爲行者.)《六書略》

行字는 彳과 亍을 따르는데, 彳과 亍은 모두 文이 된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鬥, 鬥는 都豆切이다. 𣎵과 𣎶를 따른다. 상대와 맞서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都豆切. 從 𣎵, 從 𣎶, 象對敵之形.)《六書略》

鬥字는 文인 𣎵과 𣎶을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𩰫, 새집을 쌓고 고치는 것이 𩰫이다. 晶과 宜을 따르는데, 宜는 제사 때 고기를 담은 그릇인데, 고기가 많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豐登과 같은 뜻이다. (新室改爲𩰫. 從晶從宜, 宜, 盛社肉之器, 象肉多之形. 與豐登同意.)《六書略》

𩰫字는 晶과 宜를 따른다. 晶은 𩰫의 初文이며, 宜는 많다란 뜻이다. 그러므로 𩰫자는 별이 많아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會意로 분류되어야 한다.

卅, 日執切이다. 두 개의 十을 나란히 한 것이다(日執切. 二十併也.)

卅字는 두 개의 十을 따르므로 會意에 속한다.

卅, 卅은 蘇沓切이다. 3개의 十을 나란히 한 것이다.(蘇沓切. 三十并也.)

卌字는 세 개의 十에서 왔으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卌, 息入切이다. 十 네 개를 나란히 한 것이다, 一, 二, 三, 三는 正數의 모양을 그린 것이며, 그 나머지는 수를 병합한 것이다.(息入切. 四十并也. 一, 二, 三, 三象正數, 餘竝合數)

卍字는 네 개의 十을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卍, 《說文》에 ‘말이 평평하고 부드러운 것이며, 卍과 八을 따른다. 八은 나누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說文》: 「語平舒, 卍于 卍八, 八, 分也.」)

卍자는 亏와 八을 따른다. 語氣가 나뉘어서 흩어져 평평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會意에 속하는 글자이다.

兗, 옛날에는 兗로 썼다. 說이다. 徐鉉은 「口과 八을 따른다. 기운이 분산되는 것을 본떴다.」고 하였다.(舊說作兗, 說也. 徐鉉曰: 「卍口卍八. 象氣之分散.」)《六書略》

兗, 說이다. 儿에서 왔고, 台聲이다. (說也, 卍儿台聲.)(《說文解字八下人部》)

台, 고문의 兗이다. 소리가 아니다. 당연히 口과 八을 따른다. 기운이 분산되는 것을 본떴다.(古文兗字, 非聲, 當卍口卍八, 象氣之分散.)(徐鉉)

鄭樵는 문장의 일부만을 인용함으로써 오해가 생긴 것이다. 徐鉉의 설이 옳으며, 會意에 들어가야 한다.

囁, 虛矯切이다. 《說文》에서는 「聲이다. 기운이 머리 위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虛矯切. 《說文》: 「聲也, 氣出頭上.」)《六書略》

囁字는 卍과 頁을 따르므로 會意로 분류되어야 한다.

呬, 큰 말이다. 矢口에서 왔다. 큰 말은 입을 벌림으로써 소리를 내는 것

이다. (大言也. 縱矢口. 徐鍇曰 : 「大言故矢口以出聲.」)《六書略》

吳字는 矢와 口에서 왔으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梟, 先到切이다. 나무위에서 여러 마리의 새가 우는 것이다.(先到切. 鳥在木之羣鳴也.)《六書略》

梟字는 品이 木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齧, 語市切이다.《說文》에서 「두 마리 호랑이가 싸우는 소리다. 日에서 왔고 口의 기운이 나오는 모습을 본떴다.」고 하였다. (語市切. 《說文》 : 「兩虎爭聲. 從日, 象口氣出也.」)《六書略》

齧은 虜과 日을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舂, 《說文》에서는 「곡식을 찧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卅을 따르는데, 이는 절구 방망이를 잡고 절구 통 위에서 방아를 찧는 절구공이다.」라고 하였다.(《說文》 : 「擣粟也. 從卅持杵臨臼上, 杵者也.」)《六書略》



舂字는 小篆에서는 𠄎의 모습으로 보인다. 두 손으로 절구공이(午)를 잡고 절구를 찧는 것을 따르고 있는데, 午는 바로 杵字의 초문이지, 절구공이로 찧는 것이 아니다. 段玉裁 역시 이를 會意로 분류하였다.

𠄎, 以沼切이다.《說文》에서는 「절구에서 퍼내는 것이다. 爪, 臼에서 왔다.」고 되어 있다. 詩經의 或簸或𠄎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夷周切이다.(以沼切. 《說文》 : 「杼臼也. 從爪臼.」引詩或簸或𠄎. 夷周切)《六書略》

𠄎는 爪와 臼를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𠄎, 乎籛切이다. 《說文》에서는 「작은 구덩이다. 사람이 구덩이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乎籛切. 《說文》 : 「小阱也. 從人在臼上.」)《六書略》

𠄎字는 小篆에서는 𠄎이며, 金文은 𠄎(《宗周鐘》)이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𠂔, 渠龜切이다. 《說文》에서는 「화살을 잡고 어루만지는 것이다. 𠂔과 肉에서 왔다.」고 되어있다.(渠龜切. 《說文》: 「持弩拊也. 從肉.」)《六書略》

𠂔은 卍과 肉을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弃, 버리다이다.(捐也.)《六書略》

弃의 古文은 棄인데, 𠂔을 따르고 充省을 따른다. 充은 자식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弃는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

具, 《說文》에 「모두 갖추는 것이다. 𠂔을 따르며 貝가 생략된 것이다. 옛날에는 貝가 화폐였다.」고 기록되어 있다.(《說文》: 「共置也. 從 𠂔 從貝省, 古以貝爲貨.」)《六書略》

具字는 卍와 貝의 생략 형태를 따르므로 會意가 된다.

彪, 必幽切이다. 호랑이 무늬다.(必幽切. 虎文也.)《六書略》

彪字는 虎와 彡을 따른다. 彡은 장식되고 무늬가 그려진 털이다. 그러므로 彪字는 會意에 들어가야 한다.

盥, 古玩切이다. 《說文》에서는 「손을 씻는 것이다. 白에서 왔고 물이 그릇에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古玩切. 《說文》: 「澡手也. 從白 水臨皿.」)《六書略》

盥字는 白, 水, 皿을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鬼, 《說文》에서 「人을 따르며 귀신의 머리를 본떴다. 귀신은 음기로 재앙을 주고 해를 일으킨다. 厶를 따른다.」라고 하였다.(《說文》: 「從人, 象鬼頭, 鬼陰气賊害. 從厶.」)《六書略》

鄭樵는 《說文解字》를 인용하면서 일부만을 발췌하였다. 《說文解字》의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鬼, 사람이 돌아가면 귀신이 된다. 儿와 귀신 머리를 그린 𠂔, 厶를 따른다. 귀신은 음기로 재앙을 주고 해를 일으키므로 厶를 따른다.(人所歸爲鬼.

從儿 𠃉, 象鬼頭, 從厶, 鬼陰气賊害, 故從厶.)

이에 근거하면 당연히 會意에 들어가야 한다.

彪, (明秘切이다.《說文》에는 「나이든 精物이다. 鬼와 彡을 따르며, 彡은 귀신의 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明秘切.《說文》: 「老精物也. 彪 鬼彡, 彡, 鬼毛.」)《六書略》

彪字는 鬼와 彡을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가야 한다.

(5) 會意를 指事로 歸納한 경우

史, 小篆은 𠄎이다.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說文》에는 「손으로 가운데(中)를 잡는 것이다. 中은 바르다이다.(小篆作 𠄎. 記事者. 《說文》: 「𠄎又持中, 中, 正也.」)《六書略》

史字는 손으로 가운데를 잡는데서 왔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가야 한다.

外, 《說文》에서는 「먼 것이다. 복사에서 아침에 평안하기를 바란다. 오늘 저녁에 점을 치니 이는 일의 바깥쪽이다。」라고 하였다.(《說文》 「遠也. 卜尙平旦, 今夕卜, 於事外矣.」)《六書略》

外字는 夕과 卜을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丈, 《說文》에서 「十尺이다. 又에서 왔고 十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小篆은 𠄎이다.(《說文》 「十尺也. 𠄎又指十.」 小篆作 𠄎.)《六書略》

丈字는 又와 열 개의 손가락에서 왔다. 그러므로 회의에 들어간다.

夆, 乎江切이다. 《說文》에는 「복종하다이다. 夂와 夂를 따른다. 서로 숭상하여 감히 나란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乎江切.《說文》 「服也. 𠄎夂 夂, 相承不敢竝也.」)《六書略》

夆字는 夂와 夂를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가야 한다.

𠄎, 多嘯切이다. 조문을 하는 것이다. 옛날 장사를 지낼 때는 풀이나 나무

로 두텁게 매장한 후, 궁사가 반드시 화살을 꿰어 활을 당김으로써 새들이 시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켰다.(多嘯切. 間終也. 古之葬者厚衣以薪, 故弔者必持弓貫矢, 警鳥鳶也.)

弔字의 小篆은 로, 사람이 활을 등에 진 모습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가야 한다.

尢, 余箴切 이다.《說文》에서는 「머뭇거리면서 걷는 모양이다. 사람이 문을 나서는 것이다. 冂은 垺이다.(余箴切. 《說文》 「尢尢行兒. 從人出門。」 冂卽垺也.) 《六書略》

사람이 문을 나서는 데서 왔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가야 한다.

古, 《說文》에서는 「옛날이다. 十, 口에서 왔다. 앞의 일을 알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또 音이 故이다. 古文에서는 로 썼다. (《說文》 「故也 從十口, 識前言者也。」 又音故, 古作 .) (《六書略》

古字는 十과 口를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가야 한다.

仄, 《說文》에 '옆으로 기우는 것이다. 人이 벼랑 아래에 있는 것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다.(《說文》 「側傾也. 從人在厂下。」)《六書略》

仄字는 人과 厂을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犴, 去度切이다. 죄를 지어 문신한 것이다. 干과 二를 따른다. 二는 高문에서 上字다. 윗사람을 범하면 문신을 당하게 된다. 혹 말하기를 「干은 또한 犴(감옥) 字가 된다. 감옥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죄가 있어 문신을 한 사람이다.(去度切. 辜愆也. 從干二, 二, 古文上字, 干上則爲辜矣. 或曰「干亦爲犴字, 在犴獄之上, 則辜愆之人也.)

辛은 윗사람을 범하는 것이므로, 會意字다. 干을 犴字로 보는 것은 牽強附會이다.

直, 바로 보는 것이다. 乚과 十目を 따른다.(正見也 從乚, 從十目.)《六書略》

直은 乚와 十目を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章, 《說文》에 「音樂이 끝나면 一章이 된다. 음에서 왔고 十에서 왔다. 十은 數의 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說文》 樂終爲一章. 從音 從十, 十, 數之終也.)《六書略》

章은 음과 人에서 왔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善, 小篆은 이며, 고문은 이다. 《說文》에는 「길하다이다. 誦과 羊을 따른다. 이것은 義善과 의미가 동일하다.(小篆作 , 古作 , 《說文》「吉也. 從誦從羊, 此與義善意同.」)

善은 誦과 羊을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美, 《說文》에는 「달다이다. 羊, 大를 따른다.」고 하였다. 羊은 여섯 가지 축 중에서 주로 膳(반찬)을 주는 동물이다. 美는 善과 같다. (《說文》「甘也. 從羊從大.」 羊在六畜主給膳也. 美與善同)《六書略》

美字는 羊과 大를 따르므로 會意 들어간다.

𠂔, 小篆은 이다. 烏昆切이다. 《說文》에서는 「어질다이다. 皿과 囚를 따른다. 죄수를 먹이는 것이다. 官薄說이다.」라고 되어 있다(篆作 , 烏昆切. 《說文》「仁也. 從皿從囚, 食囚也, 官薄說.」)《六書略》

𠂔字는 皿, 囚에서 왔으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全, 깨끗한 옥이다. 入, 王에서 왔고, 古文에서는 𠂔으로 썼다.(純玉也. 從入 從王, 古作全.)《六書略》

全字는 入, 玉(小篆에서는 王으로 썼다)에서 왔다. 入은 들어가다이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𠂔, 攻乎切이다.《說文》에서는 「秦나라에서는 장사를 하여 이익을 많이 얻은 것을 𠂔라 하였다.」고 하였다. 詩經의 “나는 저 금 항아리에 술을 가득 따른다.”라는 구절을 인용한다. 이것은 𠂔와 乃를 따르는데, 乃는 가득 차서 이르다이다. 또 果五切이다.(攻乎切. 《說文》「秦以市買多得爲𠂔.」 引詩我盈酌彼金罍, 從𠂔從乃, 乃, 盈至也. 又果五切.)《六書略》

𠂔字는 𠂔와 乃를 따르므로 會意에 속하는 글자이다.

再, 《說文》에 「하나를 들면 둘이다。」라고 되어 있다.(《說文》 一舉而二也.)《六書略》

再字는 一과 再字의 생략형태를 따른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가야 한다.

再, 짚을 하는 것이다. 爪에서 왔고 再의 생략형이다(拜舉也. 從爪再省.)《六書略》

再字는 爪에서 왔고 再의 생략형태를 따른다. 爪는 손이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央, 《說文》에서는 「가운데이다. 大에서 왔고 문안에 있는 것이다. 大는 사람이다. 央과 𠂔는 같은 의미이다.(《說文》 中央也. 從大在門之內. 大人也. 央 𠂔同意)《六書略》

央字는 大가 門안에 있는 것이므로, 會意에 속한다.

隤,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이다. 《說文》에는 「새가 위로 높이 올라간 것이다. 새가 위로 문을 나가려는 것을 따랐다。」고 하였다.(胡沃切. 《說文》「高至也. 從隹上欲出門」)《六書略》

隤字는 새가 위로 높이 올라 문을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公, 《說文》에서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내 생각에는 八과 厶를 따랐으므로 사사로움과 구별되는 것인 것 같다.(《說文》「平分也。」臣按: 從八從厶, 所以別厶也.)《六書略》

公字는 八과 厶를 따르므로 사사로움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는 會意에 들어간다.

良, 小篆은 𠂔이다. 마음이 빠풀어지는 것이다. 目과 匕에서 왔다. 匕目은 눈을 서로 마주보며 아래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目, 匕는 匕자가 되었고 匕, 目은 眞이 되었다.(小篆作 𠂔, 《說文》: 「𠂔也. 從目匕, 匕目猶目相比不相下. 易曰: 「艮其限. 目匕爲艮, 匕目爲眞.)《六書略》

良字는 目과 匕를 따르기 때문에 會意이다.

參, 之忍切이다. 《說文》에서는 「털이 많은 것이다. 參과 人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詩經》에는 「머리술이 많아 마치 구름 같다」는 구절이 있다.(之忍切 .《說文》 「稠髮也. 從參從人.」 引詩曰 「參髮如雲」)

參字는 參과 人을 따르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赤, 《說文》에서는 「남방은 赤色이다. 大, 火에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다.(《說文》 「南方赤色也. 從大從火.」)《六書略》

赤字는 大와 火에서부터 왔으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尙, 《說文》에서는 「놓다. 석방되다이다. 大에서 왔고 八로 나누는 것이다.」라 되어 있다. 또 아래는 老이다.(《說文》 「放也. 從大而八分也.」 又下老也.)《六書略》

尙字는 大와 八에서 왔으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舟, 지금은 前자라고 쓴다. 사람이 배 위에서 걷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說文》에서 「걷지 않아도 가는 것은 舟라 한다」고 하였다.(今作前. 人在舟上, 不行而進. 故《說文》: 「不行而進謂之舟」)

舟字는 止와 舟에서 왔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受, 平小切이다 받다이다. 爪, 又에서 왔다 손톱으로 취하여 손으로 받는 것을 그린 것이다.(平小切. 受也. 從爪從又. 象爪取而手受之也.)《六書略》

受字는 爪와 又에서 왔으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夂, 財干切이다. 《說文》에서는 「잔악하게 뚫는 것이다. 夂과 又에서 왔다.」고 되어 있다. 내 생각에는 夂자는 뼈가 앙상한 것이다. 又는 손으로 그것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夂를 따르는 것들은 모두 그러한 깊은 뜻이 있다.(財干切. 《說文》 「殘穿也. 從夂從又」 臣按, 夂, 殘骨也. 又取之也. 然凡從夂者皆有深意.)《六書略》

夂字는 夂와 又으로 이루어진 會意字이다.

寒, 《說文》에서는 「얼다이다. 사람이 집 아래에 있고 풀로 그것을 덮은 것이다. 아래에는 宀(얼음)이 있다. (《說文》 「凍也. 從人在宀下, 從艸

虞覆之, 下有尃。」)《六書略》

凍字는 小篆에서 冫로 쓰인다. 冫와 隹를 따르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으며, 아래에는 冫가 있다. 그러므로 會意에 들어간다.

(6) 會意를 諧聲으로 歸納한 경우

武, 戈와 止를 따른다. 戈를 따르므로 그 뜻이 보이고, 止를 따라서 그 소리가 보인다. …武는 육서 중에서 諧聲이다. 武는 창 의 일종이다.(從戈從止, 從戈以見義, 從止見其聲…武於六書爲諧聲, 武, 戈類也.)《六書略》

武字는 卜辭나 金文에 많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戈와 止를 따르고 있지, 戈와 止를 따르는 경우는 없다.

(7) 諧聲을 象形으로 歸納한 경우

爽, 恭干切이다. 大에서 왔고 大는 사람이다. 사람의 눈과 두 눈의 형태를 본떴다(恭干切, 從大, 大, 人也. 象人目兩目之形.)《六書略》

爽字는 眙에서 소리를 취한 것이다. 爽은 眙와 同音이다. 爽의 음은 舉朱切이며, 聲은 見紐에 속한다. 眙의 음은 九遇切이며, 聲 역시 見紐에 속한다. 즉 爽과 眙은 正紐雙聲이 된다. 또 爽의 古音은 《段表第三·四部》에 있으며, 眙은 《段表第五部》에 있는데, 第四부와 第五部 兩部는 旁轉으로 서로 통한다. 그러므로 爽자는 諧聲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鄭樵는 千字를 「象形第一象數」로 분류를 했으나, 아무 설명도 없다.

千, 100이 10개이고 十에서 왔고 人聲이다.(十百也. 從十, 人聲)《說文解字》

千, 此先切이다. 十二部이다.(此先切. 十二部)《說文解字注》

人字는 如鄰切이다. 이의 古音도 《段表十二部》에 있다. 千은 같은 部에 속하는 疊韻이다. 즉 千字는 人에서 소리를 얻은 것이 틀리지 않다. 許慎이 諧聲으로 여긴 것이 옳다.

尪, 旁자로도 쓴다. 位에서 소리를 취했다.(亦作旁, 象位取聲.)《六書略》

尪, 薄이다. 二에서 왔고 方聲이 빠졌다.(薄也. 從二, 闕, 方聲.)《說文解字》

段玉裁의 注에서는 步光切이며, 10부에 속한다고 하였다. 方字의 古音 역시 《段表第十部》에 속하므로, 芻와 方자는 疊韻이다. 즉 芻는 方에서부터 소리를 얻었다는 것은 틀리지 않다. 허신이 諧聲이라고 여긴 것이 옳다.

芻, 길이가 二尺이다. 군대에서 군사들이 잡는 것이다. 司馬法은 「깃털을 잡은 것이며, 稬(창)에서 왔다.»고 하였다. 또 음이 殊이기도 하다.(長丈二尺, 軍中士所持. 司馬法曰: 「執羽從稬」 亦音殊.)《六書略·形兼聲》

《說文解字》에서는 芻동이라고 하면서 又을 따르고 几聲이라 하였다. 대개 芻와 几는 同音이다. 그러므로 芻자는 几에서 소리를 얻었다. 그것을 諧聲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

星, 지금은 星이라 쓴다. 晶은 별이 흩어져 반짝이는 것을 본땀다. 生자는 그 모양을 발생하는 것을 본땀다.(今作星. 晶象星之散明, 生象其發渙也.)《六書略·形兼聲》

星字는 晶을 따르고 生聲이므로 諧聲字가 되며, 「形兼聲」이라 할 필요는 없다. 대체로 會意와 諧聲의 글자들은 모두 象形이나 혹은 指事의 文에서 불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들 會意字나 諧聲字를 구성하는 文에는 象形이나 혹은 指事字가 있게 마련이다. 만약 「兼形」이나 「兼事」으로 표현되었다면 이들은 대체로 諧聲字이거나 會意字이다.

箕, 지금은 箕으로 쓴다. 𠄎부르다이다. 竹과 𠄎에서 왔다. 𠄎는 象形이고, 아래는 그 𠄎 받침이다. 𠄎역시 箕字가 되며, 𠄎역시 箕이다.(今作箕. 《說文》「簸也. 𠄎竹, 𠄎, 象形, 下其刀也. 𠄎亦爲箕字, 𠄎亦算箕.」)《六書略》

箕자는 竹과 𠄎에서 왔다. 𠄎聲이다. 그러므로 諧聲에 들어간다.

筮, 바로 互字이다. 《說文》에서는 「줄을 거둘 수 있다. 竹을 따르는데 이는 상형이다. 互는 사람 손으로 밀고 잡는 것을 그린 것이다.(即互字. 《說文》「可以收繩也. 筮竹象形. 互象人手所推握也.」)《六書略》

筮字는 竹을 따르며 互聲이다. 그러므로 諧聲에 들어가야 한다.

韋, 《說文》에 「서로 등지는 것이다. 舛에서 왔고 口聲이다. 짐승의 부드러운 가죽은 굽은 것을 묶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說文》「相背

也. 從舛口聲. 獸皮之韋, 可以束枉淚.)《六書略》

韋字은 서로 등지고 있는 것(相背)이 本義이며, 짐승의 가죽이라는 의미는 가차된 의미이다. 이는 舛을 따르고 口聲이므로 당연히 諧聲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齠, 巨九切이다. 《說文》에서는 「노인의 이는 질구모양과 같다.»고 되어 있다.(巨九切. 《說文》: 「老人齒如臼.」)《六書略》

齠字은 齒을 따르고 臼聲이므로 諧聲에 들어가야 한다.

肱, 古宏切이다. 팔뚝이다. ㄷ을 따른다. ㄷ의 음은 肱이다(姑宏切. 臂上也. 從ㄷ, ㄷ, 音肱.)《六書略》

肱字은 又를 따르고 ㄷ聲이다. 그러므로 諧聲에 들어간다.

辨, 지금은 辨이라 쓴다. 나누는 것이다. 刀에서 왔고 辵에서 왔다. 辵은 平免切이며, 分別하다이다.(今作辨, 判也. 從刀辵辨, 辵, 平免切. 別也)《六書略》

辨字은 刀를 따르고 辵聲이다. 그러므로 諧聲에 속한다.

辯, 《說文》에서는 「다스리는 것이다. 말이 辵사이에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說文》 「治也, 從言在辵之間.」)《六書略》

辯字은 言에서 왔고 辵聲이다. 諧聲에 속한다.

畝, 지금은 畝로 쓴다. 《說文》에서는 「六尺이면 1步가 되며, 百步는 1畝가 된다. 혹은 畝字로 쓰기도 한다. 田, 十, 久를 따른다.»고 하였다. 徐鍇는 「十은 四方이며, 久의 소리이다.»라고 하였다. (畝今作. 《說文》 「六尺爲步, 步百爲畝, 或作畝. 從田十久.」 徐氏曰 「十, 四方也久聲.」

畝字은 田과 十을 따르며 久聲이다. 그러므로 諧聲에 들어간다.

疔, 當經切이다. 병이 생기는 것이다. 一說에서는 기대는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람이 질병이 있어 기대고 누워있는 모습을 본떴다. 또 尼厄切이다.(當經切. 病創. 一曰倚也, 人有疾病, 象倚箸之形.)《六書略·形兼聲》

疒字는 疒과 疒를 따르며 疒聲이므로 마땅히 諧聲에 들어간다. 一說의 글자는 《說文解字》에서 疒의 本義로, 鄭樵가 誤認한 것 같다.

裘, 裘자로도 쓴다. 《說文》에서는 「가죽옷이다. 衣에서 왔고 求聲이다. 象形이라고도 하며, 衰와 같은 뜻이다」라고 되어 있다.(亦作裘. 《說文》「皮衣也. 從衣求聲. 一曰象形, 與衰同意」)《六書略》

裘字는 求에서 소리를 얻었다. 求는 고문에서 裘라고 썼으므로 諧聲에 들어간다.

𡗗, 乙獻切이다. 《說文》에서 「큰 모습이다. 大에서 왔고 𡗗聲이다。」라고 되어 있다. 내 생각에는 𡗗가 소리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𡗗의 얼굴을 그린 것이기도 한 것 같다.(乙獻切. 《說文》「大兒. 從大 𡗗聲.」按, 𡗗雖聲, 亦象人之面目.)

諧聲은 形을 담고 있기 때문에 「𡗗雖聲, 亦象人之面目」이라 말할 필요는 없으며, 「形兼聲」으로 분류할 수 있다.

淵, 𡗗이라고도 쓴다. 《說文》에서는 「도는 물이다. 水를 따르며, 이는 象形이다. 좌우는 岸이다. 가운데는 물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물이 다시 더해져서 연못이 되므로 이는 形兼聲이 되는 것 같다.(亦作 𡗗 《說文》「回水也. 從水, 象形. 左右岸也, 中象水兒」臣按水復加淵, 是爲形兼聲.)

𡗗은 象形으로, 물이 넘치는 것이다. 水는 文이며, 𡗗은 소리를 나타내는 文이다. 따라서 諧聲이라 하는 것이 옳다.

鹵, 籠五切이다. 사방이 짙은 땅이다. 鹵은 소금밭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 지금은 소리가 된다.(籠五切. 四方鹹地也. 鹵象 𡗗形, 今以爲聲.)《六書略》

鹵는 이미 鹵의 소리를 나타내는 文이므로 鹵는 諧聲에 들어간다.

頽, 音이 弁이다. 관이 기울어진 것이다.(音弁, 冠傾也.)《六書略》

頽字는 頁을 따르며 弁聲이다. 諧聲에 들어간다.

(8) 諧聲을 指事로 歸納한 경우

事, 事는 직분이다. 吏와 같은 뜻이다.(職也. 與史同意也.) 《六書略》
事, 史에서 왔고 止에서 소리가 생략된 것이다.(從史, 止省聲.)《說文解字》
》

事字는 《說文解字》에 의하면 諧聲이다.

言, 二에서 왔고 舌에서 왔다. 二는 古文에서 上字다. 혀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말이다.(從二從舌, 二, 古文上字, 自舌上而出者言也.)《六書略》
言, 직접 말하는 것은 言이고 여러 가지를 논하는 것은 語라고 한다. 口에서 왔고 辛聲이다.(直言曰言, 論雜曰語. 從口辛聲《說文》)

鄭樵와 許慎의 설명이 다르다. 《說文解字》에 따르면 言字는 諧聲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鄭樵의 「從二從舌」도 그 의미가 통하기는 한다. 하지만 言은 卜辭에서는  (《後編下》十·四),  (《拾遺》八·一) 등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보면 卜辭에 보이는 言字는 결코 「從二從舌」이라 할 수 없고,, 《說文解字》의 「從口辛聲」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言字는 諧聲字에 들어가야 한다.

員, 지금은 貝으로 쓴다. 于權切이다. 헤아리는 것이다. 徐鍇은 「옛날에는 貝를 화폐로 사용하였으므로 그것을 세는 것이다」라고 하였다.(今作員, 于權切. 數也. 徐鍇曰:「古以貝爲貨, 故數之.」) 《六書略》

員, 員자는 물건의 수이다. 貝에서 왔고 口聲이다. 員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員을 따른다.  는 籀文으로 鼎을 따른다.(物數也. 從貝口聲. 凡員之屬皆從員.  , 籀文從鼎.)《說文解字》

金文의 員字는  (伯員鼎),  (員父鼎, 員父專),  (師裳殷),  (兮田繫)인데, 이로써 古器에 보이는 員字는 모두 鼎을 따르거나, 혹은 鼎의 생략형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³⁾ 그 위는  혹은  을 따르는데, 이는 바로 둥근 원을 그린 것이며, 園처럼 읽는다. 그러므로 員자는 마땅히 「從鼎省,  聲」의 諧聲字에 속한다.

徐鍇는 《說文解字》의 「物數」의 의미를 오인하여 動詞로 쓰이는 數로써 員字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체로 物數라는 것은

63) 師裳殷과 兮田繫에서의  혹은  은 貝가 아니다. 金文에서의 貝자는 이처럼 쓰이지 않는다.

물건을 세는 단위로 지금의 「箇」나 「枚」 등과 같은 것이다.

庸, 《說文》에서는 「사용하는 것이다. 用에서 왔고 庚에서 왔다. 庚은 일을 고치는更 것이다. 周易에서는 「天干에서 앞 일곱 번째 三日이다.」라고 하였다.(《說文》 「用也. 從用從庚. 庚, 更事也. 易曰: 「先庚三日.」」)《六書略》

庸字는 用에서 소리를 얻었다. 庸과 用 두 글자의 聲도 동일한 喻紐에 속하며 韻도 둘 다 《段表古音第九部》에 속하여, 이 두 글자는 동음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庸字는 「事兼聲」이 아니라 諧聲에 속한다.

甫, 《說文》에서 「남자의 미칭이다. 用父에서 왔다」고 하였다.(《說文》 「男子美稱, 從用父.」)《六書略》

甫字는 小篆에서는 𠂔로 사용되어 당연히 「從用父聲」이다. 대체로 甫와 父 두 글자는 동음이므로 이 甫字는 당연히 父에서 소리를 취했다. 따라서 「事兼聲」이 아니라 諧聲字에 속한다.

𠂔, 簿沃切이다. 창피를 당하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井에서 왔고 𠂔에서 왔다. 또 方六切이다.(薄泣切. 煩瀆也. 從井從𠂔. 又方六切.)《六書略》

𠂔, 장사하는 것을 갈보는 것이다. 𠂔, 井에서부터 왔다. 井은 또 聲이다.(瀆𠂔也. 從𠂔 從井, 井亦聲.)《說文》

𠂔, 井 이 두 글자의 古音은 《段表第3部》에 속하므로 𠂔字는 井에서 소리를 얻은 諧聲字이지 「事兼聲」이라고 할 수 없다.

今, 《說文》에서 「이 때이다. 스과 𠂔를 따른다. 𠂔는 古文의 及자이다.(《說文》 「是時也. 從亼從𠂔. 𠂔, 古文及字.」)《六書略》

今의 音은 居音切로 聲은 見紐에 보이고, 及의 音은 巨立切로 聲이 群紐에 속한다. 따라서 이 두 글자는 旁紐雙聲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두 글자의 고음은 모두 《段表第七部》에 속하여 同部の 疊韻이다. 그러므로 今字는 스을 따르고 𠂔의 소리인 諧聲字이지, 「事兼聲」이라 할 필요 없다.

𠂔, 甫還切이다. 《說文》에서는 「일을 부역하는 것이다. 八에서 왔고

八은 역시 소리다。」라고 되어 있다. (甫還切, 《說文》「賦事也. 叀八, 八亦聲.」)《六書略》

𦉳는 讀若頒이다. 一說은 讀若非이라고도 한다. 이 頒과 八 두 글자는 雙聲이므로, 이 글자는 八에서 소리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諧聲字에 속하며 「事兼聲」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9) 諧聲을 會意로 歸納한 경우

毒, 徒沃切이다. 두텁다이다. 사람을 해치는 풀이다. 屮에서 왔고 毒을 따른다.(徒沃切. 厚也. 害人之草. 屮屮從毒.)《六書略》

毒字는 大徐本에서는 「從屮從毒」이라 하였고, 小徐本에서는 「從屮毒聲」이라고 하였다. 《段注》에서는 毒은 一部와 三部에 있어 合韻으로 가장 가깝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毒字는 마땅히 毒에서 소리를 얻은 諧聲字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鄭樵는 大徐本을 따라 잘못 귀납시킨 것이다.

春, 小篆은 𦉳이다. 《說文》에서는 「밀치다이다. 艸에서 왔고 日에서 왔다. 풀은 봄에 생긴다. 屯聲이다。」라고 하였다.(篆作 𦉳. 《說文》「推也. 從艸從日, 艸春時生, 屯聲.」)《六書略》

《說文解字》의 春字는 屯에서 소리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옳다. 鄭樵는 《說文解字》를 인용하면서도 이를 會意로 귀납시켰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道,《說文》에서 「도를 행하는 바이다. 한번 다 달은 것을 道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또 大倒切이다.(《說文》「所行道也. 一達爲之道.」)《六書略》

道字는 首에서 소리를 얻었다. 道의 音은 徒誥切이고, 그 聲은 定紐에 속한다. 首의 音은 書九切이며, 그 聲은 審紐에 속한다. 古音은 頭처럼 읽으며, 聲은 透紐에 속한다. 透紐와 定紐는 同類이므로, 이 道와 首 두 字는 旁紐雙聲이 된다. 또 古音은 둘 다 《段表第三部》에 있어 同部疊韻이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諧聲에 들어가야 한다.

衢, 杜皓切이다. 길을 행하는 바이다. 또 大到切이다. 인도하는 것이다.(杜

皓切. 所行道也. 又大到切, 導引也.)

金文에서 道자는 모두 이와 같이 썼다⁶⁴⁾. 그러므로 衍字 역시 道에서 소리를 얻어 諧聲字에 속한다.

話, 모여서 하는 좋은 말이다. 傳에 이르기를, 「알리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혹 話라고도 쓴다.(合會善言也. 傳曰 「告之語言.」或作話.)

《說文解字》에서는 「合會」을 「會合」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鄭樵가 인용하면서 잘못 인용한 것 같다. 또 「從言 𠄎聲」이란 구절을 누락시켜, 語를 會意로 여긴 것은 옳지 않다.

與, 演女切이다. 《說文》에서 말하길 「무리이다. 或은 与로도 쓴다.」고 하였다. 또 羊茹切이다.(演女切. 《說文》 「黨與也. 或作与.」 又羊茹切, 及也.)《六書略》

與字는 与에서부터 소리를 얻었다. 與의 음은 余呂切이며, 与의 음도 余呂切이다. 이 두 글자는 同音이므로 與字는 諧聲에 들어가야 한다.

敗, 손상시키는 것이다. 古文에서는 敗, 𠄎이라고 쓴다(毀也. 古作敗) 《六書略》

敗字는 貝에서부터 소리를 얻었다. 敗의 음은 簿邁切이며, 貝의 음은 博蓋切이다. 이 두 字는 雙聲이면서 疊韻이다. 敗자는 並紐에 속하고, 古音은 《段表第十五部》에 있다. 敗자는 幫紐에 속하고 古音도 《段表第十五部》에 있다. 그러므로 諧聲에 들어가야 한다.

盲, 目이 눈동자를 잃은 것이다.(目亡牟子.)

盲字는 亡에서 소리를 얻었다. 盲의 음은 武庚切이며, 古音 역시 《段表第十部》에 있다. 亡은 武方切로 고음 또한 《段表第十部》에 있다. 이 두 들자는 동음이므로 諧聲에 들어간다. 《說文》에서도 「從目 亾聲」이라 하였다.

64) 《古籀彙編下》 十七葉을 참고하시오.

幽, 《說文》에서는 「숨다」라고 하였다. (《說文》「隱也。」)《六書略》

幽字는 ㄹ에서 소리를 얻었다. 幽와 ㄹ는 同音으로 於虬切이다. 두 글자는 諧聲에 들어간다.

劑, 吾官切이다. 《說文》에서는 「질단하다이다. 혹은 冠로도 쓴다。」라고 하였다.(吾官切. 《說文》「劑也. 或作冠」)《六書略》

劑字는 元에서 소리를 얻었다. 劑字는 元과 同音이며, 聲은 둘 다 疑紐이며, 고음은 모두 《段表第十四部》에 있다. 그러므로 劑字는 諧聲에 들어간다.

靑, 千定切이다 김푸른 색이다.(千定切. 靑,靑, 靑黑色.)《六書略》

靑字는 靑에서 소리를 얻었다. 靑과 靑은 同音으로 淸紐雙聲에 속한다. 또 古音은 둘 다 《段表第十一部》에 속한다. 그러므로 靑字는 諧聲에 들어간다.

阱, 疾正切이다. 빠지는 것이다. 혹은 萊로도 쓴다.(疾正切. 陷也. 或作萊.)
《六書略》

阱字는 井에서 소리를 얻었다. 阱과 井은 同音이다. 阱은 從紐에 속하며, 井의 音은 子郢切로, 그 聲은 精紐에 속한다. 精紐와 從紐는 同類이다. 그러므로 阱과 井은 旁紐雙聲이 된다. 또 두 글자의 古音도 모두 《段表第十一部》에 있다. 그러므로 阱字는 마땅히 諧聲에 들어간다.

蝕, 實職切이다. 썩은 음식이다.(實職切, 敗食也.)《六書略》

蝕字는 食에서 소리를 얻었다. 두 글자는 모두 乘力切로 동음이다. 그러므로 蝕字는 諧聲에 들어간다.

厚, 예서에서는 厚라고 쓴다. 《說文》에는 「丘陵이 두터운 것이다. 𠂔에서 왔고 冫에서 왔다。」고 하였다.(隸作厚. 《說文》「丘陵之厚也. 從𠂔冫.」)

厚字는 𠂔에서 소리를 얻었다. 𠂔와 𠂔는 同音으로 胡口切이다. 그러므로

로 諧聲에 들어간다.

賣, 莫解切이다. 《說文》에서는 「물품을 내는 것이다. 出에서 왔고 買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다.(莫解切. 《說文》 「出物貨也. 從出從買.」)《六書略》

賣字는 買에서 소리를 취하였다. 賣와 買는 同音으로 明紐에 속하고 古音도 《段表第十六部》에 있다. 그러므로 賣字는 諧聲에 들어간다.

眚, 古文에서는 姓字이다.(古文 姓字.)《六書略》

眚, 눈에 병이 나서 덮어 가리는 것이다(目病生翳也.)《說文解字》

鄭樵가 「古文 姓字」라고 한 것은 바로 가차이다. 卜辭나 金文에서의 姓字는 이처럼 쓰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說文解字》에 해석에 따라서 諧聲에 넣어야 한다. 眚와 生은 同音이다.

華, 戶瓜切이다. 《說文》에서는 「꽃이 피다이다. 艸에서 왔고 𦰩에서 왔다. 隸書에서는 華라고 쓴다.」고 하였다.(戶瓜切. 《說文》 「榮也. 從艸從𦰩, 隸作華.」)《六書略》

華는 𦰩에서 소리를 취하였다. 華의 음은 戶瓜切이며, 聲은 匣紐에 속한다. 𦰩의 음은 況干切로, 그 聲은 曉紐에 속한다. 曉紐와 匣紐는 同類이다. 그러므로 華와는 旁紐雙聲이 된다. 또 두 글자의 古音은 《段表第五部》에 있어, 同部疊韻이 된다. 그러므로 華字는 諧聲에 들어간다.

疑, 魚直切이다 느끼는 것이다. 또 偶起切이다. 《說文》에서 「범하다이다. 一說에서는 서로 의심한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魚直切. 感也. 又偶起切. 《說文》 「僣也. 一曰相疑.」)

僣字는 疑에서 소리를 취했다. 僣와 疑字는 同音으로 魚己切이다. 그러므로 僣字는 諧聲字에 들어간다.

伎, 農都切이다. 奴婢는 모두 옛날에는 죄인이다. 고문에 奴는 從人, 或, 僮이라고 쓴다.(農都切. 奴婢皆古之罪人, 古文奴從人, 或作僮.)《六書略》

伎字는 女에서 소리를 취했다. 伎는 泥紐에 속하고 女는 娘紐에 속한다. 伎와 女는 雙聲이다. 또 두 글자는 古音이 똑같이 《段表第五部》에 있다.

따라서 諧聲에 들어간다.

歡, 許其切이다. 《說文》에서는 「즐거워하는 것이다. 欠에서 왔고 喜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다. (許其切. 《說文》 「卒喜也. 從欠從喜.」)《六書略》

歡字는 喜에서 소리를 취하였다. 歡은 許其切이며 聲은 曉紐에 속한다. 喜의 音은 虛里切이며 聲 역시 曉紐에 속한다. 또 古音은 똑같이 《段表第一部》에 있다. 이 두 글자는 同音이므로 諧聲에 들어간다.

危, 《說文》에서는 「높은 곳에 있어 두려워하는 것이다. 厃自卍止之에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說文》 在高而懼也. 從厃自卍止之.)《六書略》

危字는 厃에서 소리를 취했다. 危와 厃는 同音이며, 聲도 둘 다 疑紐에 속한다. 韻에 있어서는 古音이 똑같이 《段表第十六部》에 있다. 그러므로 危字는 諧聲에 들어간다.

旬, 《說文》에서 「두루 미치다이다. 十日을 열흘이라고 한다. 勹, 日에서 왔다.」라고 설명하였다. (《說文》 「徧也. 十日爲旬. 從勹日.」)

旬字는 勻字를 생략한 소리다. 旬과 勻은 同部疊韻이다. 古音에서도 똑같이 《段表第十二部》에 있다. 그러므로 旬字는 諧聲에 들어간다.

勹, 薄告切이다. 《說文》에서는 「뒤집히다.이다. 勹에서 왔고 사람을 뒤집힌 것에서 왔다.」고 되어 있다.(薄告切. 《說文》 「覆也. 從勹覆人.」)《六書略》

勹字는 勹에서 소리를 취했다. 勹는 並紐에 속하고 勹는 旁紐에 속하는데, 幫紐와 並紐는 同類다. 그러므로 勹, 勹 二字는 旁紐雙聲이 된다. 古音에서도 똑같이 《段表第三部》에 있다. 따라서 諧聲에 속한다.

契, 《說文》에서는 「나무로 된 계약서이다.」라고 하였다. 易經에 따르면 후대 성인들이 이것을 서계로 바꾸었다고 한다.(《說文》 「木約也.」引 易後代聖人易之以書契.)《六書略》

契字는 劓에서 소리를 취한 것이다. 契와 劓는 同音이다. 契音은 苦計切

이고, 𠄎은 恪八切이다. 聲도 똑같이 溪紐에 속한다. 古音은 《段表第十五部》에 있다. 그러므로 契자는 諧聲에 들어간다.

承, 辰陵切이다. 《說文》에서는 「받는다. 받다이다. 手, 口, 𠄎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辰陵切. 《說文》 「奉也. 受也. 從手從口從𠄎.)《六書略》

承字는 丞에서 소리를 얻었다. 承과 丞은 同音으로 暑陵切이다. 그러므로 承字는 諧聲에 들어간다.

如, 《說文》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내 생각에는 女와 口를 따르는데, 여자의 입은 오직 명령을 따르기 때문이다.(《說文》 「隨也.」 按從女從口, 女子之口惟從命)《六書略》

如字는 女에서 소리를 취했다. 如是 日紐에, 女는 娘紐에 속한다. 古音에서 娘과 日은 同類이다. 그러므로 如와 女는 雙聲이 된다. 또 두 글자의 古音은 똑같이 《段表第五部》에 있어 疊韻이 된다. 그러므로 如字는 諧聲에 들어간다.



甸, 《說文》에서 「천자의 五百里땅이다. 田에서 왔고 甸의 생략형이다.」라고 하였다. 또 石證切이다. 六十四井을 甸이라 한다.(《說文》 「天子五百里地. 從田包省. 又石證切. 六十四井爲甸.)《六書略》

甸字는 田에서 소리를 취했다. 甸과 田은 同音으로 定紐에 속한다. 古音에서도 똑같이 《段表第十二部》에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諧聲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醉, 《說文》에서 「취한 병사이다. 각각의 병사는 그 도량이 亂을 일으키지는 못한다」고 설명하였다.(《說文》 「醉卒也. 各卒其度量不至亂也」)《六書略》

醉字는 卒에서 소리를 취했다. 醉와 卒은 同音으로 定紐에 속한다. 古音도 똑같이 《段表第十五部》에 있다. 그러므로 諧聲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堯, 《說文》에서 「높은 것이다. 晄을 따랐고, 위에 우뚝한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내 생각으로는, 堯는 晄와 兒를 따른 것 같다. 왜냐하면 요 임금은 굳센 것으로 이름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兒를 덧붙인 것이다.

古文에서는 堯로 쓴다.(《說文》 高也. 從垚在兀上 高遠也.) 臣按: 堯當從垚從兒, 因帝堯以垚爲名, 故又加兒焉. 古文作, 亦從二兒可知也.)《六書略》>

堯字는 垚에서 소리를 취했다. 堯와 垚는 同音으로 疑紐에 속한다. 古音은 똑같이 《段表第二部》에 있다. 따라서 諧聲에 속한다.

箕, 으로도 쓴다. 竹, 으로부터 왔다. 아래에 其자는 丌받침이다. (亦作. 從竹. 象形. 下其丌也.)

箕字는 象形에서도 보인다. 丌에서 소리를 취한 것이다. 箕와 丌는 同音으로 둘 다 見紐에 속한다. 古音도 똑같이 《段表第一部》에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諧聲이 되어야 한다.

協, 《說文》에서는 「마음을 같이 합한다. 荔과 心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說文》 「同心之和. 從荔從心.」)《六書略》>

協字는 荔에서 소리를 취하였다. 協과 荔은 胡頰切로 同音이다. 그러므로 諧聲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𡇗, 胡頰切이다. 《說文》에서 「생각을 똑같이 화합한다. 荔, 思에서부터 왔다.»고 설명하였다.(胡頰切. 《說文》 「同思之和. 從協從思.」)《六書略》>

𡇗字는 荔에서 소리를 취했다. 𡇗과 荔은 胡頰切로 同音이므로 諧聲에 속한다.

醬, 肉에서 왔고 酉의 생략형을 따른다. 술로 된장을 만드는 것이다.(從肉從酒省, 酒以和醬.)《六書略》>

醬, 술을 빚는 것이다. 肉, 酉을 따른다. 누룩으로 술을 담는 것이다. 冫聲이다. (醞也, 從肉酉. 酒以釀醬也. 冫聲也.)《說文解字》>

鄭樵는 本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鄭樵는 「從肉從酒省」이라 하였는데, 酉가 바로 酒이기 때문에 굳이 從酒省이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從酉將省聲」이라 했어야 했다. 醬과 將은 同音으로 精紐에 속하며, 古音 역시 둘 다 《段表第十部》에 있다. 따라서 이 글자는 諧聲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V章. 結論

古수를 통하여 중국문자학을 연구할 때, 許慎의 《說文解字》는 기독교의 《聖經》처럼 인식되는 저작이다. 특히 과거의 경우 이를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本 연구의 대상인 《六書略》의 저자인 鄭樵는 생각이 좀 달랐다. 그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說文解字》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던 학술태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說文解字》의 옳은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옳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과감히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피력했던 인물이다. 鄭樵는 六書學을 개창하여, 한자를 생성의 각도에서 六書를 설명하였고, 西漢 劉歆의 「造字之本」 설을 견지하였으며, 許慎이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語焉不詳)」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중국 문자학사상 처음으로 六書의 의미를 체득하여, 六書를 詳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六書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六書라 함은 처음에는 學童들을 가르치는 六藝 또는 조자법으로서의 六書였다. 許慎은 六書의 性質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字形을 분석할 때에도 指事, 象形, 諧聲, 會意 만을 썼으며, 轉注와 假借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明代 이후로는 六書는 造字之本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六書略》의 著者 鄭樵의 자는 漁仲이고, 호는 夾漈이다. 鄭樵는 스스로 溪西逸民이라고 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夾漈先生이라고 불렀다. 정초가 살았던 시대는 북송말엽으로 新舊黨간의 爭戰이 극렬했던 時代였다. 그는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초야에 묻혀 지내면서 평생을 학문에 매진하였다. 그리하여 총 84種의 저작을 남겼으나, 그 중 말년에 쓴 《通志》가 가장 유명하며, 그 중에는 《六書略》, 《金石略》 등 문자학에 관한 저작들도 수록되어 있다.

당시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술 환경 및 금석학의 흥기도 《六書略》의 成書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지만, 한자의 구성과 발전 및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마음대로 글자를 만드는 폐단을 없애고, 문자를 설명할 때에 그 근거를 밝히기 위한 정초의 사명감이나 언어관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六書略》은 총 5편, 약 55000자로 되어 있다. 1편에서 4편까지가 이 책의 핵심이며, 이는 다시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六書圖로, 각 書의 세목들을 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었다. 또 다

른 부분은 육서이론과 육서실천 부분인데, 모두 24235字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육서분류에 따라 배열하여 설명함으로써, 漢代의 문자학자인 許慎이 수립한 글자의 形에 따른 배열방식인 「据形系聯」의 전통을 타파하였다.

《六書略》의 글자 해석 체제는 주로 字頭, 注音, 釋義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字頭는 「隸古定(楷書의 필세로 古文字를 적는 것)」의 형식으로 썼으며, 注音는 直音法이나 反切法을 사용하였고, 釋義의 문장은 간결하였다. 釋字 이외에도 鄭樵는 또 각 「書」의 특징을 밝히려고 노력하여, 각 「書」의 서언에서 각 「書」의 形體的特徵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 鄭樵는 책의 첫 머리에 六書圖를 그려 넣어 한자 생성의 주요경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鄭樵는 許慎의 部首統字法을 따르지 않고, 「六書統字」라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 이것은 한자배열에 있어 위대한 시도였다. 그가 분석한 24235字 중에는, 象形字 608字, 指事字 107字, 會意字 740字, 諧聲字 21810字(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그는 496字만 배열하였다.), 轉注字 372字, 假借字 598字가 있다. 즉 이것은 許慎의 《說文解字》를 六書에 따라 다시 배열한 鄭樵의 《說文解字》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書」를 「正生」, 「側生」, 「變生」, 「託生」, 「反生」 등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또 세분하여 일목요연하게 글자들을 설명하였다. 鄭樵는 또한 兼書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한자의 形體結構가 복잡하여, 六書를 분석함에 있어 엄밀히 부합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담하게 창안한 방법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本考에서는 《六書略》과 《說文解字》를 비교함으로써, 《六書略》의 성과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론 확립의 방면과 六書實踐(各字의 분석)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론 확립의 방면에 있어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六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小學에서의 六書의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처음으로 「六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 鄭樵는 象形, 諧聲, 假借가 六書에서 특유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강조하였다. 象形은 六書의 처음이며, 象形字는 모든 한자체계의 기초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리고 諧聲은 六書 중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聲音방면과 그로 인해 수없이 증가할 수 있다는 產生방면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六書가 어려운 것은 假借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假借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六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3) 許慎은 이 4書에 대해, 각각 8글자로 설명을 하고, 2字로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그들의 윤곽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특징이나 상호관계 및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鄭樵에 이르러서 象形, 指事, 會意, 諧聲

등의 대비를 통해 그들의 심층적인 특징과 내부관계를 나타내었다

六書實踐 방면에 있어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甲骨文과 金文에 부합된다.(冊, 元, 鼓, 兪, 帝 등) 許慎은 때때로 글자의 初形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漢字의 本義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鄭樵는 대량으로 출토된 銅器을 연구함으로써 許慎의 설을 보충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許慎은 冊을 符命이라 하였는데, 정초는 다름가죽으로 대나무를 엮어 만든 책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甲骨文이나 金文에 부합되는 것이다.

(2) 許慎의 《說文解字》보다 사실과 가깝다.(不, 庶, 宇, 庚 등) 예를 들어 許慎은 不이 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 빙빙 돌며 내려오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鄭樵는 꽃의 꽃받침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하였다. 甲骨文의 不을 살펴보면 不의 橫劃은 땅을 표시하는 것이며, 아래의 옆으로 나있는 선은 씨앗이 발아할 때 먼저 땅 아래로 성장하는 胚根을 나타낸 것으로서, 許慎의 설이 틀렸으며, 鄭樵의 설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였다.(蠱, 匕 등) 蠱의 경우 원래는 싱싱한 생선을 뜻했으나 당시 사람들은 작은 물고기를 蠱이라 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4) 陰陽五行說의 제약에서 벗어났다.(玉, 一 등) 많은 字義의 해석에 있어서, 許慎은 분명히 음양오행설의 관점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鄭樵는 字形에서 한자의 본의를 해석한 경우가 훨씬 많다. 鄭樵가 해석한 일부 本義 중에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는 글자의 본의를 찾으려고 노력하여, 허신의 관점을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5) 本義와 假借義를 구분하였다.(日辰이나 天干地支의 글자, 之·者·於·云 등의 虛詞 등) 鄭樵는 日辰, 天干地支를 나타내는 글자들은 모두 다른 글자를 빌린 것이며, 가차된 글자에는 모두 本義가 있으므로, 이런 글자들의 本義를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字形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虛詞도 假借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6) 許慎의 字形分析을 정정하였다.(牢, 家, 勞, 丕, 要, 杳, 帝 등) 鄭樵가 한 字形分析을 정정하며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鄭樵의 견해가 정확하거나 합리적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許慎은 牢는 牛을 따랐으며, 冬이 생략되었으며, 사방이 둘러싸인 것을 취하였다고 하였지만, 鄭樵는 牢의 本義는 가축을 기르는 우리이며, 字形은 소 한 마리가 우리에 갇혀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鄭樵의 견해가 정확한 것이다.

(7) 字形變化를 반영하였다.(飢, 衄, 雲 등) 鄭樵는 의식적으로 문자가 역사적인 사용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고 字形변화의 源流를 탐구하여, 시대

의 변화로 인하여 글자를 구성하는 부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경우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云은 옛날의 雲字로 그 모습을 그린 것이었는데, 후대인들이 雨를 더했으므로, 云은 云回의 云으로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8) 俗字까지 포함하였다.(凹, 凸, 𠂔, 傘, 尖 등) 鄭樵는 글자를 수집하면서도 《說文解字》의 「지금 전문으로 기록하고, 옛 주문과 합한다.(今敍篆文, 合以古籀)」는 옛 규칙을 고수하지 않고 당시에 통행되는 글자들을 《說文解字》의 字頭와 마찬가지로 대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俗體라고 하는 글자들도 正體로 보았다.

(9) 《說文解字》의 모호한 聲訓을 개선하였다. 象形字의 해석에 있어서는 鄭樵는 形體分析에 치중하여, 許慎의 聲訓을 받아들이지 않았다.(田, 戶, 木 등) 그리고 鄭樵는 許慎의 성훈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𠂔 등) 이밖에도 그는 天干地支와 虛詞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부분은 聲訓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그 本義를 말한 다음에 假借義를 말하였으니 비교적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한계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도 범하고 있었다.

이론 방면에 있어서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1) 字體에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許慎은 字頭는 통일적으로 篆書를 사용했으며, 그 후에 古文이나 籀文을 덧붙였다. 반면 鄭樵는 「隸古定」의 書定형식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통일적이지 않고, 때로는 隸書가 변한 후의 簡字形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경우는 간략히 된 필획을 사용하기도 하고, 古字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隸書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簡體나 古字體를 사용함으로써 글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었다.

(2) 잘못된 해석이 있었다.(泉, 示, 天, 射, 出, 白 등) 鄭樵는 許慎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해설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정확해졌다는 사실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꽤 많은 부분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泉이 본래 錢이라고 한 것이 그렇다.

(3) 各書내의 分類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었다. 鄭樵는 諧聲字를 正生과 變生 두 종류로 구분하고, 變生은 또 子母同聲, 母主聲, 主聲不主義, 子母互爲聲, 聲兼義, 三體諧聲 등 6개로 나누었는데, 사실 子母同聲과 子母互爲聲의 경우도 그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母主聲이나 主聲不主義에 속한 글자들도 사실 몇 자에 불과하여, 그 정의가 명료하지 않은 면이 있다.

轉注의 경우 建類主聲은 하나의 代表字 즉 聲類를 확립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글자를 따르는 글자들은 類首字의 소리(聲音)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建類主聲轉注에서 類首字는 聲音범주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문자사용대상과 사용범위」를 나타내거나 혹은 「類化」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式 과 二, 式 등) 互體別聲에 대해서 鄭樵는 「소리가 다르면 뜻이 다른 것(聲異而義異者)」이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문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같으면서도 각기 다른 소리로 읽혀지는 글자를 말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비록 동일한 의미범주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문자를 구성하는 부분의 위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本, 末, 朱 등) 互體別義의 경우도 「의미는 다르지만 소리가 다르지 않는 것(義異而聲不異者)」이라 하여 문자를 구성하는 부분이 서로 같은 두 글자가, 소리는 같지만 字義가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자의 類化 및 구성성분이 비슷한 한자가 각기 다른 조합방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글자가 되는 것은 한자의 孳乳현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지, 사실 轉注와는 억지로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假借의 경우 「無義之假借」는 바로 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빌려서 다른 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은 빌리지만 뜻은 빌리지 않고 다른 말을 나타내기 때문에, 「無義之假借」로 이미 모든 가차현상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鄭樵는 「無義之假借」와 「語辭之借, 五音之借, 三時之借, 十日之借, 十二辰之借, 方言之借」 등을 竝列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無義之假借」의 아래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과 병렬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有義之假借를 「同音借義, 協音借義, 因義借音, 因借而借」 등 4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코 假借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六書實踐(各字의 分析)에 있어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데, 《六書略》중의 많은 글자들은 그 유형분류가 확일적이지 않았다. 즉 甲류에 속한 글자들이 또 乙류에도 속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祝, 封, 攸, 解, 簋, 塵, 法, 尉 등의 글자들은 「正生會意」에서도 보이고 「三體會意」에서도 보이고 있었다. 또 글자들을 잘못 귀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象形을 指事로 歸納한 경우 : 戊, 申 등
- (2) 象形을 會意로 歸納한 경우: 晶, 殷, 등
- (3) 指事를 象形으로 歸納한 경우 : 匕, 亦, 夭, 失, 交, 尢, 立, 毋, 厶, 卩, 夂, 久, 友, 又, 疒, 示, 八, 入, 爻, 丨, 凶, 卩, 彳, 串, 一, 二, 三, 三, 乂, 五, 七, 九, 十, 上, 下, 丩, 丩, 厂, 丩, 只, 彌, 丩, 兮, 乎, 乃, 亏, 牟, 卩, 曰, 寸 厶 등

【參考文獻】

單行本

- 鄭 樵(1995),《通志·六書略》,上海中華書局
鄭 樵(1990),《通知略》,上海古籍出版社
許 慎(1963),《說文解字》(附檢字),上海中華書局
許 慎(1998),《說文解字》,上海中華書局
段玉裁(1988),《說文解字注》,上海古籍出版社
徐 鍇(1987),《說文解字系傳》,上海中華書局
楊錫觀(1997),《六書雜說·古今論轉注》,齊魯書社
戴 震(1980),《戴震集》,上海古籍出版社
鍾如雄(2000),《〈說文解字〉論綱》,四川人民出版社
李鴻鎮(2001),《中國文字學》, 신아사
漢語大字典出判委員會(1993),《漢語大字典》,四川,湖北辭書出版社
殷寄明(2000),《語源學概論》,上海教育出版社
戴 侗《六書故·六書通解》, 주대학교 중앙도서관 LIBRARY
楊樹達(1983),《積微居小學述林》,上海中華書局
徐 鍇(1987),《說文解字解字系傳》,上海中華書局
楊樹達(1988),《中國文字學概要文字形義學》,上海古籍出版社
郭沫若(1962),《甲骨文字研究》,北京科學出版社
河永三(2000),《漢語文字學史》,東文選 文藝新書
高 明(1996),《中國古文字學通論》,中國 北京大學出版社
王 力(1984),《中國言語學史》,中國圖書刊行社
裘錫圭(1988),《文字學概要》商務印書館許
唐 蘭(1979),《古文字學導論》上海古籍出版社
李敦柱(1997),《漢字學總論》,博英社
林尹지음, 權宅龍 옮김(1994),《中國文字學概說》,螢雪出版社

論文

- 楊清澄(1999),〈論鄭樵六書學說之不足〉,〈學術論壇〉怀化師專中文學科
施人豪(1974),〈鄭樵文字說之商榷〉,臺灣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 碩

士論文

- 林慶彰(1997),〈論鄭樵〉, 開封大學學報
- 許 璧(1976),〈六書와 說文解字〉,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 鄭鍾復(1983),〈中國文字와 六書〉, 清大漢林
- 李相機(1991),〈徐鍇의 六書說 述論〉, 中國人文科學
- 徐漢唐(2004),〈試論清代以前的 六書研究〉, 中國研究
- 康惠根(1996),〈文字分類 方法으로서의 六書에 대한 再考察〉, 中國文學
- 崔完植(1978),〈六書效用考〉, 中國文學
- 강혜근(1992),〈中國文字分類(六書)再考〉, 中國人文科學
- 상종호(1987),〈鄭樵六書平議〉, 中國學報
- 오제중(2002),〈說文解字 假借에 관한 小考〉, 人文科學論叢
- 허문선(1989),〈指事研究〉, 淑明大學校
- 윤장준(1995),〈六書의 轉注研究〉, 延世大學校 碩士論文
- 常宗豪(2000),〈鄭樵六書說平議〉, 홍콩 中文大學
- 善 國(1957),〈形聲字的分析〉, 北京人民大學人民科學學報
- 方東杰(2001),〈六書 初義新探〉, 遼寧師範大學 碩士研究生 學位論文
- 林志強(2003),〈《六書略》研究〉, 福建師範大學
- 戚桂宴(1982),〈什麼是六書〉, 山西大學學報
- 辛介夫(1987),〈略談六書的起源·書名及其他〉, 銀川師專學報
- 孫雍長(1987),〈漫談象形·指事·示意·形聲的區別〉, 華東師範大學中文系
- 楊信川(1990),〈六書的性質和作用質疑〉, 廣西大學學報
- 王功龍(1992),〈六書 理論新探〉, 遼寧師範大學學報
- 張 標(1987),〈六書的漢代三家說〉, 河北師範大學學報
- 王繼舜(1992),〈六書辨釋〉, 大慶師專學報
- 王健庵(1987),〈《說文》与六書的性質及其關係〉, 淮北煤師院學報

鄭樵的《六書略》研究

鄭華卿

《六書略》為宋代鄭樵所著。鄭樵，福建莆田人，一生致力於著述研究，《六書略》是他的一部十分重要的文字學著作。鄭樵以許慎說為參照對象，再結合古代的金石文，創建了比較新穎、合理的六書體系，從而開啓了宋元以後文字學的新時代。鄭樵敢於批判以《說文解字》為代表的傳統學說，提出了獨特的，在一定程度上動搖了《說文解字》在文字學史上的地位，有力地推動了漢文字學的研究。

本論文首先論及六書的本質，接下來介紹了鄭樵與他的《六書略》，然後對他的六書理論、六書實踐以及對漢字的具体分類與歸納等作了系統的分析，最後對鄭樵《六書略》的成就與存在的問題作了深層的分析。

初期的六書被認為是教學童的六藝的一種，而後逐漸被認為是造字之本。本研究支持這種觀點。通過研究發現，宋代追求創新的學風，金石學的興起，以及鄭樵本人對文字學研究的使命感與獨到的文字學見解促成了《六書略》的成書。

《六書略》共收集了24235個字，根據六書分類，對所有的字進行了解釋，打破了許慎樹立的“據形系連”的傳統方法。

《六書略》的注解體例主要以字頭、注音、釋義三個部分構成。字頭採用“隶古定”的形式，注音用直音法和反切法，釋義簡潔。鄭樵將各書再細分為正生、側生、變生、托生、反生等，鄭樵還提出了新穎的兼書說主張。

鄭樵在文字學史上影響最大的是他的六書理論與六書實踐的創立。他的六書理論扭轉了六朝以來漢字理論研究的低靡局面。《六書略》對六書的提出與研究，體現在以下幾個方面：首先是理論的確立，特別強調六書的重要性與它的作用，提升了它在小學中的地位。鄭樵還強調了象形、諧聲、假借在六書中特有的地位，在象形、指事、會意、諧聲的對比中揭示了它們的深層特徵與內在聯系。

六書實踐方面的成就體現在以下幾個方面。它的解釋符合甲骨文和金文的特徵，這比《說文解字》更準確、實用。隨着時代的發展，鄭樵還加入了新的解釋，脫離了陰陽五行說的限制；對字的本意和假借意進行了區分；修正了許慎的字形分析，反映了字形變化，包括俗字，改善了《說文解字》模糊的聲訓。

当然，鄭樵的六書并不是那么盡善盡美，大体存在以下几个方面的不足：第一、沒有統一的字体基准；第二、六書分類過於細碎繁瑣，種類划分不完善；第三、字義解釋多有失誤；六書在實踐方面也有不足。首先，《六書略》中不少字被重復歸類，即既歸于甲類，又歸于乙類；其次，六書統字存在許多不妥之處。

儘管《六書略》瑕瑜互見，而鄭樵作為漢代以後按六書對所有漢字進行分類，同時又致力於六書研究的最初學者的地位是不容置疑的。六書學理論的開拓，對宋元以後的文字學研究有着重大的影響。



【附錄】

글씨표 1-1

83									
戊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83									
申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84					84				
晶	晶	晶	晶	晶	晶	晶	晶	晶	晶
陸	ㄱ	ㄱ	ㄱ	ㄱ	陸	ㄱ	ㄱ	ㄱ	ㄱ
85									
匕	ㄷ	ㄷ	鼎	普	普	鼎	普	鼎	普
85	86	86	86						
天	失	交	尗	人	夫	夫	夫	夫	夫
	87					88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88				89	89		90		
南	南	南	南	示	卒	二	ㄴ	ㄴ	孰
91				92					
只	己	己	𠂇	𠂇	𠂇	𠂇	𠂇	出	出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95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步	止	𠂇	止
		94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글씨표 1-2

屯	屮	丌	夂	氏	𠂇	𠂇	𠂇	𠂇	𠂇
	96							95	
𠂇	𠂇	𠂇	止	止	止	止	止	門	𠂇
					97		98		
屮	𠂇	屮	𠂇	屮	春	尙	白	白	𠂇
		98		98					
𠂇	𠂇	𠂇	𠂇	具	𠂇	𠂇	鬼	白	白
99			100			100			
史	史	史	史	史	史	史	斗	斗	斗
100		100			101				101
𠂇	𠂇	古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善
				101			102		
善	善	善	善	𠂇	𠂇	𠂇	央	𠂇	𠂇
103			104			106			
良	𠂇	𠂇	寒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106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107			108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108			108						
𠂇	𠂇	𠂇	員	𠂇	𠂇	𠂇	𠂇	𠂇	員
				109			109		
𠂇	𠂇	𠂇	日	日	甫	甫	業	業	業
							110		
業	業	業	業	業	業	業	今	𠂇	𠂇

글씨표 1-3

			111		111				
ㄷ	ㄷ	ㄴ	箕	箕	毒	中	中	中	中
111			111		111		112		
春	叢	叢	語	昏	敗	牆	厚	旱	旱
			113					115	
旱	厚	旱	華	筭	筭	筭	參	承	収
	116			116					
収	癩	尠	尠	箕	廿	廿	廿	廿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